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정책학석사 학위논문

중·고령자의 직업 특성이 직무와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2017년 2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조 현 석

국문 초록

한국은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면서 앞서 고령화가 진행된 타국이 경험한 부작용에 직면하고 있다. 고령화가 가져오는 문제로는 대표적으로 복지 부담의 증가, 자본 유출, 잠재성장률의 하락, 노동생산성의 저하 등이 있다. 특히 고령화에 따라 중·고령자의 복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정부의 복지 부담이 가속화되고 있다. 복지 수요의 증가와 연동된 복지 부담의 증가라는 복합적 문제는 정부의 긴축적 복지 지출이나 복지 지출의 확대라는 일원적인 정책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한국에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정책의 확대로 대응하였다. 일자리 정책은 중·고령자에게 소득 획득 수단을 제공하여 정부의 복지 지출을 완화시키는 것과 동시에 직업 활동에 따른 건강 증진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와 복지 수요 자체를 완화시킨다는 점에서 고령화 문제에 대한 복합적인 해결책으로 기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데이터를 중심으로 중·고령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사회적 연결망 특성, 그리고 직업 활동의 특성이 직업 정책의 실질적인 정책효과로 볼 수 있는 직무 만족도와 생활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갖는가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자영업자와 임금 노동자라는 두 집단을 분리하여 각 집단의 직무 만족도와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구성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라는 두 집단에 소속된 중·고령자가 중시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규명하고, 분석 결과를 현행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비추어 보았을 때 2017년에 수립 및 시행될 제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이 어떠한 점에 집중해야 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보충적으로는 제1차와 제3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데이터에 대하여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여 시계열적인 변화가 있었는

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직무 만족도와 생활 만족도의 결정 요인에 있어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임금노동자 경우 직무 만족도는 노동 형태, 신체적 직무 요구, 내용적 직무 요구, 주관적 계층의식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 만족도는 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 주관적 계층의식과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경우 직무 만족도는 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 참여하는 모임의 분야 수, 주관적 계층의식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 만족도는 교육수준, 주관적 계층의식,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차와 제3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를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 종단적으로는 임금노동자보다 자영업자에게서 큰 변화가 관측되었다. 대표적으로 자영업자의 경우 과거에는 직무 만족도와 생활 만족도에 사회적 연결망 변수와 직업 특성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5차에서는 사회적 연결망 변수와 직업 특성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중·고령자의 일자리 정책이 고령화에 대한 복합적인 대응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령 시민 사회의 활성화, 사회적 연결망 확대, 노동 환경 개선 등을 병행해야 한다. 나아가 양극화 문제는 중·고령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서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라는 두 집단의 비교를 목적으로 하였기에 변수 설정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고,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자체의 조사대상의 특성 변화가 있었으며, 질적 분석 부분이 부족했다는 등 여러 한계를 안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를 비교 분석하고, 사회적 연결망 변수를 편입하고, 종단적인 비교 분석을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와 구분되는 의의를 갖는다.

주요어: 고령화,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사회적 연결망, 자영업, 직무 만족도, 생활 만족도
학 번: 2014-23562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8

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20
제 1 절 관련 이론의 검토 20
1. 직무 만족도에 관한 이론 20
2. 생활 만족도에 관한 이론 24
3. 사회적 연결망에 관한 이론 29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32
1. 중·고령자의 직업 특성과 직무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 32
2. 중·고령자의 직업 특성과 생활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 35
3. 자영업자의 직업 특성과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 37
4. 중·고령자의 사회적 연결망과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 39
제 3 절 본 연구와 선행 연구의 차이점 41

제 3 장 연구 설계 및 분석방법 46
제 1 절 연구 문제의 설정 46
제 2 절 변수의 설정 48
1. 종속변수 48
2. 독립변수 50
3. 통제변수 54

제 3 절 연구의 분석틀 및 가설의 설정 55
1. 연구의 분석틀 55
2. 가설의 설정 56

제 4 장 분석 결과 58
제 1 절 기술통계 분석 60
1. 제5차 KLoSA 분석 대상자의 기술통계 60
2. 제3차 KLoSA 분석 대상자의 기술통계 65
3. 제1차 KLoSA 분석 대상자의 기술통계 69
제 2 절 직업 특성과 직무 만족도의 회귀분석 결과 72
1. 제5차 KLoSA 임금노동자의 직업 특성과 직무 만족도 분석 결과 72
2. 제5차 KLoSA 자영업자의 직업 특성과 직무 만족도 분석 결과 78
3. 제3차 KLoSA 임금노동자의 직업 특성과 직무 만족도 분석 결과 83
4. 제3차 KLoSA 자영업자의 직업 특성과 직무 만족도 분석 결과 88
5. 제1차 KLoSA 임금동자의 노직업 특성과 직무 만족도 분석 결과 94
6. 제1차 KLoSA 자영업자의 직업 특성과 직무 만족도 분석 결과 99
제 3 절 직업 특성과 생활 만족도의 회귀분석 결과 104
1. 제5차 KLoSA 임금노동자의 직업 특성과 생활 만족도 분석 결과 104
2. 제5차 KLoSA 자영업자의 직업 특성과 생활 만족도 분석 결과 109
3. 제3차 KLoSA 임금노동자의 직업 특성과 생활 만족도 분

석 결과 114
4. 제3차 KLoSA 자영업자의 직업 특성과 생활 만족도 분석 결과 119
5. 제1차 KLoSA 임금노동자의 직업 특성과 생활 만족도 분석 결과 124
6. 제1차 KLoSA 자영업자의 직업 특성과 생활 만족도 분석 결과 128
제 4 절 분석 결과의 정리 131
제 5 절 정책적 함의 139
1. 직무 만족도 관련 정책적 함의 139
2. 생활 만족도 관련 정책적 함의 144

제5장 결론 148

참고문헌 152
Abstract 158

표 목 차

[표1] 제5차 KLoSA 분석 대상자의 기술통계 63
[표2] 제3차 KLoSA 분석 대상자의 기술통계 67
[표3] 제1차 KLoSA 분석 대상자의 기술통계 71
[표4] 제5차 KLoSA 임금노동자의 직무 만족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77
[표5] 제5차 KLoSA 자영업자의 직무 만족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82
[표6] 제3차 KLoSA 임금노동자의 직무 만족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87
[표7] 제3차 KLoSA 자영업자의 직무 만족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93
[표8] 제1차 KLoSA 임금노동자의 직무 만족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98
[표9] 제1차 KLoSA 자영업자의 직무 만족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103
[표10] 제5차 KLoSA 임금노동자의 생활 만족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108
[표11] 제5차 KLoSA 자영업자의 생활 만족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113
[표12] 제3차 KLoSA 임금노동자의 생활 만족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118
[표13] 제3차 KLoSA 자영업자의 생활 만족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123
[표14] 제1차 KLoSA 임금노동자의 생활 만족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127

[표15] 제1차 KLoSA 자영업자의 생활 만족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 분석 130

그 림 목 차

[그림1] 연구의 분석틀 56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고령화 지수에 따르면 한 국가의 65세 이상 인구가 국민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로,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로 분류된다. 한국은 과거의 산아제한 정책과 최근의 문화적 변화로 인한 출산율의 감소와 의료 및 보건의 발전으로 인한 기대여명 증가로 인하여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한국은 2007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초과한 이래 2015년에는 13.1%에 도달하여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1] 나아가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8%를 차지하여 한국은 초고령사회[2]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3] 국가의 인구 구성의 전반적인 고령화는 언론의 지적과 같이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앞서 1994년에 고령 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경우에는 고령화에 따른 국민 의료비의 지속적인 증가가 문제되고 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후생노동성이 공개한 2014년 국민 의료비 현황에서 일본의 국민 의료비가 2007년 이후 8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한다.[4] 이러한 국민 의료비의 지속적인 증가는 일본 정부에 심각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후생노동성은 보험료 인상을 비롯한 의료·복지 혜택

---

1) 통계청 발간 “2015 고령자 통계” 기준.(통계청, 2015)
2) 고령화 지수 기준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21% 이상인 경우를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3) 통계청 발간 “2015 고령자 통계” 기준.(통계청, 2015)
4) 최이락. (2016년 9월 28일). “‘고령화’日 국민의료비 8년 연속 증가…2014년 445조원대”.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28/0200000000AKR20160928174900073.HTML에서 검색.

의 축소를 시도하고 있다.[5] 고령화는 장기적으로는 복지 지출 부담 차원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거시 경제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자체 보고서를 통하여 고령화로 인하여 한국, 중국, 대만과 태국으로부터 유출될 자본이 2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였다.[6] 산업화 이후 빠른 고령사회로의 이행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을 위시한 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복지비용 부담의 증가와 자본 유출의 근본적인 원인은 고령화에 수반되는 생산가능인구(15세~64세) 비중의 감소로 볼 수 있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의 절대치 또한 2016년에 3704만 명으로 최고치에 도달하였으나 당장 2017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되며,[7]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시작하면서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감소 추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고령화 또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비중과 절대치 포괄)를 통하여 연금소득이나 복지 혜택에 의존하는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해외와 마찬가지로 복지 부담의 증가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기대여명 상승에 따른 저축 증가에 따라 축적된 자본이 해외 자산 매입에 투입됨에 따라 자본유출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경우에는 단순한 노인 복지 지출 절감을 통하여 복지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2012년에도 노인 빈곤율이 48.5%에 달하며, 이는 OECD 평균인 11.7%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서 노인 빈곤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황남희, 2016). 따라서 복지 규모의 감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노인 빈곤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황남희

---

5) 신경립. (2016년 9월 28일). “亞~고령화의 그늘…자본유출 · 복지부담 이중고”. 서울경제. http://www.sedaily.com/NewsView/1L1LDREB51/GF02에서 검색.

6) 신경립. (2016년 9월 28일). “亞~고령화의 그늘…자본유출 · 복지부담 이중고”. 서울경제. http://www.sedaily.com/NewsView/1L1LDREB51/GF02에서 검색.

7) 김정훈. (2014년 11월 24일).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 줄어…한국 ‘인구 오너스(onus · 부담)時代’로 전락”. 조선비즈.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1/24/2014112400231.html에서 검색.

(2016)가 처방한 기초연금 사각지대 축소 및 급여수준 상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그리고 자녀 동거 유인 확대 등의 해결책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나, 고령인구의 증가 양상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장기적으로는 복지 부담과 자본 유출 문제를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또 다른 한계가 존재한다.[8)]

일본은 한국보다 빠르게 1994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고령화의 부작용 또한 한국보다 빠르게 경험하였다. 홍두승 외(1995)에 따르면 일본은 고령화에 대응하여 소득지원 정책, 보건의료정책,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동원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고령화 정책 패키지 중에서 일자리 정책에 대하여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1974년에 제정된 중·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통하여 60세 이상 노인을 전체 6%이내 범위에서 고용할 것을 규정한 바 있으며, 1986년에 제정된 고령자고용안정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정년퇴직연령을 60세로 연장하고, 보다 최근에는 2010년의 고령자고용취업대책 체계를 통하여 정년연장, 고용안정, 그리고 일자리 외 사회적 참여 기회의 확대라는 포괄적인 정책 패키지를 제시하였다(남경희 외, 2013). 다른 소득지원 및 보건의료 지원 정책과 차별화되는 일자리 정책의 특성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에서 여러 번 지적된 바 있다. 남경희 외(2013)은 일자리는 소득 획득 수단임과 동시에 사회적 참여를 통하여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의료비의 절감을 가져온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박지혜(2003)은 직업 활동이 복지 부담을 줄이고, 노인의 사회적 배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포괄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요컨대 중·고령자에 대한 취업 정책은 노인 빈곤 및 복지수요의 해결과 복지 부담의 절감이라는 상충되는 목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나아가 노인

8)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르면 상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따른 복지 부담과 자본 유출 외에도 잠재성장률의 하락, 숙련 노동력 감소로 노동생산성 저하, 재정수지 악화, 병역 자원 부족, 교육 인프라 공급 과잉, 농촌 공동화 등의 문제가 예측된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6)

의 일자리 참여는 지속적인 소득 획득 수단을 제공함으로서 저축을 통한 자본유출이라는 악순환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고령화 문제에 일본보다는 늦게 대면하게 되었으나, 고령화 자체는 일본을 능가하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한국 정부는 고령화에 대응하여 1981년에 노인복지법을 제정하고, 1991년에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제정하는 등 고령사회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이전부터 정책적 대응을 시작하였다. 이미진(2011)은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 정책을 정책 시행 주체(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2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이를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첫째,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복지법 제23조에 근거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경희 외(2013)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일을 통한 소득 보충, 적극적인 사회참여, 건강증진 등으로 노인문제 예방과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p. 269)"라고 정리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해당 사업의 목적이 일본과 마찬가지로 고령화 문제의 포괄적 해결이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둘째, 고용노동부는 보건복지부보다 넓은 범위의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고용정책으로는 대표적으로 연령차별금지 정책, 고용보험법과 고령자고용촉진법률, 사용자경감법제 등을 손에 꼽을 수 있다. 이미진(2011)이 정리한 바와 같이 정부는 다양한 부처의 소관으로 55세 이상 내지는 65세 이상의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개별적인 정책적 대응을 넘어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 입각한 고령화 대책으로서 고령자고용촉진 기본계획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다. 고령자고용촉진 기본계획은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계획으로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고령자고용촉진 기본계획은 2007년~2011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1차 계획과

2012년~2016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2차 계획으로 수립되었으며, 후자는 2016년 현재 여전히 시행 중이다. 현행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은 “더 많은 고령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고용노동부, 2012)”을 기본적인 비전으로 상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6대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다.[9] 이철선(2012)은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이 기존 정책들과 달리 장기적인 차원의 계획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계획의 특징으로 세 가지를 지적하였다. 이는 첫째,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은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하여 청년층과 겹치지 않는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것에 주력하며, 둘째, 직업교육을 확대하고 이직 알선 서비스를 보완하여 일자리의 질을 간접적으로 향상시키고, 셋째, 퇴직연금 등의 고용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은 이철선(2012)의 지적과 같이 일자리의 질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고 구속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단점을 갖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수립되는 계획으로 고령 인구의 취업에 집중하는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과 달리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이는 2006년~2010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1차 계획과 2011년 ~2015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2차 계획으로 기존에 시행되어 왔다. 현재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년~2020년)이 적용되고 있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수립안과 제3차 계획 자체에서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정책적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났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6, p.37)에서 특히 중요하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고령화 현상에 대한 대응이 기존의 미시적·단기적 대응에서 보다 종합적·장기적 접근 방식으로 전환

9) 6대 정책과제는 “1. 세대간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강화, 2.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하기 지원 확대, 3. 퇴직 준비·능력개발 지원 강화, 4. 조기 재취업 및 일자리 지원 확대, 5. 사회공헌 일자리 등 사회기여와 재능나눔 지원 활성화, 6. 고령사회 대비 제도·인프라 정비(고용노동부, 2012)”이다.

되었으며, 기존의 복지 제공 위주의 대응을 넘어 사회구조적 대응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특히 고령화에 대응해서는 중·고령자의 고용 확대와 더불어 신성장 동력으로서 실버산업 등 고령화 연관 산업에 대한 지원을 천명하였다. 또한 기존의 정부 위주의 정책에서 민간-지역-정부 간의 협력을 강화할 것 또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중·고령자에 대한 고용 대책 부분을 살펴보자면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 선언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중·고령자의 고용 확대를 위한 추진 계획으로는 60세 정년제와 임금피크제 연동, 장년기 근로시간 단축제, 취업 지원 활성화, 창업지원체계 강화, 고령근로자 친화형 작업환경 개선 지원이 대표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취업 지원 활성화와 창업지원체계 강화는 기존 정책의 확대 시행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언급할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 60세 정년제는 과거 일본의 고령자고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한 정년 확대와 유사하나, 과거 일본과 달리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 단축제와 연동되어 시행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정리하자면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하기에는 제3차 계획은 임금 피크제와의 연동을 제외하고는 기존 계획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것에 불과하다. 특히 한국의 중·고령자의 경제활동의 특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제3차 계획의 한계는 명확하다.

한국의 중·고령자 경제활동에 대한 특성은 크게 네 가지를 지목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중·고령자는 타국에 비하여 경제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편이다. 배규식(2015)은 기존 직장(또는 평생직장)에서의 퇴직 연령은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한국의 중고령자(55~64)[10]의 고용률(2014년 기준 65.6%)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실질 은퇴연령[11]은 남성의 경우

10) 배규식(2015)의 정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규식의 용례에 따라 중·고령자가 아닌 중고령자로 표기.

11) 평생직장에서의 퇴직 이후 다른 일에 종사하다가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에서 이탈하는 연령.

71.1세이며 여성은 69.8세로 OECD 평균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조기 퇴직과 높은 실질은퇴연령·고용률이라는 상반되는 양상은 일견 역설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중·고령자가 평생직장의 연장선상에서 노동 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직장에서 퇴직 후 신규 취업이라는 재취업 과정을 거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중·고령자는 단속적인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중·고령자는 단속적인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취약한 경쟁력을 갖고 있기에 취업 과정에서 낮은 질의 일자리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 중·고령자의 취업 시장에서의 경쟁력의 취약성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부족하나 취업 경로를 살펴봄으로써 간접적으로 중·고령자의 취약한 경쟁력을 파악할 수 있다. 김용탁(2011)은 장애인과 같은 노동시장의 하위 부문에 위치한 집단의 경우 비공식적 사회적 연결망을 통한 취업 비중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제5차 한국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를 분석해보자면 신규 구직자 79명 중 67.9%에 해당하는 53명이 사회적 연결망(가족, 친지, 친구 등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을 통하여)을 통하여 취직하는 등 중·고령자의 취업은 장애인과 같은 타 하위 부문과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어 중·고령자가 경쟁력이 낮음을 나타낸다. 중·고령자의 노동시장에서의 낮은 경쟁력은 결과적으로 낮은 일자리의 질이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배규식(2015)은 중고령자가 질 낮은 일자리에 노출되어 있어 짧은 근속 기간과 높은 비정규직 비율이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이철선(2012)은 고령자의 경우 높은 임시적 비율과 유해환경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보완을 지적한 바 있다.[12] 셋째, 자영업자는 중·고

12)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고령근로자 친화형 작업환경 개선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수단으로 가이드라인과 우수 기업 포상만을 명시하여 실질적인 구속력이 없다. 특히 세부 정책으로서 클린사업(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보조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50인 미만 사업장 중 고령자 고용현황을 고려하여 선발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자격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령자의 경제활동에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13][14]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서는 자영업자에 대하여 창업지원 정책을 상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창업 스쿨 등을 통한 교육에 치중되어 있고 사회적 기업의 경우에만 창업비용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전술한 일자리의 질의 논의와 관련하여 자영업에 종사하는 중·고령자의 경우에 일자리의 질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중·고령자의 경우 기존의 고령층과 다른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소정(2011)은 은퇴 대열에 합류하는 베이비 붐 세대에 대한 경제활동 실태 및 가치관 조사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일자리에 대한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77.8%가 현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었으며, 63.9%는 노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제 활동에의 참여를 희망하고, 70.9%는 노후 삶에서의 일이 중요하다고 본다(이소정, 2011). 여기서 특기할 점은 베이비 붐 세대의 58.5%는 소득을 위하여 경제활동에 참가를 희망한다고 하여 전반적으로는 경제적 목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나, 건강(16.2%)과 자기발전(14.4%) 또한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노후의 경제 활동이 소득 외의 요인에 의해서도 강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15] 과거의 제1차와 제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의 미비한 성과와 한국의 중·고령자의 경제활동의 네 가지 특성에서 미루어봤을 때 임금피크제와 정년 연장의 연동, 근로시간 단

13) 총 7029명을 대상으로 하는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데이터에서는 경제활동(임금노동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에 참여하고 있는 2679명 중 45.8%에 해당하는 1227명이 임금노동자이며, 42.9%에 해당하는 1148명이 자영업자이다. 이러한 통계를 고려했을 때 중·고령자의 고용형태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무시할 정도로 작다고 보기 어렵다.

14) 박미현(2013)은 2007년에 전체 자영업자(농업 종사자 제외) 중 50대 이상이 38.2%라 하여 자영업자에서 중·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15) 이소정(2011)은 베이비붐 세대 이전의 중·고령자의 직업에 대한 가치관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세대에 비하여 베이비 붐 세대가 갖는 가치관의 변화를 부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축, 전직 서비스의 지원 등과 같은 기존 제도의 단순한 확대 시행의 성공 가능성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한국의 중·고령자가 이미 높은 고용률을 나타내지만 일자리의 질이 문제된다는 점은 단순한 정책의 양적 확대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높은 자영업자의 비율로 대표되는 일자리 형태의 다양성과 노후 일자리에 대한 다변화된 가치는 단순한 창업 지원이나 일자리 확대로서는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서 일자리 정책에 대하여 정년 연장이나 구직 지원 서비스 보완이라는 양적·점진적 대응을 내놓았으나, 현재 중·고령자가 처한 취업 환경이나 가치의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양적·점진적 대응을 넘어 질적 대응을 포함하는 정부의 정책적 대응의 당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우선 Rowe와 Kahn(1997)의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Rowe 외(1997)는 기존의 노인학 연구가 병리적/비병리적 구분에만 집중한 경향을 비판하며 성공적인 노화(Successful Aging) 개념을 제시하였다. 성공적인 노화는 낮은 확률은 질병과 질병 관련 장애, 높은 인지적·신체적 능력, 그리고 삶에 대한 활발한 참여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 종합적 개념이다(Rowe 외, 1997).[16] 특히 참여라는 세 번째 요소는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와 생산적 활동(Productive activities)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계의 존재는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생산적 활동은 국가의 노인 대상 의료 서비스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와 긴밀하게 연계된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Rowe 외, 1997).[17] 정리하자면

16) "We define successful aging as including three main components: low probability of disease and disease related disability, high cognitive and physical functional capacity, and active engagement with life.(Rowe 외, 1997, p. 433)"

17) Rowe 외(1997)는 국가가 노인에 대한 의료 서비스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노인의 생산성과 긴밀하게 연계된 문제라고 설명하나, 이에 대한 부연설명은 없다. 다만 앞에서 Rowe 외(1997, p. 438)는 일반적으로

성공적 노화라는 개념의 함의는 중·고령자의 직업 활동에의 참여가 건강 증진이라는 순기능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킴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개념으로부터 전술한 일본의 고령화 대응 정책으로서 일자리 정책에 대한 논의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정책은 소득을 제공하고, 사회적 참여가 가져오는 건강의 개선은 장기적으로 의료비를 절감하여 결과적으로는 노인 복지를 증진하면서도 복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포괄적인 대책으로서 의미를 갖는다(남경희 외, 2013; 박지혜, 2003). 그러나 중·고령자에 대한 일자리 정책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선행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임금노동자에 대한 연령차별 금지를 법적으로 규정하고[18],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취업과 더불어 노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시도하고 있다. 남경희 외(2013)는 이러한 일본의 일자리 정책의 성공요인에 대하여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로 노인고용환경이 정비되었다는 것과 정년연장과 계속고용제도를 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가 조성되었다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남경희 외, 2013, p.268)"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일자리 정책에 있어 일자리를 넘어선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정리하자면 중·고령자의 일자리 정책이 고령화에 대한 포괄적 대안으로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연결망(또는 사회적 자본)이나 일자리 관련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의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철선(2012)의 지적과 같이 유해한 노동환경의 개선이라는 질적 요소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중·고령자의 건강수준을 가져와 장기적으로는 의료

노인이 "늙었다old"라고 인식함에 있어서는 노인이 활발하게 생산적 활동에 참여하는지 여부가 크게 좌우한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서, 노인의 사회 참여를 통한 소득 획득 여부가 의료 서비스 등의 급부 대상인지 여부를 좌우하는 척도로 기능한다는 점을 암시한다.

18) 한국도 연령차별금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 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으로 구속력이 부족하기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이미진, 2011).

비 절감이라는 부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일자리와 관련된 모든 가치(사회적 관계, 고용의 질, 임금 수준, 고용의 안정성)에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라는 두 집단이 현실적으로 중시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규명하여 선택과 집중을 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연구는 중·고령자가 중시하는 직업 관련 가치가 무엇인가를 분석하여 고령화 문제에 대한 복합적인 대응으로서 일자리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상정한다. 특히 분석 결과를 현행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비추어 제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에 필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 것에 집중하고자 한다. 그러나 직업 특성이 직무 만족도와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행연구가 존재하며, 이를 단순히 반복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더 나아가고, 제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에 보다 적실성 있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전술한 중·고령자의 경제활동의 특성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업 정책이 고령화 문제에 대한 복합적인 대응으로 의미를 갖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 요건에 대한 논의 또한 고려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정리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진행 방향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기본적인 분석틀은 직업에 대한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는 직업 특성이 직무 만족도와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직업 특성 관련 변인뿐만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중·고령자의 정책 활동의 특성 등과 같은 요소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종합하자면 직업 관련 변인과 더불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본 연구의 기본적인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언급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인구 사회학적 변수를 통제 변수로서 도입하였다. 연구 대상인 중·고령자는 다양한 사회 경제적 배경을 갖고 있어 동질적인 집단으로 인식하기

어렵다. 실제로 후술할 Kalleberg(1977)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만족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난 바 있기에 다양한 인구 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할 필요가 존재한다. 그러나 인구 사회학적 변수를 단순한 통제 변수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한국 사회 전반의 양극화와 높은 노인 빈곤률의 문제를 고려했을 때, 사회 경제적 배경에 대한 고려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사회 경제적 배경은 객관적인 조건으로 일률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치부하기 어렵고 문화적인 요인에 의하여 중·고령자의 만족도 수준의 미치는 영향이 증폭되거나 체감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가족에 의한 고령자를 부양하는 문화가 지배적이었던 과거와 달리 핵가족화는 중·고령자의 사회 경제적 조건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하자면 과거에는 고령자의 소득이 없더라도 자녀의 소득에 의존할 수 있었다면, 현대에는 중·고령자의 독자적 소득 획득 여부가 매우 중요할 수 있다. 둘째, 앞서 한국의 중·고령자의 경제 활동에 대한 특성에 대하여 자영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에서의 자영업의 경우에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6).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높다는 점은 자영업이 영세적인 규모가 많고 높은 불안정성에 직면되어 있다는 사실과 연동되어 노후 생활 보장을 어렵게 하고 있다. 나아가 자영업의 경우에는 후술할 바와 같이 사회적 연결망에 의하여 다양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술하자면 자영업의 경우에는 고객 확보 등의 차원에서 지역 사회의 사회적 연결망에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임금 노동자와 반대로 공식적인 연결망보다는 비공식적인 연결망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는 특징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자영업은 이와 같이 불안정성, 영세성, 그리고 사회적 연결망 차원에서 임금 노동자와 많은 차이점을 갖는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자영업자의 삶의 질이나 만족도에 대한 선행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고, 정부의 대책 또한 창업

지원이나 교육 등에 머물러 있다. 중·고령자에게 자영업이 임금노동 못지않은 중요한 경제 활동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에 대한 비교 연구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전술한 바와 같이 직업 정책이 고령화에 대한 포괄적 정책 수단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교 연구를 통하여 자영업자가 직업에 대하여 갖는 가치 체계를 규명하여 임금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보다 다변화된 정책 패키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자의 경제 활동 특성과 관련하여 사회적 연결망을 주요 변수로 도입하고자 한다. 이소정(2011)의 지적과 같이 중·고령자에 편입된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에는 과거와 다른 가치 정향을 갖고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는 일자리 종사에 대하여 단순 소득획득을 넘어 자아실현이나 사회적 인정과 같은 부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사회적 인정이 사회적 연결망과 관련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시켜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연결망을 주요 변수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자영업자와 관련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임금노동자가 공식적인 연결망에 의존하며, 공식적인 조직 내부의 승급(승진)을 통한 사회적 인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에 자영업자는 사적인 연결망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의 비교 차원에서 사회적 연결망의 형태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각 집단에서 차이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진입과 자영업자의 특성과 무관하게 사회적 연결망은 직업 정책의 성공에 있어 핵심적인 가치로 볼 수 있다. 또한 Rowe 외(1997)의 성공적 노화 개념을 살펴보았을 때,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조건 중 하나인 참여는 생산적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사회적 연결망 개념을 사회적 참여의 척도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과연 직업 정책이 성공적 노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으로 기능하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직업 정책이 고령화에 대한 복합적인 대응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앞서 세 가지의 요소와 더불어 시계열적인 변화 또한 고려해야 한다. 시계열적인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중·고령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며 정태적인 집단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중·고령자 집단은 베이비붐 세대의 진입에 따른 구성원의 변화를 넘어 자체적으로도 문화적 변화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둘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은 5년을 주기로 수립 및 시행되는 계획으로 파편적으로 수립 시행되는 정책과 달리 중장기적인 시각에 입각하고 있다. 따라서 2017년에 수립 및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의 경우에는 2021년까지 지속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 계획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중·고령자가 변화해온 양상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는다면 제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은 기존의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무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기본적인 연구 대상으로 상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기에 1996년도에서 2014년까지의 거시적인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를 살펴보기보다는 패널 데이터 내 변화 양상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중·고령자의 가치 체계와 인구사회학적 변화가 거시적인 사회경제적 조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중·고령자의 변화로부터 사회 전반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시계열적인 변화를 포함시켰을 때, 사회 전반의 변화가 중·고령자의 객관적 및 주관적 조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직업 정책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 참여를 통하여 정신건강 개선(Rowe 외 1997; 남경희 외, 2013; 박지혜, 2003)을 가져오고,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켜(Rowe 외 1997) 고령화가 가져오는 복지 수요 증가 및 부담 증가라는 복합적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해결책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직업 정책이 상정한 목표의 포괄성은 정책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문제를 어렵게 만든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척도를 통하여 직업 정책의 성패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직업 정책이 추후 반영해야 하는 직업 특성이 미치는 영향의 대상으로서 직무 만족도와 생활 만족도에 주목하였다. 직무 만족도는 직업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만족 유무의 척도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직업 활동은 경제적 소득 획득 수단뿐만 아니라 Rowe 외(1997)이 제시한 참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남경희 외(2013)와 박지혜(2003) 등이 주장한 사회적 참여를 통한 정신 건강 개선이라는 효과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업 자체가 소득 획득에 수반되는 고통스러운 부담이 아니라 만족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직무 만족도는 사회적 참여가 실질적인 기능을 갖기 위하여 요구되는 매개 경로의 유효성에 대한 측정의 정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무 만족도를 하나의 종속 변수로 상정하여 어떠한 직업 특성이 직무 만족을 가져오는가를 분석하여 제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이 집중해야 하는 방향을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직무 만족도는 부수적으로도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직무 만족도는 현재 직업의 만족의 정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중·고령자가 직업 활동에 지속적으로 종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준거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직무 만족도가 낮을 경우 중·고령자는 이탈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완전한 은퇴 내지는 이직의 형태로 귀결되게 된다. 이직의 경우에는 전술한 중·고령자의 취업 시장에서 낮은 경쟁력을 고려했을 때 지속적인 노동의 질의 악화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한다. 직무 만족도가 매개 경로에 대한 유효성의 측정이라면 생활 만족도는 궁극적인 정책 목표로 볼 수 있다. 김정우(2016)의 논의에서와 같이 직업 참여 여부와 직업 특성은 부정적인 심리적 정향이자 생

활 만족도와 역의 상관관계에 놓여 있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뿐만 아니라 참여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사회적 연결망 전반 또한 우울과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논의된 바 있다(이민아, 2013). 이와 같이 직업 활동을 위시한 사회적 참여는 우울증을 경감시키면서도 생활 만족도를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리하자면 생활 만족도는 직업 정책이 복합적인 정책 패키지로 기능하기 위한 최종적인 단계이자 목표라는 이중적인 지위를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직무 만족도뿐만 아니라 생활 만족도 또한 제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여 분석에 포함시켰다. 다만 선행 연구에서는 직무 만족도와 생활 만족도를 분리하여 별도로 연구하거나, 직무 만족도를 독립 변수로 하여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경우가 많았다(김미혜 외, 2013; 박현숙 외, 2013). 직무 만족도와 생활 만족도는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은 사실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이유에 따라 직무 만족도와 생활 만족도가 개별적으로 갖는 의의를 분리하여 판단하고자 한다. 첫째, 직무 만족도는 보다 단기적이고 직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개념인 반면에 생활 만족도는 장기적 개념이고 직업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로 양자는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나 구분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적 연결망과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김미혜 외(2013)의 연구에서는 직업 특성이 직무 만족도를 경유하여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제시하였으나, 사회적 연결망과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포함되지 않았다. 사회적 연결망과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생활 만족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양자를 분리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를 분리하였는데 집단 간에 직업특성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 상술하자면 임금노동자의 직업 특성직무 만족도에 높은 정향을 나타내어 직무 만족도를 매개

로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자영업자는 특히 생계형 창업을 한 경우에는 직업을 단순 소득 획득 수단으로 치부할 가능성이 높기에 이러한 매개 작용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직무 만족도와 생활 만족도를 통합하기보다는 분리하는 것이 향후 정책에 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데이터[19]를 중심으로 중·고령자의 직업 활동의 다양한 특성이 실질적인 정책효과로 볼 수 있는 직무 만족도와 생활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갖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자영업자와 임금 노동자라는 두 집단을 분리하여, 각 집단에 있어 직무 만족도와 생활 만족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직업 특성 요인의 구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라는 두 집단에 소속된 중·고령자가 중시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규명하고,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추후 일자리 정책이 어떠한 점에 집중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할 것이다. 보충적으로는 베이비 붐 세대의 진입에 따라 가치 변화가 예상되기에 시간에 흐름에 따라 직무 만족도와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구성에 있어서 변화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1차와 제3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자료를 보충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2017년을 기점을 새로 수립 및 시행되는 제3차 고령화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19)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데이터를 중심으로 활용하되, 제1차와 제3차를 보충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제5차는 2014년에 수집되었으며, 제3차는 2010년에 수집되었고, 제1차는 2006년에 수집된 자료이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한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에서 제공하는 기본조사 패널 데이터를 분석 대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2014년에 수집된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데이터를 주된 분석 대상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종단적인 분석을 위하여 2006년에 수집된 제1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데이터와 2010년에 수집된 제3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데이터를 보충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데이터 중에서 제1차, 제3차,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본 연구 목적을 위해서는 4년 주기라는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를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이유로는 3가지가 있다. 첫째,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한 "5차 년도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 유의사항" 문건에 따르면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원표본 유지율은 2008년 제2차 조사에서 86.6%, 2010년 제3차 조사에서 80.3%, 2012년 제4차 조사에서 76.2%, 그리고 2014년 제5차 조사에서 72.8%로 비교적 높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고령자가 노환이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장기간에 걸쳐 이러한 높은 유지율을 유지했다는 점은 뚜렷한 장점으로 판단된다. 둘째,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데이터는 직업 특성에 대하여 소득, 노동시간, 직무 요구도 등에 대하여 광범위한 데이터를 제공해준다. 특히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자영업에 대해서도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유형의 광범위한 데이터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해당 데이터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고용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가족관계, 건강, 고용, 소득 및 소비, 자산 등의 자료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므로 외부적인 변인을 통제하기 용이하다.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하는 중·고령자는 패널 데이터와 여러 논문 및 발표 자료에서 다양한 용어와 의미로 활용되고 있다.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경우 데이터 수집 대상인 고령자의 연령은 2014년을 기준으로 53세에서 103세까지의 넓은 범위에 속해 있다. 선행 연구에서의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면 강소랑 외(2010)은 45세 이상을 중고령자로 정의하였고, 김동배 외(2009)는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정의하였으며, 박현숙 외(2013)는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배규식(2015)는 55세~64세를 중고령자로, 윤지은 외(2009)는 45세 이상을 중고령자로, 최성수 외(2008)는 45세 이상을 중고령자, 박미혜(2013)은 50세에서 74세를 중고령으로. 한종국(2016)은 50세~64세를 중고령자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으로 하는 중·고령자를 세 가지 이유에서 55세에서 75세 이하의 범위로 정의하고자 한다. 첫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고령자를 55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다.[20] 둘째, 배규식(2015)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 은퇴 연령은 남성의 경우 71.1세, 여성이 경우 69.8세로 70세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65세를 상한선으로 정의하기 어렵다. 셋째, 75세 이상의 경우 노동 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러한 세 가지 사유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 연령대를 55~75세로 제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 통계분석과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후술할 연구문제를 검토하고 가설을 검정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제1차, 제3차,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데이터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여 직무 특성 중 어떠한 변인이 중·고령자의 직무만족도와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검토하며, 각 차수 별로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것이다. 분석에 사용한 프로그램은 IBM SPSS Statistics 23.0이다.

---

20) 이철선(2012)에 따르면 제2차 고령자고용촉진 기본계획은 고령자(55세 이상)을 50세 이상의 장년으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한다.

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관련 이론의 검토

1. 직무 만족도에 관한 이론

(1) 직무 만족도의 정의 및 중요성

직무 만족도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나 자신이 담당하는 직무에 대한 자각적인 만족감의 정도와 관련된 복합적인 개념이다. 직무는 다양하게 정의되나 특정인이 담당하는 과업과 특정인의 직위가 결합된 복합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만족도라는 개념은 비교적 객관적인 직무 분석 등과 달리 주관적 인식에 대한 문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직무 만족도는 특정인이 담당하는 직무와 관련된 주관적 인식의 문제로 볼 수 있다. Locke(1969)에 따르면 직무 만족도라는 개념은 1930년대 Roethlisberger와 Hoppock 등의 학자들에 의하여 처음 제시된 이래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직무 만족도라는 개념은 직무의 다양성과 주관적 인식의 문제로서의 만족도가 결합된 복합적인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일의적인 정의를 내리는 것은 어렵다. 직무 만족도의 정의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Kalleberg(1977)가 지적한 바와 같이 학자들이 인간의 존엄성 보장, 생산성 증대, 건강 개선 등 다양한 목적을 갖고 직무 만족도 개념에 접근하기 때문이다.

Brayfield 외(1951)는 직무 만족도의 측정 기준을 고안하면서 직무 만족도를 자신의 업무에 대한 의견(attitude)로 정의하였다. Locke(1969)는 1930년대 이래 직무 만족도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직무 만족도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측정 방식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직무 만족도의 재정의를 시도하였다. Locke(1969)는 직무만족도를 “the pleasurable emotional state resulting from the appraisal of one’s job as achieving or facilitating the achievement of one’s job value(p. 316)”로 정의한다. 정리하자면 Locke는 직무 종사자가 갖는 내재적 가치 체계가 직무로부터 얼마나 충족되었는가에 대한 판단을 직무 만족도로 보는 것이다. Kalleberg(1977)는 직무 만족도에 대하여 Locke의 정의를 수용한 바 있다. 보다 최근에 Tett 외(1993)는 직무 만족도를 직무의 전체 또는 특정 측면에 대한 특정인의 감정적 애착으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직무의 일부에 대한 애착 또한 직무 만족도로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Locke(1969)의 견해와 차별화된다. 국내에서는 정윤경(2013)이 직무 만족도를 “일자리에 대해서 근로자가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p. 120)”으로 규정하여 Locke와 동일한 정의를 제시한 바 있다. 방하남 외(2009) 또한 Locke의 직무 만족도에 대한 정의를 기본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이다. 박현숙 외(2013) 또한 Locke(1969)의 직무 만족도에 대한 정의를 수용하면서 분석적 차원에서는 직무 만족도를 고령자의 임금 만족, 고용 안정성에 대한 만족, 근무 환경 만족, 업무 내용 만족, 업무 스트레스, 전반적 직무 만족이라는 5가지 변수의 종합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서경조 외(2013)은 유관 개념으로서 업무 만족도(work satisfaction)을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자신의 업무에 대해 갖고 있는 긍정적인 태도(p. 251)”[21]로 정의한 바 있다. 이상의 정의를 참고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는 직무만족도를 노동자가 자신의 직무 전반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에 대한 주관적 인식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

21) 서경조 외(2013)의 업무 만족도에 대한 정의의 전체는 “업무 만족도(work satisfaction)는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자신의 업무에 대해 갖고 있는 긍정적인 태도로서, 업무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얼마나 이루어냈고 또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느낌과 인식, 그리고 기대되는 행동 등의 산물(p. 251)”이다.

Kalleberg(1977)는 전술한 바와 같이 직무 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직무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직무 자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잠재성을 실현할 것으로 보는 입장, 직무 만족도의 정도는 건강을 위시한 직무 밖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하는 입장, 직무 만족도의 증진은 생산성과 조직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주목하는 입장 등의 다양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이루어져 왔다. 중·고령자의 경우에는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자리 정책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건강 문제, 소득 획득, 국가 복지 부담 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때 직무 만족도는 궁극적으로 생활 만족도로 측정되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매개이자, 그 자체로서도 일자리의 질에 대한 주관적 인식으로서 중요한 측정 변인으로 볼 수 있다.

(2) 직무 만족도의 결정 요인에 관한 이론

1) Maslow 욕구계층이론

Maslow(1943)는 인간의 동기에 대한 이론으로서 욕구 계층 이론을 제안하였다. 욕구 계층 이론은 인간이 행동을 하는 근본적인 동인으로서 욕구(Needs)를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동기를 부여하는 욕구는 단일한 욕구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포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섯 가지 기본적인 욕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나아가 다섯 가지 욕구는 일련의 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상위 욕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하위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어야 한다고 한다. 첫 번째는 생리적 욕구로서 허기, 성욕이나 갈증 등을 포괄한다. 이러한 욕구가 충족된 이후에는 두 번째로 위험을 회피하는 안전 욕구가 부상한다. 세 번째로는 애정을 받고 친구, 연인 등에 소속되고자 하는 애정 욕구가 발생하며, 네 번째로는 자존감이나 타인으로부터의 존중을 포괄하는 존중 욕구가 발생한다. 이러한 네 가지 욕구가 충족되었을 경우에 마지막으로는 자아실현 욕구가 부상한다. 자아실

현 욕구는 자신의 잠재성을 완전히 실현하여 현재 자신 이상의 존재가 되기 위한 욕구를 의미한다. Maslow의 욕구계층 이론에 따르면 완전한 동기 부여를 위해서는 단순한 공식적·객관적 조건의 충족만으로는 부족하다.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공식적·객관적 조건이 충족된 이후에는 보다 상위의 욕구(애정 욕구, 존경 욕구,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비공식적·주관적 조건의 충족이 필요하다. 나아가 Maslow가 제시한 발언의 자유, 행동의 자유 등은 다섯 가지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을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중요하게 기능한다(Maslow, 1943, p. 383). 따라서 직무 만족과 관련해서도 공식적 조건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조건 및 발언과 행동의 자유도 고려해야 한다.

2) Herzberg의 2 요인 이론

Herzberg(1959)의 2 요인 이론에 따르면 직무 만족도를 가져오는 요인(동기 요인)과 직무 불만족을 가져오는 요인(위생 요인)은 분리되어 있다. 직무 만족을 가져오는 요인(동기 요인)으로는 성과, 인정, 직무 특성, 책임, 그리고 진급 등이 있으며, 이는 직무의 내재적 특성과 관련되어 있다. 직무 만족을 가져오는 요인 중에서는 자아실현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이와 달리 직무 불만족을 가져오는 요인(위생 요인)으로는 작업 조건, 상급자와의 관계, 보수, 불인정, 성과의 부족 등이 있다. 직무 불만족을 가져오는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조직의 정책이나 기술적으로 무능력한 감독 능력 등이 지목되고 있다. 2 요인 이론에 따르면 직무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직무 불만족을 가져오는 요인을 제거하기 보다는 직무 만족을 가져오는 요인의 개선이 필요하다(House 외, 1967). 다시 말하자면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직무 만족을 가져오는 동기 요인을 집중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3) Vroom의 기대이론

Vroom(1964)은 인간의 동기 부여가 특정 욕구에 대응한 요건 충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대성, 수단성, 그리고 유인가라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기대성(expectancy)은 특정 행동이나 노력이 결과나 성과로 나타날 주관적 확률로 정의된다. 기대성은 보다 단순하게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한 상관관계로 단순화되기도 한다. 수단성(Instrumentality)은 기대성에서 예측한 결과나 성과가 개인이 실제로 희망하는 보상을 가져올 확률을 의미한다. 유인가(Valence)는 최종 보상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의미한다. 유인가 개념에서 긍정적인 반응은 중요성, 매력, 예상된 만족감 등으로 해석되기도 한다(Van Eerde 외, 1996). 따라서 기대 이론은 인간의 동기가 기대성, 수단성, 그리고 유인가라는 세 가지 변수의 결합으로 정의된다고 볼 수 있다. 세 가지 변수는 모두 주관적인 인식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루어봤을 때, 인간의 동기는 자신이 행동이 가져올 보상과 이러한 보상이 가져오는 만족감에 대한 주관적인 예측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기대 이론은 동기가 단순히 특정 욕구에 대응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주관적 예측과 인식에 기초한 과정으로 부여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기대 이론은 특히 직무 만족도의 정도와 관련하여 단순한 객관적 보상뿐만 아니라 주관적 예측이나 인식 또한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2. 생활 만족도[22]에 관한 이론

(1) 생활 만족도의 정의 및 중요성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의 정도는 복리나 후생이라는 추상적인

22) 영문으로는 Life Satisfaction으로 표현되나 국내에서는 삶의 만족도, 삶 만족도, 생활 만족도 등으로 번역되어 활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 만족도로 번역했다.

개념의 측정을 위하여 다방면에서 논의 되었다. 다만 이러한 생활 전반의 만족도는 생활 만족도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 삶의 질 등의 형태로 용례나 의미상 다양하게 개념화되어 측정된 바 있다(김미혜 외, 2013). 개념상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생활 만족도나 삶의 만족도는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중·고령층에 대하여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허성호 외, 2011). 이는 중·고령자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단순히 최소한의 복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성공적 노화(Rowe 외, 1997)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실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도 과거의 노인복지대책 위주의 대응을 넘어 실버 경제나 생산인구 확충 등으로 노인의 적극적 사회적 참여를 모색하는 대응으로 전환하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6).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중·고령자의 생활 만족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생활 만족도라는 개념은 Neugarten 외(1961)에 의하여 최초로 도입되었다. Neugarten 외(1961)는 개인이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에 만족스러워 하고, 자신의 삶이 의미 있다고 인식하며 과거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개인이 자신의 주요 목표를 달성했다고 느끼며,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행복하고 긍정적인 태도와 기분을 유지하는 것을 생활 만족도의 5가지 주요 척도로 정의하고, 이러한 척도에 기초하여 측정한 것을 생활 만족도라고 규정하였다. Lemon 외(1972)는 생활 만족도를 특정인이 현재 자신의 일반적인 생활수준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Shin 외(1978)는 생활 만족도를 정해진 기준에 따른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종합적 평가라고 정의하였다(Diener 외, 1985, p. 71). Diener 외(1985)는 기존의 생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의 개발이 연구자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기준으로만 측정되었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Diener 외(1985)는 생활 만족도를 개인의 생활 전반에 대한 인지적·판단적 과정으로 정의하였으며, 생활 만족도의 측정 기준은 과거의 협소한 질문이 아닌 생활 전반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생활 만족도는 삶의 질, 삶의 만족도 등의 용어와 병행하여 사용되고 있다(김미혜 외, 2013). 허성호 외(2011)는 삶의 만족을 "한 개인이 경험하는 상황을 해석하는 주관적 느낌이나 생각을 기준으로 자기가 기대 했던 것과 실제 성취한 것을 비교하여 자신의 전반적인 상태를 평가하여 인지하는 만족감(p. 408)"으로 정의하였다. 박부연 외(2013b)는 삶의 질에 대하여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의를 빌려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와 가치 체계의 배경 안에서 그들의 목표, 기대, 표준, 관심과 연관되어 느껴지는 자신의 삶에서의 위치에 대한 인식(p. 942)"으로 정의한 바 있다. 정세희 외(2014)는 생활만족도를 "개인이 자신의 전반적인 삶에 대해서 인생 목표와 욕구 달성에 대한 노인 스스로의 주관적인 경험(p. 62)"으로 정의하였다. 백옥미(2014)는 선행연구의 정의에 대한 공통분모를 탐색한 결과로서 생활 만족도를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p. 245)"라고 정의하였다. 이상의 정의를 참조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 생활 만족도는 자신의 생활 전반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감의 정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생활 만족도는 생활 또는 삶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지향해야 하는 장기적 목표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2) 생활 만족도의 결정 요인에 관한 이론

1) 활동 이론(Activity Theory)

생활 만족도의 결정 요인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활동 이론이 있다. 활동 이론은 Harvighurst와 Albrecht(1953)가 사회적 활동이 노년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 분석 결과를 제시한 이래 Neugarten 외(1961) 등의 학자들이 이론적으로 정립하고자 시도하였다(Lemon 외, 1972). 활동 이론의 기본적인 전제는 고령자가 중년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으며, 고령자가 중년과 마찬

가지로 사회에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하기를 희망한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활동 이론은 기본적으로 중·고령자의 생산적인 활동(Productive Roles)이 생활 만족도, 자존감, 그리고 고령 생활에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이론이다. 활동이론에서 생활 만족도의 주요 결정 요인으로 제시하는 생산적 활동은 경제적 활동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자원 활동, 여가 활동 등도 포괄하는 개념이다(Hooyman 외, 2008). 활동 이론에 따르면 생활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사회적 활동을 촉진시킬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나아가 사회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은 고령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층으로 진입하는 연령을 포괄하는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활동 이론에서 주장하는 생산적 활동의 긍정적인 기능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활동 내용 자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는 직무 만족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측정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 분리 이론(Disengagement Theory)

분리 이론은 Cumming과 Henry(1961) 등이 활동 이론에 대한 비판으로 제시한 이론이다. 분리 이론은 활동 이론이 사회 체제에서 괴리된 원자화된 이론이라는 점을 비판하며, 활동 이론이 고령자의 사회 활동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 것과 달리 성공적인 고령화가 반드시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본다. 분리 이론에 따르면 고령자가 사회적 활동에서 이탈하는 분리 과정은 고령자가 젊은 세대에 권력을 이관하기 위한 노력이 사회적으로 제도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분리 과정은 젊은 세대에 권력을 이양한다는 점에서 젊은 세대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분리 자체가 고령자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니며, 분리 과정은 오히려 고령자에게도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령자는 사회로서 분리되는 과정을 통하여 더 낮은 활동 수준을 요구받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사적인 문제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Hooyman 외, 2008). 분리 이론에

따르면 고령층은 중년층과 구분되어 있으며,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고령층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도 사회적 활동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분리 이론과 부합하는 정책으로는 퇴직 연금제도나 보다 점진적인 수단으로서 임금피크제를 들 수 있다. 그러나 Hooyman 외(2008)는 최근에는 여러 문화에서 고령층의 활발한 사회적 참여를 장려하고, 이러한 참여가 실제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리 이론은 노인학에서 점차 거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역할 감소 등은 근무 시간의 규칙성 등[23]으로 간접적으로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3) 지속성 이론(Continuity Theory)

지속성 이론은 Neugarten, Havighurst, 그리고 Tobin(1968)이 활동 이론과 분리 이론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이론이다. 지속성 이론은 인간이 지속적으로 일정한 행태 유형(pattern of behavior)을 유지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인간은 환경의 변화에 직면하여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게 되더라도 기존의 역할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며,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일정한 행태 유형을 활용하게 된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에는 노화에 따라 새로운 행태 유형을 개발하기 보다는 기존의 행태 유형에 대한 의존도가 더 강화된다고 본다. 지속성 이론에 따르면 생활 만족도는 현재의 활동이나 생활 방식이 기존의 경험과 행태 유형과 얼마나 정합성을 갖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Hooyman 외, 2008). 다시 말하자면 과거로부터 지속되는 성향이 현재 상황에 얼마나 유효한지 여부에 따라 생활 만족도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지속성 이론에 입각하여 보자면 고령화 대응 정책은 활동 이론과 마찬가지로 포괄적으로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활동 이론과 달리 단순히 활동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문제가 있

23) 본 연구에서는 유관 개념으로서 '노동 형태' 변수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다. 따라서 지속성 이론에 따르면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보다 정책 대상자 개개인의 사회·문화·경제적 배경에 따라 세분화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세분화를 위해서는 정책 대상자의 직업 특성과 더불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사회적 연결망에 관한 이론

Rowe 외(1997)는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는 삶에 대한 활발한 참여를 중요한 조건으로 보고 있다. 삶에 대한 활발한 참여는 생산적 활동과 더불어 사회적 관계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개념이다. 특히 사회적 연결망(Social Network)은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건강과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Rowe, 1997). 이와 같이 사회적 연결망은 중·고령자의 복리 후생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연결망은 일자리 정책이 중·고령자의 건강을 증진하면서 소득을 제공하고, 국가의 복지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복합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위하여 요구되는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사회적 연결망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 연구에서도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의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박부연, 2013b).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도 “은퇴 후 사회활동 지속시, 사회관계 회복, 우울 등 심리가 긍정적으로 변화, 의료비 절감, 가구소득 증가에 효과적(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6, p. 128에서 재인용)”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일자리 정책과 더불어 고령자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문화 프로그램 확대 운영, 노인문화 컨텐츠 지원, 고령자 문화·여가 인프라 개선, 고령자 자원봉사지원 체계 강화 등의 정책을 예비하고 있다. 사회적 연결망의 개념이 중요하게 부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념 자체는 사회적 관계망이

나 유관 개념인 사회적지지, 사회적 자본과 같이 다양하게 개념화되어 활용되었다(최성수 외, 2008).

사회적 연결망은 Barnes(1954)가 처음 도입한 개념으로서 근대적 사회관계를 표현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념이다(김용탁, 2011). 이후 Mitchell(1980)은 사회적 관계망을 일련의 상호 연결된 관계의 구조와 크기로 정의했다(Tracy 외, 1990). Garbarino(1983)는 사회적 연결망을 " '개인에게 정보, 감정적 확신, 물질적·경제적 부조 그리고 관심을 제공하는 대상으로서 자아감을 제공하는 대인관계의 교환의 범위뿐만 아니라 도움의 구조와 규칙적 양태' (조성원, 2014, p. 25에서 재인용)"로 정의하였다. Garbarino(1983)의 사회적 연결망에 대한 정의는 유관 개념인 사회적 지지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낸다. 사회적 지지라는 개념은 정서적 격려, 조언, 정보, 조언, 유형의 보조나 뚜렷한 형태의 도움과 같이 사람들이 상호 간에 돕는 것을 의미한다(Tracy 외, 1990). 이러한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연결망의 개념상 혼선은 어느 정도 기능적·과정적 유사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Tracy 외(1990)는 사회적 연결망을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으로 구분하는 보다 최근의 견해를 소개함으로써 이러한 혼선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회적 연결망의 구조적 측면은 사회적 관계의 존재나 가치에 대한 논의이며, 기능적 측면은 다양한 수혜적 교환 관계 유형에 대한 논의이다(Tracy 외, 1990). 그러나 여전히 사회적 지지 개념은 단순히 사회적 연결망의 기능적 측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보다 사회적 관계망과 등치될 수 있는 광의적 개념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박현숙 외, 2013; 장수지, 2010).

국내에서도 사회적 연결망과 유관 개념은 광범위한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강정한 외(2013)은 사회적 연결망을 "행위자가 맺고 있는 '비경제적' 관계의 총체(p.31)"라고 정의한다. 이에 따르면 사회적 연결망은 경제적 교환 관계인 거래 관계와 구분되면서도 법적·제도적 규범에 따른 공식적 관계와 구분되는 제3의 관계를 의

미하는 것이다. 김용탁(2011)은 사회연결망을 사회의 중심부와 구성원간의 연결망과, 구성원간의 연결망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파악하였으며, 나아가 사회적 연결망은 구성원의 행위에 의하여 재생산되는 것이자 구성원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현숙 외(2013)는 사회적 지지라는 개념을 분석 도구의 수준에서 친한 사람과의 만남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이는 사회적 지지를 사회적 연결망과 동일시하는 기존 견해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성원(2014)는 사회적 연결망을 "직접적인 사회적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는 타인 및 집단들을[24] 총체(p. 26)"로 정의하였으며, 사회적 지지를 사회적 연결망의 기능적인 측면으로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사회적 연결망의 기능적 측면보다는 구조적 측면에 집중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 연결망은 호혜적인 상호작용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Tracey 외, 1990; 이민아, 2013). 따라서 구조적 측면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기능적 측면은 상호 부조나 자문 등의 유무형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기능적 측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설문조사를 통한 질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데이터를 통해서는 분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공식적인 사회적 연결망이 공식적인 장에서 도출되는 직무 만족도, 그리고 공식·비공식적 장 전체를 포괄하여 도출되는 전반적 만족도로서의 생활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만이 발생한다고 가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역기능이 발생할 가능성도 감안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연결망을 시장과 공식적 관계와 구분되는 타인이나 집단과의 비공식적 상호작용의 망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4) 문법상 '집단들의 총체'가 맞을 것으로 보이나 원문에서는 "집단들을 총체"라고 되어 있어 직접 인용 차원에서 원문대로 표기함.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 중·고령자의 직업 특성과 직무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

Kalleberg(1983)은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직업의 특성이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연령대 구간이 상승할수록 직업 만족도가 상승하는 양(+)의 상관관계가 관측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연령대 상승에 따른 직무 만족도의 증가는 인과관계일수도 있으나 조직에서의 지위 상승 등 외부 요인에 기인한 단순한 상관관계에 불과할 수 있다. Kalleberg(1983)의 연구 이후에도 중·고령자의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수의 선행 연구가 존재했다. 중·고령자의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중·고령자에 대한 일자리 정책이 정신 건강 증대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전반에 대한 만족도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직무 만족도는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서도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선행연구는 직무 만족도를 종속 변수로 하여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경우도 있었으나(정윤경, 2013), 직무 만족도를 매개변수나 독립 변수로 상정하여 생활 만족도(또는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경우도 있었다(김미혜 외, 2013; 박현숙 외, 2013).

서경조 외(2013)은 60세 이상의 남성을 대상으로 업무 만족도(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더불어 개인-환경 적합성을 분석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연령, 학력, 결혼 유무, 근속년수 등과 같이 인구학적 배경과 직업관련 변수를 포함하였다. 개인-환경 적합성은 개인-직무 적합성, 개인-조직 적합성, 개인-동료 적합성이라는 세 가지 변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조사대사 집단의 주관적 인식과 관련된 변수이다. 종속 변수인 업무 만족도에 대해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연령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개인-환경 적합성의 경우에는 개인-직무 적합성, 개인-조직 적합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바 있다.

김동배 외(2009)는 만성질환 고령근로자 221명과 건강한 고령근로자 316명에 대하여 직무 만족도의 영향 요인의 구성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분석하였다. 만성질환 고령근로자의 경우에는 독립 변수 중에서 일용직 여부가 종속 변수인 직무 만족도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와 달리 건강한 고령근로자의 경우에는 임시직 여부, 일용직 여부가 직무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건강한 고령근로자의 경우에는 복리후생 제공 여부, 월평균 임금, 주관적 건강상태, 삶의 만족도, 그리고 비공식적 연결망이 직무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정윤경(2013)은 제1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대상으로 고령근로자의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 특성을 분석하였다. 남녀를 포괄한 전체 집단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 주당 업무 시간, 고용 형태(임시직/일용직 여부), 신체적 업무 요구도가 직무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에 반해 임금, 인지적 업무 요구도, 교육 수준 적합도, 기술 수준 적합도은 직무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남녀를 분리한 경우 직무 만족도에 대하여 남성은 임금, 인지적 업무 요구도, 교육 수준 적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주당 업무 시간, 고용 형태, 신체적 업무 요구도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여성은 임금, 기술 수준 적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업무 시간, 고용 형태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남녀 두 집단 간에는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직업 특성의 구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한종국(2016)은 50세~64세의 중고령 임금근로자 563명을 대

상으로 하는 설문 조사를 통하여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 특성을 분석하였다. 고령친화적 인적자원관리 기법[25]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무 적합도와 자기개발 노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수준 변수는 150~300만원, 300~500만원, 500만원 이상을 각각 더미 변수로 적용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300~500만원과 500만원 이상 변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져 임금수준이 높을 경우에만 임금이 직무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나타냈다. 성별의 경우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져 여성의 경우 직무 만족도가 평균적으로 낮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김미혜 외(2013)은 제2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를 대상으로 55세 이상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1972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특성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직무 만족도를 매개변수로 적용하였다.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자면 근로소득, 근무일수, 내용적 업무 요구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와 달리 신체적 직무 요구도는 직무 만족도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직무 만족도는 매개변수로서 삶의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갖는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직무 만족도가 일자리 특성과 삶 만족도 사이의 매개효과를 지닌다는 점을 나타낸다. 박현숙 외(2013)는 제3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 내의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직무 만족도를 독립 변수로 적용하여 종속 변수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직무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5) 한종국(2016)은 고령친화적 인적자원관리의 조절효과를 부가적으로 분석하는데, 고령친화적 인적자원관리로서는 전직지원, 교육훈련, 직무 재배치, 탄력근무, 정년연장, 멘토 역할이라는 6가지 항목이 활용되었다.

2. 중·고령자의 직업 특성과 생활 만족도에 관한 선행 연구

직무 만족도가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정책의 직접적인 목표로 작용한다면,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기본계획의 궁극적인 목표로는 생활 만족도를 들 수 있다. 직무만족도가 중·고령자 중 자영업자나 임금 노동자와 같이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도출되는 반면에 생활 만족도는 직업 종사와 무관하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생활 만족도는 직무 만족도와 무관한 개념은 아니다. 선행 연구에서는 직무 만족도가 독립 변수 또는 매개 변수로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박현숙 외, 2013; 김미혜 외 2013). 나아가 생활 만족도는 직업 특성뿐만 아니라 직업 유무 자체에 영향을 받는다는 선행 연구도 있었다(박부연 외, 2013a).

강소랑 외(2010)은 제1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의 45세 이상의 중·고령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활동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중·고령자의 직업 특성 중 임금 및 보조금, 복리후생은 삶의 질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에 반해 승진 및 은퇴는 삶의 질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직장의 일의 수준 변수는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으나 직무 만족도를 매개 변수로 하여 간접적으로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강현옥 외(2009)는 직업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 250명을 대상으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직업 활동과 관련된 요인으로 투입된 동료 지지도와 직업활동참여동기 변수 중에서는 직업활동참여동기 변수만이 생활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 활동을 통한 소득 획득의 필요 여부가 생활 만족도의 중요한 결정 요건이라는 점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실제로 인구학적 요인 중에서도 경제 형편 변수는 생활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혜 외(2013)은 제2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55세 이상의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특성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근로소득 변수는 삶의 만족도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근무일수, 신체적 요구, 내용적 요구 변수는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갖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근로소득, 근무일수, 신체적 요구, 내용적 요구 변수는 직무 만족도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다. 이러한 결과는 일자리 특성이 직무 만족도를 매개 변수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박부연 외(2013b)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65세 이상인 1472명을 대상으로 직업 특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삶의 질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변수로는 인구학적 변수 중 교육수준, 주거 형태, 가구원 수가 있었으며, 건강 변수로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있었으며, 직업 관련 변수 중 직업 유무만이 있었다.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변수로서는 연령, 스트레스, 만성 질환의 수가 있었다. 직업 특성 변수로서는 직업 형태(정규직/비정규직), 근무 시간(전일제/시간제), 직업 분류(전문직/서비스직)가 회귀분석에 투입되었으나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양희택 외(2011)은 장애인고용패널을 활용하여 임금근로 장애노인의 직업 특성이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직업 특성과 관련해서는 월평균 임금, 월평균 근무 일수, 정규직 여부, 사회보장 여부, 노동조합 유무, 직책, 직업배려, 안전상황인식, 업무적합도, 직무 만족도가 독립 변수로 적용되었다. 임금근로 장애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변수로는 장애등급, 학력, 월평균 근무일수와 직무 만족도가 있었다.

생활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변수로는 성별과 직업 배려 변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세희 외(2014)는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 특성을 분석하였다. 전체 생활 만족도[26]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변수로는 월 소득이 있었다. 전체 생활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변수로는 성별, 노인 부부 여부, 참여 일자리 유형 중 공익형 여부 및 교육형 여부, 일자리사업의 재참여 여부가 있었다. 직업 특성으로서 시간제 여부와 종일제 여부 변수는 전체 생활 만족도 변수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종일제 여부 변수는 미래 생활 만족도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자영업자의 직업 특성과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

자영업자는 일반적으로 고용되어 일하는 임금 노동자나 무급가족종사자와 구분되는 경제 참여 형태로 분류된다. 주현(2014)은 자영업자를 "개인기업(Individual Company, Sole Proprietorship), 즉 개인에 의해 소유되고 경영되는 가장 단순한 기업 유형(p. 9)"으로 정의한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정순희(2015)는 자영업자를 통계청의 분류에 따라 '종업원을 고용하는 고용주',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혼자서 일'하는 경우, 그리고 '무급 가족종사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로 분류한 바 있다. 한국에서는 2012년 기준으로 자영업자 가구는 전체 가구의 2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2012년 기준으로 자영업자 비중은 30세 미만이 4.9%, 30대

26) 정세희 외(2014)에서 주요 종속 변수로 활용된 전체 생활 만족도 변수는 과거 생활 만족도, 현재 생활 만족도, 그리고 미래 생활만족도의 평균으로 도출된 변수이다.

가 14.8%, 40대가 26.4%, 50대가 32.0%, 60세 이상이 42.2%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영업자 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중·고령자 중 자영업자의 특성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오유진(2009)의 연구에서는 1998년(1차)과 2004년(7차) 한국노동패널(KLIPS) 데이터를 대상으로 회귀 분석을 실시하여 자영업자의 직무 만족도와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자영업자의 전반적 직무 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성별과 근무일수가 1998년과 2004년 모두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 직장에 대한 지속희망도와 같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포함된 변수들이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전반적 생활 만족도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1998년과 2004년 모두 학력과 월 소득 유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직무 만족도와 생활 만족도를 포괄하는 전반적 삶의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연령, 학력, 현재 건강상태, 직장에 대한 만족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순희(2015)는 50대 이상 예비노인 자영업자 250명을 대상으로 노후 준비 등의 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예비노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 노후준비 충분성, 신체적 건강상태, 우울감, 자영업유형이 삶의 만족도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이는 주관적 조건이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나타낸다. 특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타 변수들이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 우울감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났다.

박미현(2013)은 국민노후보장패널 3차 년도 자료를 통하여 중고령 자영업자(50세~74세)를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

을 분석하였다. 중고령 자영업자의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변수로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신체적 건강상태, 심리적 건강상태, 직업 만족도가 지목되었다.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변수로는 배우자 유무 변수가 있었다.

김우영 외(2001)은 1995년 한국가구패널자료와 1998년 한국노동패널자료를 통하여 자영업주와 임금근로자의 직업 만족도[27]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IMF 이전인 1995년에는 자영업주와 임금근로자는 직업 만족도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IMF 이후인 1998년에는 임금 근로자가 자영업주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의 직업 만족도를 나타냈다. 김우영 외(2011)은 이러한 차이가 외환위기 이후에 자영업자의 직업 만족도가 크게 하락한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응규 외(2001)은 1995년 한국가구패널자료를 대상으로 김우영 외(2001)과 동일한 척도를 활용하여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직업 만족도 차이에 대한 통계적 차이 여부를 연구하였으나, 임금근로자를 고용주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였다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존재한다. 분석 결과 소득, 직업 안정성, 업무 내용, 근무환경, 장래성이라는 5가지 만족도 항목 중 직업 안정성을 제외하고는 고용주, 정규직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 순으로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4. 중·고령자의 사회적 연결망과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

사회적 연결망과 유관 개념으로서의 사회적 지지나 참여는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이나 우울과 관련하여 독립 변수로서 다양한 의

27) 김우영 외(2011)에서 직업 만족도는 소득만족도, 직업 안정성 만족도, 업무 내용 만족도, 근무환경 만족도, 장래성 만족도라는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로 활용되었다. 이보람 외(2016)는 사회적 참여와 경제적 참여를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김동철 외(2016)은 활동적 고령화의 구성 요소로서 참여 변수를 도입하였다. 박현숙 외(2013)은 유관 개념으로서 사회적 지지를, 그리고 박순미(2011)은 사회 참여를 매개변수로서 도입하였다.

김동철 외(2016)은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 기초하여 참여, 안전, 건강으로 구성된 활동적 고령화가 주관적 안녕[28]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관적 안녕을 구성하는 요소 중 삶의 질 만족도의 경우 근로 활동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구적 일상생활능력, 소일거리 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그리고 연령 변수는 삶의 질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는 건강과 안전 요인이 삶의 질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는 그렇지 않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보람 외(2016)는 제4차 고령화연구패널를 분석하여 사회적 참여와 경제적 참여가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연구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경제적 필요[29]를 통제하기 이전에는 경제적 참여와 사회적 참여 모두 생활 만족도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에 반하여 경제적 필요를 통제한 경우에는 생활 만족도에 대하여 경제적 참여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사회적 참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박현숙 외(2013)는 직무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면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포함시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사회적 지지는 '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로 정의되

28) 주관적 안녕은 앞으로의 근로 활동, 앞으로의 생활수준, 삶의 질이라는 세 가지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29) 이보람 외(2016)은 경제적 필요 변수에 대하여 상대적 빈곤 개념을 도입하여 평균소득 50%이하를 경제적 필요가 큰 집단으로, 50%이상을 필요가 작은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어 투입되었다. 직무 만족도를 독립 변수로하고 사회적 지지를 매개 변수로 투입한 결과 사회적 지지는 매개변수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순미(2011) 제2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의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면서 매개 변수로서 사회 참여를 포함시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기능적 건강 상태의 경우 사회참여의 매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에는 사회적 참여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 효과가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현옥 외(2010)은 직업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 250명을 대상으로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사회적 연결망과 관련된 가족원의 지지도와 동료 지지도 변수가 독립 변수로 투입되었다. 분석 결과 가족원의 지지도는 생활 만족도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동료 지지도는 생활 만족도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3 절 본 연구와 선행 연구의 차이점

선행 연구에서는 이미 직업 유무 및 특성과 직무 만족도·생활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다차원적인 분석을 진행한 바 있다. 특히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데이터를 직접적인 연구 대상으로 삼은 선행 연구 또한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서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에 따라 시계열적인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첫째, 중·고령자는 정태적인 집단이 아니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치 정향이 바뀌어왔을 가능성이 있다. 문화적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둘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은 5년을 주기로 수립 및 시행되는 중장기적 계획으로 시계열적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고령자의 가치 체계의 변화로부터 사회 전반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를 근거로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시계열적인 요소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데이터를 통하여 직무 만족도와 생활 만족도를 연구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는 단년도 자료에 의존하는 횡단적 연구를 주로 진행하였다(강소랑 외 2010; 김동배 외, 2009; 김미혜 외, 2013; 박현숙 외, 2013; 이보람 외, 2016; 장수지 외, 2010; 정윤경, 2013). 다년도 자료를 활용한 종단적 연구를 진행한 연구(김동철 외, 2016; 백옥미, 2014) 또한 있으나 종단적 분석 방법을 채택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활용한 선행연구에서는 최근까지도 2006년에 수집된 제1차 데이터(강소랑 외, 2010; 김동배 외, 2009; 정윤경, 2013)와 2008년에 조사된 제2차 데이터(김미혜 외, 2013)만을 활용한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가장 최근인 2014년에 수집된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현재 미비한 실정이다. 선행 연구가 횡단적 연구 위주로 존재하는 것은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데이터가 2006년의 제1차 조사를 시작으로 비교적 최근에야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조사 분석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공개된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데이터의 마지막 수정일자가 2016년 3월 17일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해당 데이터는 2016년 초에나 공개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14년의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자료의 원표본 유지율이 높게 유지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새로이 제시된 제5차 고령화 연구패널 자료를 분석하고 종단적인 측면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3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5차 한국고령화

30) 한국고령화연구패널의 경우 2006년 1차 조사를 기점으로 원표본 유지율은 2차에서 86.6%, 3차에서 80.3%, 4차에서 76.2%, 5차에서 72.8%로 비교적

연구패널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하되, 4년 주기로 수집된 제1차와 제3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데이터에 대해서도 동일한 분석을 시도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할 것이다. 특히 이소정(2011)의 연구와 같이 베이비붐 세대가 2010년대에 은퇴 반열에 진입하면서 단속적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중·고령자 집단에 새로 진입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종단적 분석의 필요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중·고령자의 경우 청장년층보다 자영업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데이터에서도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2679명 중 42.9%에 해당하는 1148명이 자영업자로서 자영업의 비중을 무시하기 어렵다. 자영업의 경우에는 임금 노동자와 구분되는 특징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영업은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높고, 영세적인 규모를 나타내며, 높은 불안정성에 직면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나아가 임금노동자가 공식적인 사회적 연결망에 의존하는데 비하여 자영업은 비공식적(사적) 사회적 관계망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하자면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비공식적 사회적 연결망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거나 고정된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으며, 공식적 사회적 연결망이 승진 등을 통한 내부적인 사회적 지위 상승을 가져오는 것과 달리 비공식적 연결망은 이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점에서 임금노동자와 구분되는 특징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영업자는 임금노동자와 구분되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라는 두 집단을 비교 연구할 필요가 존재한다. 다만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자영업자과 임금 노동자를 비교하는 연구는 현재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자영업자와 임금 노동자 간에 만족도를 비교하는 선행 연구에서는 두 집단에서 만족도라는 변수가 통계적 차이가 있는지 여부만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김우영 외, 2001; 김응규 외, 2001). 따라서 자

높게 유지되고 있다.

영업자와 임금 노동자간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의 구성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는가에 대하여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데이터가 여타 패널 조사 데이터와 달리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직업 특성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자 또한 연구 대상으로 상정하여 임금 노동자와 비교했을 때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사회적 연결망을 주요 변수로 편입하고자 한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라는 두 집단은 사회적 연결망에 영향을 받거나 사회적 연결망을 활용하는 양상에 있어 차이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과거의 노인 복지가 단순한 소득 보장이나 의료 보조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최근에는 Rowe 외(1997)의 성공적 노화 개념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성공적 노화 개념에서 중시하는 사회적 참여는 사회적 관계망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이러한 이론적인 논의를 넘어 현대 한국의 중·고령자에게 사회적 연결망이 직무 만족도와 생활 만족도에 갖는 의미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존재한다고 본 연구에서는 판단하였다. 중·고령자의 사회적 연결망에 대한 선행 연구는 사회적 연결망을 독립 변수로 설정하여 우울증이나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 있다(이민아, 2013; 전병주 외, 2005). 중·고령자와 마찬가지로 취약 계층으로 볼 수 있는 장애인의 노동 시장 참여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 연결망을 취업 경로라는 종속 변수에 포함시켜 사회경제적 배경이 취업 경로 설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 경우(김용탁, 2011)도 있으며, 사회적 연결망이 취업과 임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 바도 있다(강정한 외, 2013). 보다 직접적으로는 박현숙 외(2013)는 제3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데이터를 통한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에서 사회적 연결망과 유사한 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를 매개 변수로서 활용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연결망은 생활 만족도와

관련하여 자주 논의되는 주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직업 특성과 직무 만족도 및 생활 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 연구 중 다수는 이러한 사회적 연결망 변수를 제외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연결망 변수를 주요 변인으로서 분석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세 가지 점에서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다룬 직업 특성과 직무 만족도 및 생활 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하되, 선행 연구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제 3 장 연구 설계 및 분석방법

제 1 절 연구 문제의 설정

본 연구의 기본적인 목적은 중·고령자의 직업 특성이 직무 만족도와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다. 해당 목적으로 이미 선행 연구가 수차례 행해진 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넘어 자영업자, 사회적 연결망, 그리고 시계열적인 변화라는 요소를 포함시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되, 연구 대상 집단을 전술한 바와 같이 55세에서 75세의 중·고령자를 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로 구분하였다.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는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정의를 참조하고자 한다. 독립 변수로서의 직업 특성은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노동형태, 월평균 임금, 주당 평균 근무시간, 신체적 직무요구와 내용적 직무 요구로 상정했다. 그리고 이러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인 직무 만족도와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종속 변수로서의 직무 만족도는 김동배 외(2009), 김미혜 외(2013), 박현숙 외(2013), 정윤경(2013)이 활용한 척도를 참고하여 정의하였다. 생활 만족도는 김미혜 외(2013), 박현숙 외(2013), 이보람 외(2016)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정의하였다. 통제 변수로서는 기존 연구에서 활용한 인구사회학적 변수(연령, 성별, 학력, 종교유무, 주관적 계층의식, 주관적 건강상태)와 더불어 사회적 연결망 관련 변수(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 참여하는 모임의 분야 수, 가구원의 수)를 포함시켰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중 · 고령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직무 만족도 · 생활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중 · 고령자의 사회적 연결망 변수는 직무 만족도 · 생활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중 · 고령자의 직업 특성은 직무 만족도 · 생활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중 · 고령자의 직무 만족도 ·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구성은 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경우에 차이를 나타내는가?

다섯째, 중 · 고령자의 직무 만족도 ·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구성은 2006년, 2010년, 2014년의 경우에 차이를 나타내는가?

제 2 절 변수의 설정

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종속 변수로서 2가지 변수를 활용하였다. 종속 변수로서는 중·고령자의 직무 만족도 변수와 생활 만족도 변수가 있다. 각 변수에 대한 구체적 정의 및 척도의 신뢰도 분석은 아래에서 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척도의 신뢰도 분석은 2014년에 수집된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데이터를 대상으로 도출한 것이다. 2006년도 제1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데이터와 2014년도 제3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척도의 신뢰도 분석 결과는 괄호를 통하여 보충적으로 기재하였다.

(1) 직무만족도

직무 만족도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활용한 선행 연구에서 비교적 일관적인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되었다. 정윤경(2013)과 박현숙 외(2013)는 임금 만족도, 고용 안정성, 근무 환경 만족도, 업무내용 만족도, 전반적인 만족도 변수를 활용하여 직무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김미혜 외(2013)와 김동배 외(2009)는 직무 만족도를 임금 만족도, 고용 만족도, 고용 안정성, 근무 환경 만족도, 업무내용 만족도, 스트레스 정도, 전반적 만족도 변수를 활용하여 직무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직무 만족도를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측정한 5가지 항목의 평균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여기서 5가지 항목은 임금 만족도, 고용 안정성, 근무환경 만족도, 업무내용 만족도, 그리고 전반적인 만족도 변수이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다섯 가지 변수는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와 마찬가지로 다섯 가지 변수를 역코딩한 후

평균을 산출하여 직무 만족도 변수로 활용하였다. 다만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는 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에 대하여 별도의 변수로서 동일한 설문을 진행하였으므로, 여기서도 종속 변수는 두 집단에 대하여 별도로 도출하였다.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임금노동자의 경우 Cronbach’s alpha 계수로 측정한 척도의 신뢰도는 0.873(제3차는 0.880, 제1차는 0.887)이며, 자영업자의 경우 Cronbach’s alpha 계수로 측정한 척도의 신뢰도는 0.708(제3차는 0.798, 제1차는 0.845)이다.

(2)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활용한 선행연구에서 비교적 일관적인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되었다. 김미혜 외(2013)의 경우 건강상태 만족도, 경제 상태 만족도,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상대적 행복감이라는 5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박현숙 외(2013)의 경우에는 건강상태 만족도, 경제상태 만족도,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라는 5가지 항목으로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이보람 외(2016)는 생활만족도를 건강상태 만족도, 경제상태 만족도,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라는 4가지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생활 만족도를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측정한 건강상태 만족도, 경제상태 만족도,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라는 5가지 항목의 평균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다섯 가지 항목은 모두 0~100 범주의 척도(10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다섯 가지 항목은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의 구분 없이 측정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 문제에 맞추어 각 집단에 대하여 별도로 분석을 통하여 생활만족도를 도출하고자 한다.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임금노동자의 경우

Cronbach’s alpha 계수로 측정한 척도의 신뢰도는 0.853(제3차는 0.861, 제1차는 0.819)이며, 자영업자의 경우 Cronbach’s alpha 계수로 측정한 척도의 신뢰도는 0.841(제3차는 0.846, 제1차는 0.782)이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활용한 연구에서 다양한 형태로 정의되었으며, 대표적으로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정의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정윤경(2013) 경우 직무만족도를 측정하면서 독립변수로 업무상의 신체적 요구도와 인지적 요구도, 교육수준 적합도와 기술수준 적합도, 그리고 기타 임금·고용상태·업무시간·복리후생 등을 포함시켰다. 김동배 외(2009)의 경우에는 직무 만족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면서 독립 변수를 근로환경 내 변수와 근로환경 외 변수로 구분하였으며, 본 연구와 관련된 근로환경 내 변수로서는 근무 형태, 복리후생, 주 평균 노동시간, 월평균 임금을 포함시켰다. 김미혜 외(2013)의 경우에는 직무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를 분석하면서 독립변수로 월평균 근로소득, 주 평균 근로일수, 신체적 직무요구, 내용적 직무 요구를 포함시켰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활용하지 않은 연구에서 양희택 외(2011)는 경제적 특성(월평균 임금, 월평균 근무일수, 정규직 여부, 사회보험 및 소득보장 여부), 사회적 특성(노동조합 유무, 직책, 직업적 배려 여부), 그리고 심리적 특성(안전상황에 대한 인식, 일의 적합도, 직무만족도)라는 세 가지 변수를 독립 변수로 정의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달리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를 구분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독립 변수를 설정할 때 기존 연구를 참고하면서도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모두에 해당되는 변수만을 포함시키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정의한 독립 변수는 아래와 같다.

(1) 임금, 근무시간, 노동 형태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자의 노동의 일반적인 특성으로서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한 임금, 근무시간과 노동 형태라는 3가지 변수를 독립 변수로서 정의하고자 한다. 임금노동자의 경우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조사한 현 일자리의 월평균 임금 항목의 자연로그 값을 임금으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정의하였다. 자영업자의 경우 현 일자리의 월평균 순소득의 로그 값을 임금(수입)으로, 주당 평균 노동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정의하였다.

노동형태 변수의 경우 선행연구에서는 고용 형태라는 변수로서 상용직과 임시직·일용직을 구분하여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정윤경, 2013, p.124; 김동배 외, 2009, p.272). 그러나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하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데이터에서 해당 항목이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로 자영업을 상용직/임시직·일용직으로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러나 정윤경(2013)과 김동배 외(2009)의 연구에서는 고용 형태 변수가 공통적으로 직무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적용되고 있기에 이를 연구에서 제외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이유를 근거로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공통으로 존재하는 "근로시간의 규칙성 여부" 변수를 고용 형태의 대체 변수로 활용하고자 한다. 첫째, 임시직·일용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무 시간이 상용직보다 불규칙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를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살펴보자면 임금 노동자의 경우 고용형태를 더미 변수화(상용직=1, 임시직·일용직=0)한 변수와 "근로시간의 규칙성 여부"를 더미 변수화(예=1, 아니오=0)한 변수의 교차 분석을 진행한 결과 Pearson 카이제곱 값은 19.798이며 유의확률(p-value)은 0.00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양 변수는 높은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에 노동 시간의 규칙성 여부를 제한적으로나마 대체 변수로 활용하고자 한다. 둘째, 전술한 분리 이론

(Disengagement Theory)에 따르면 고령자는 사회적 활동에서 이탈을 희망한다. 이론적으로는 고령자는 근무 시간이 규칙적인 것보다는 신축적인 것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으나 현재 임금피크제 관련 논의 등에서 살펴보았을 때 한국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규직/비정규직 여부 못지 않게 근로 시간의 규칙성 여부에 대한 분석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셋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상용직/임시직·일용직의 구분이 불가하나 근무시간의 규칙성 여부는 자영업자의 사업의 안정성에 대한 간접적인 척도로 작용할 수 있다.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소득원의 안정성이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변수를 노동형태 변수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제1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규칙성 여부" 항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1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분석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수를 제외하였다.

(2) 신체적 직무 요구, 내용적 직무 요구

신체적 직무 요구와 내용적 직무 요구는 직업 자체의 난이도나 요구도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으로 선행 연구에서 직업 특성으로 다방면으로 활용된 바 있다(정윤경, 2013; 김미혜 외, 2013). 신체적 직무 요구와 내용적 직무 요구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활용한 선행 연구에서 일관적인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되었다. 정윤경(2013)의 경우 신체적 직무 요구로서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4개 문항(육체적 힘의 필요 여부, 무거운 짐을 들어야하는지 여부, 몸 굽히기가 필요한지 여부, 좋은 시력 필요 여부)을, 내용적 직무 요구로서는 마찬가지로 4개 문항(높은 주의 집중력 필요 여부, 다른 사람 다루는 기술 필요 여부, 컴퓨터 활용 필요 여부, 어려운 업무 요구도)을 기초로 평균값을 도출하였다. 김미혜 외(2013)의 경우에는 신체적 직무 요구로서는 3개 문항(육체적 힘, 무거운 짐 들기, 상체 굽히기)을 활용하였으며, 내용적 직무 요구로는 4문항(리더십, 컴퓨

터, 어려운 업무, 집중력과 주의)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신체적 직무 요구와 내용적 직무 요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신체적 직무 요구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육체적 힘, 무거운 짐 들기, 상체 굽히기·무릎 꿇기·쭈그리고 앉기 세 항목을 역 코딩하여 활용하였다. 다만 김미혜 외(2013)의 연구와 같이 개별 변수로서 투입하지 않고 정윤경(2013)의 연구와 같이 합산하여 평균값을 도출하였다. 내용적 직무 요구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리더십, 컴퓨터 활용능력, 어려운 업무 요구도, 높은 집중력과 주의 변수를 역 코딩하여 활용하였다. 여기서는 신체적 직무 요구와 마찬가지로 평균값을 도출하여 투입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신체적 직무 요구 관련 변수와 내용적 직무 관련 요구는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에 대하여 별개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집단에 대하여 별도로 각 변수들을 정리한 후에 모형에 투입하였다.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임금노동자의 경우 신체적 직무 요구를 구성하는 세 항목의 Cronbach’s alpha 계수로 측정한 척도의 신뢰도는 0.882(제3차는 0.875, 제1차는 0.907)이며, 내용적 직무 요구를 구성하는 네 항목의 경우 척도의 신뢰도는 0.627(제3차는 0.548, 제1차는 0.667)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신체적 직무 요구를 구성하는 세 항목의 Cronbach’s alpha 계수로 측정한 척도의 신뢰도는 0.861(제3차는 0.905, 제1차는 0.893)이며, 내용적 직무 요구를 구성하는 네 항목의 경우 척도의 신뢰도는 0.512(제3차는 0.589, 제1차는 0.518)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경우 내용적 직무 요구는 크론바하 알파값이 0.600 미만으로 신뢰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두 집단의 비교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대해서도 동일한 척도를 적용하고자 한다.

3.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사회적 연결망 변수를 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수로는 구간별 연령(55세~59세=1, 60세~64세=2, 65세~69세=3, 70세~75세=4), 성별(남=1, 여=0), 교육수준(초등학교 졸업이하=1, 중학교 졸업=2, 고등학교 졸업=3, 대학교 졸업이상=4), 종교 유무(종교있음=1, 종교없음=0)가 있다. 타 연구에서는 혼인상태를 통제 변수로 일반적으로 활용한 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 분석한 연구 대상은 제5차 고령자연구패널조사의 경우 임금 노동자 전원(232명)이 혼인 상태에 있고 자영업자는 1명을 제외한 337명(총 338명)이 혼인 상태에 있으므로 여기서는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직무만족도에 관한 정윤경(2013)의 연구에서 이미 통제 변수로 포함된 바 있고, 주관적 계층의식은 삶의 만족도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박현숙 외(2013)의 연구에서 통제 변수로 포함되었다. 본 연구는 직무 만족도와 생활 만족도 양자를 포괄하는 연구이므로 주관적 건강상태와 주관적 계층의식을 모두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다만 제1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경우 주관적 계층의식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1차를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에서는 해당 항목을 제외하였다.

사회적 연결망과 관련된 변수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선행연구에서 다양하게 정의되어 사용된 바 있으며,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박현숙 외(2013)의 경우 “친한 사람들과 만나는 횟수” 항목을 사회적 지지라는 변수로 활용하였으며, 해당 변수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보람 외(2016)는 사회적 참여 여부를 주요 변수로 활용하면서, 각 분야별로 참여하는 모임이 하나라도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회적 참여 여부를 판단하였다. 장수지(2008) 사회적 관계망을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으로 구분되는 포괄적인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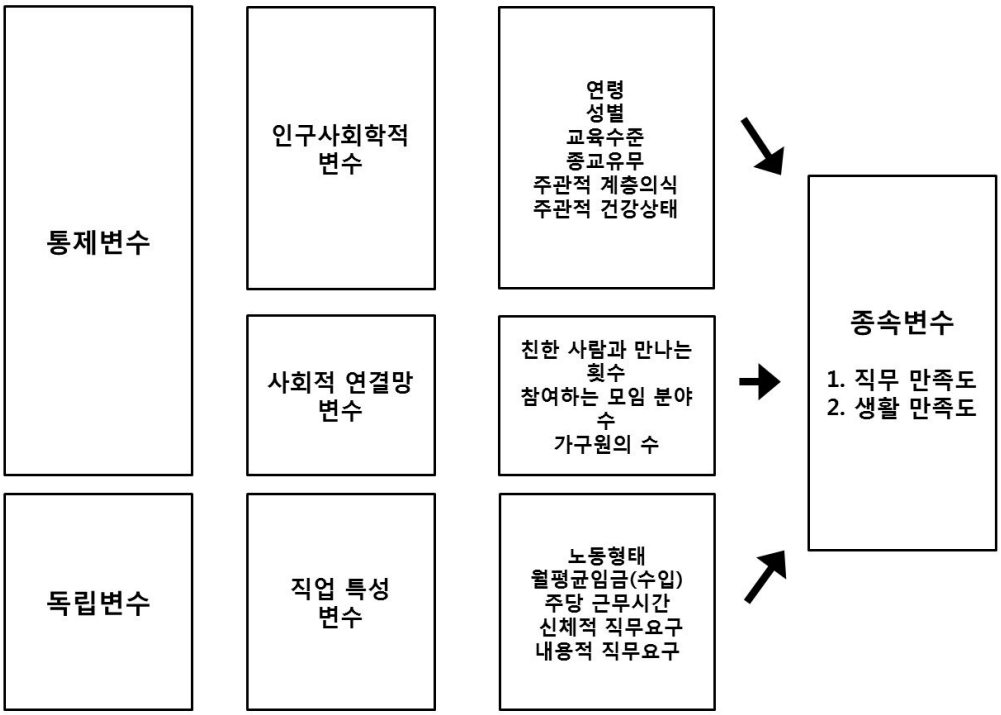
으로 정의하여, 사회적 관계망이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갖는 변수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최성수 외(2008)는 사회적 연결망과 건강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적 연결망을 사람과의 접촉 횟수, 모임 활동 횟수, 그리고 가족 동거 여부를 포함시킨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연결망이 미치는 영향의 결과이자 종속 변수로 직무 만족도와 생활 만족도를 분석하기 때문에 두 종속 변수가 사회적 연결망의 기능적 측면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보다 구조적 측면에 집중하도록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연결망을 최성수 외(2008)의 정의를 참고하여 친한 사람들과 만나는 횟수 항목을 역코딩한 값, 참여하고 있는 모임(단체)을 7가지 분야별로 묻는 항목에서 예(예=1, 아니오=0)라고 응답한 부문의 값을 합산한 값을 참여하고 있는 모임의 분야 수 변수로 코딩한 값, 가구원의 수라는 변수로 구성된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제 3 절 연구의 분석틀 및 가설의 설정

1.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직업 특성이 직무 만족도와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인 분석틀로 한다. 직업 특성을 독립 변수로 하고, 통제 변수로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사회적 연결망 변수를 투입하여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인 직무 만족도와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틀을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1] 연구의 분석틀



2. 가설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는 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에 대하여 다음의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며, 이차적으로는 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라는 두 집단의 경우에 가설 검증 결과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자면 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라는 두 집단에 대하여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의 구성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제1차와 제3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데이터에 대하여 동일한 분석을 진행하여 종단적으로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에 대하여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그러나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의 비교와 종단적 비교는 통계적 검정은 어렵기에 본 연구

에서는 단순 비교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검정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를 반영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중·고령자의 직업 특성은 직무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중·고령자의 노동 형태가 규칙적일 경우 직무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중·고령자의 월평균 임금이 높을수록 직무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중·고령자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낮을수록 직무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중·고령자의 신체적 직무 요구가 낮을수록 직무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5. 중·고령자의 내용적 직무 요구가 낮을수록 직무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중·고령자의 직업 특성은 생활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중·고령자의 노동 형태가 규칙적일 경우 생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중·고령자의 월평균 임금이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중·고령자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낮을수록 생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 중·고령자의 신체적 직무 요구가 낮을수록 생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5. 중·고령자의 내용적 직무 요구가 낮을수록 생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 4 장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의 분석은 상술한 연구의 분석틀의 입각하여 3단계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로는 제5차, 제3차, 제1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결측값을 제외한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집단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연구대상 집단의 기본적인 인구사회학적인 구성을 살펴보았다.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제5차, 제3차, 제1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기본적인 틀로 상정하여 도표로 정리하였다. 두 번째로는 제5차, 제3차, 그리고 제1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라는 두 집단에 대하여 각각 직업 특성이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즉, 직무 만족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총 6가지 경우의 수에 대하여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세 번째로는 제5차, 제3차, 그리고 제1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라는 두 집단에 대하여 각각 직업 특성이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생활 만족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직무 만족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총 6가지 경우의 수에 대하여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단순히 제5차, 제3차, 그리고 제1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데이터의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라는 집단에 대한 회귀분석을 넘어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라는 두 집단 내부의 시계열적인 변화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각 년도에 대하여 시행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에 대하여 개별적인 검토로서는 시계열적인 변화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명확하게 제시하기 어렵다. 또한 분석 결과를 현행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직접적으로 비추어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4

장 제4절에서 분석 결과를 시계열적인 변화가 보다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라는 두 집단에 대하여 변수 중심으로 재정리하였다. 나아가 개별 분석 결과에서 도출한 정책적 함의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비교한 것을 기초로 하여 제4장 제5절에서는 시계열적인 변화를 반영하여 제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에 적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적 함의를 정리 및 제시하였다.

제 1 절 기술통계 분석

1. 제5차 KLoSA 분석 대상자의 기술통계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에서는 무급가족종사자와 결측치를 제외한 임금노동자 232명과 자영업자 338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대상인 임금노동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임금노동자의 경우 구간별 연령대는 55세~59세가 121명으로 52.2%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임금 노동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102명으로 44.0%이며, 남성이 56.0%로 남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 97명으로 41.8%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57명으로 24.6%를 차지하여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종교 유무의 경우에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 139명으로 59.9%, 종교가 있는 사람이 93명으로 40.1%를 차지하여 종교가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계층의식의 경우에는 중의 하가 77명으로 33.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하의 상과 중의 상이 모두 57명인 24.6%를 차지하여 전반적인 계층의식은 중하위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에는 좋은 편이 114명으로 49.1%를 차지하고, 보통이 그 다음이 92명인 39.7%를 차지하여 주관적 건강상태가 높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인 경우에는 일주일에 두 세번이 63명으로 27.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한 달에 두 번 정도가 45명으로 19.4%로 나타나 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참여하는 모임 분야 수의 경우 1개 분야가 158명으로 68.1%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고, 4개 분야 이상인 경우는 관측되지 않았다. 가구원의 수는 1명에서 7명까지 나타났는데, 2인 가구의 경우

가 78명으로 33.6%를 차지하고, 3인 가구의 경우가 62명으로 26.7%를 차지하여 소가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노동형태의 경우에는 규칙적인 경우가 159명으로 68.5%이고, 비규칙적인 경우가 73명으로 3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경우 구간별 연령대는 임금노동자와 마찬가지로 55세~59세가 106명으로 31.4%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65세~69세가 89명으로 26.3%를 차지하여 임금노동자와 달리 연령대가 높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83명으로 24.6%인 것에 비하여 남성이 255명으로 75.4%를 차지하여 남성이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의 경우에도 임금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졸업이 133명으로 39.3%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종교유무의 경우에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 210명으로 62.1%를, 종교가 있는 사람이 128명으로 37.9%를 차지하여 종교가 없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계층의식의 경우에도 중의 하가 147명으로 43.5%를 차지하였고, 임금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중하위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에는 임금노동자와 달리 보통 수준이 150명으로 44.4%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 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의 경우에는 거의 매일이 89명으로 26.3%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참여하는 모임의 부야 수의 경우에는 1개 분야가 214명으로 63.3%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개 분야 이상은 관측되지 않았다. 가구원의 수의 경우에는 임금노동자와 마찬가지로 2인 가구가 142명으로 42.0%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인 가구가 100명으로 29.6%를 차지하여 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여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소가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 나타났다. 노동형태의 경우 자영업자의 경우 규칙적인 경우가 108명으로 32.0%, 비규칙적인 경우가 230명으로 68.0%를 차지하여 임금노동자와 달리 비규칙적인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도출한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적 연결망 특성에 따른 기술 통계는 아래와 같다.

[표1] 제5차 KLoSA 분석 대상자의 기술통계

변수	구분	임금노동자 빈도	임금노동자 비율(%)	자영업자 빈도	자영업자 비율(%)
구간별 연령	55~59세	121	52.2	106	31.4
	60~64세	54	23.3	81	24.0
	65~69세	35	15.1	89	26.3
	70~75세	22	9.5	62	18.3
성별	여성	102	44.0	83	24.6
	남성	130	56.0	255	75.4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 이하	57	24.6	91	26.9
	중학교 졸업	48	20.7	74	21.9
	고등학교 졸업	97	41.8	133	39.3
	대학교 졸업 이상	30	12.9	40	11.8
종교 유무	종교 있음	93	40.1	128	37.9
	종교 없음	139	59.9	210	62.1
주관적 계층의식	하의 하	33	14.2	30	8.9
	하의 상	57	24.6	65	19.2
	중의 하	77	33.2	147	43.5
	중의 상	57	24.6	84	24.9
	상의 하	7	3.0	9	2.7
	상의 상	1	0.4	3	0.9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나쁨	3	1.3	1	0.3
	나쁜 편	19	8.2	40	11.8
	보통	92	39.7	150	44.4
	좋은 편	114	49.1	141	41.7
	매우 좋음	4	1.7	6	1.8
친한 사람들과 만나는 횟수	친하게 지내는 사람 없음	3	1.3	6	1.8
	일년에 거의 볼 수 없음	3	1.3	0	0.0
	일년에 한두번 정도	9	3.9	16	4.7
	일년에 서너번 정도(3~4개월에 1번)	7	3.0	4	1.2
	일년에 대여섯번 정도(2개월에 1번)	2	0.9	8	2.4
	한달에 한번 정도	29	12.5	34	10.1
	한달에 두번 정도(2주에 한번 정도)	45	19.4	39	11.5
	일주일에 한번 정도	40	17.2	65	19.2
	일주일에 두세번 정도	63	27.2	77	22.8
	거의 매일(일주일에 4회 이상)	31	13.4	89	26.3
참여하는 모임의 분야 수	0개 분야	28	12.1	27	8.0
	1개 분야	158	68.1	214	63.3
	2개 분야	40	17.2	84	24.9
	3개 분야	6	2.6	12	3.6
	4개 분야	0	0.0	1	0.3
	5개 분야	0	0.0	0	0.0
	6개 분야	0	0.0	0	0.0
	7개 분야	0	0.0	0	0.0

가구원의 수	1명	5	2.2	5	1.5
	2명	78	33.6	142	42.0
	3명	62	26.7	100	29.6
	4명	55	23.7	58	17.2
	5명	27	11.6	24	7.1
	6명	2	0.9	7	2.1
	7명	3	1.3	2	0.6
노동형태	규칙적	159	68.5	108	32.0
	비규칙적	73	31.5	230	68.0
합계	-	232	100	338	100

2. 제3차 KLoSA 분석 대상자의 기술통계

제3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에서는 무급가족종사자와 결측치를 제외한 임금노동자 465명과 자영업자 540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임금노동자의 경우 구간별 연령은 55세~59세가 200명으로 43.0%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306명으로 65.8%, 여성이 159명으로 34.2%를 차지하여 남성이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149명으로 32.0%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졸업이 147명으로 31.6%를 차지하여 두 번째로 많았다. 종교의 경우에는 종교 있음이 227명으로 48.8%, 종교 없음이 238명으로 51.2%를 차지하여 종교가 없는 비중이 더 높았다. 주관적 계층의식의 경우에는 중의 하가 158명으로 34.2%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하의 상과 중의 상이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중하위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에는 좋은 편이 200명인 43.0%로 가장 높고 보통이 179명으로 38.5%를 차지하여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의 경우에는 한달에 두 번 정도와 일주일에 두세번 정도가 각각 105명을 차지하여 각각 22.6%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 참여하는 모임의 분야 수의 경우에는 1개 분야가 278명으로 59.8%를 차지하여 과반수를 넘었으며, 5개 분야 이상은 관측되지 않았다. 가구원의 수의 경우에는 2인 가구가 193명으로 41.5%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나 소가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노동형태의 경우에는 규칙적인 경우가 316명으로 68.0%, 비규칙적인 경우가 149명으로 32.0%를 차지하여 규칙적인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경우 연령대는 55세~59세가 155명으로 28.7%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임금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연령대가 상승할수록 비중이 감소하였다. 성별의 경우 여성이 103명으로 19.1%,

남성이 437명으로 80.9%를 차지하여 남성이 비중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199명으로 36.9%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고등학교 졸업이 178명으로 33.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 유무의 경우에는 종교 있음이 227명으로 42.0%, 종교 없음이 313명으로 58.0%를 차지하여 없는 사람이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계층의식의 경우에는 중의 하가 189명으로 35.0%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중의 상이 162명으로 30.0%를 차지하여 중산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에는 좋은 편으로 응답한 사람이 235명으로 43.5%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 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는 거의 매일의 경우가 198명으로 36.7%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임금 노동자와 차이를 나타낸다. 참여하는 모임의 분야 수의 경우에는 1개 분야가 296명으로 54.8%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개 분야 이상은 관측되지 않았다. 가구원의 수의 경우에는 2인 가구가 262명으로 48.5%, 3인 가구가 155명으로 28.7%를 차지하여 임금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소가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노동형태의 경우 규칙적인 경우가 173명으로 32.0%를 차지하였으나, 비규칙적인 경우가 367명으로 68.0%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나서 임금노동자와 반대의 결과를 나타냈다.

제3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도출한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적 연결망 특성에 따른 기술 통계는 아래와 같다.

[표2] 제3차 KLoSA 분석 대상자의 기술통계

변수	구분	임금노동자 빈도	임금노동자 비율(%)	자영업자 빈도	자영업자 비율(%)
구간별 연령	55~59세	200	43.0	155	28.7
	60~64세	139	29.9	152	28.1
	65~69세	75	16.1	122	22.6
	70~75세	51	11.0	111	20.6
성별	여성	159	34.2	103	19.1
	남성	306	65.8	437	80.9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 이하	149	32.0	199	36.9
	중학교 졸업	117	25.2	109	20.2
	고등학교 졸업	147	31.6	178	33.0
	대학교 졸업 이상	52	11.2	54	10.0
종교 유무	종교 있음	227	48.8	227	42.0
	종교 없음	238	51.2	313	58.0
주관적 계층의식	하의 하	64	13.8	45	8.3
	하의 상	130	28.0	117	21.7
	중의 하	159	34.2	189	35.0
	중의 상	82	17.6	162	30.0
	상의 하	26	5.6	22	4.1
	상의 상	4	.9	5	.9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나쁨	2	.4	5	.9
	나쁜 편	71	15.3	77	14.3
	보통	179	38.5	205	38.0
	좋은 편	200	43.0	235	43.5
	매우 좋음	13	2.8	18	3.3
친한 사람들과 만나는 횟수	친하게 지내는 사람 없음	18	3.9	7	1.3
	일년에 거의 볼 수 없음	3	.6	2	.4
	일년에 한두번 정도	4	.9	7	1.3
	일년에 서너번 정도(3~4개월에 1번)	16	3.4	20	3.7
	일년에 대여섯번 정도(2개월에 1번)	16	3.4	13	2.4
	한달에 한번 정도	40	8.6	22	4.1
	한달에 두번 정도(2주에 한번 정도)	105	22.6	86	15.9
	일주일에 한번 정도	64	13.8	77	14.3
	일주일에 두세번 정도	105	22.6	108	20.0
	거의 매일(일주일에 4회 이상)	94	20.2	198	36.7
참여하는 모임의 분야 수	0개 분야	85	18.3	84	15.6
	1개 분야	278	59.8	296	54.8
	2개 분야	87	18.7	127	23.5
	3개 분야	12	2.6	32	5.9
	4개 분야	3	.6	1	.2
	5개 분야	0	0.0	0	.0
	6개 분야	0	0.0	0	.0
	7개 분야	0	0.0	0	.0

가구원의 수	1명	2	.4	1	.2
	2명	193	41.5	262	48.5
	3명	130	28.0	155	28.7
	4명	90	19.4	73	13.5
	5명	33	7.1	30	5.6
	6명	9	1.9	14	2.6
	7명	6	1.3	4	.7
		2	.4	1	.2
노동형태	규칙적	316	68.0	173	32.0
	비규칙적	149	32.0	367	68.0
합계	-	465	100	540	100

3. 제1차 KLoSA 분석 대상자의 기술통계

제1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에서는 무급가족종사자와 결측치를 제외한 임금노동자 603명과 자영업자 717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임금노동자의 경우 연령대 중 55세~59세가 270명으로 44.8%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여성은 141명으로 23.4%, 남성은 462명으로 76.6%를 차지하여 남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226명으로 37.5%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졸업이 171명으로 28.4%를 차지하여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의 경우 종교 있음이 336명으로 55.7%를 차지하고, 종교 없음이 267명으로 44.3%를 차지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좋은 편이 282명으로 46.8%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친한 사람들과 만나는 횟수의 경우 거의 매일이 138명으로 23.1%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일주일에 두세번 정도가 126명으로 20.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하는 모임의 분야 수의 경우에는 1개 분야가 283명으로 46.9%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개 분야 이상의 경우는 관측되지 않았다. 가구원의 수의 경우에는 2인 가구가 258명으로 42.8%, 3인 가구가 167명으로 27.7%를 차지하여 소가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d라 수 있었다.

자영업자의 경우 연령대는 55세~59세가 248명으로 34.6%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상승할수록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여성이 94명으로 13.1%, 남성이 623명으로 86.9%를 차지하여 남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314명으로 43.8%, 고등학교 졸업이 197명으로 27.5%를 차지하여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냈다. 종교의 경우 종교 있음이 324명으로 45.2%, 종교 없음이 383명으로 54.8%를 차지하여 종교가 없는 비중이 더 높았다.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에는 좋은 편이 303명으로 42.3%를 차지하여 전반적으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의 경우 거의 매일로 응답한 사람이 292명으로 40.7%를 차지하는 등 만나는 횟수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하는 모임의 분야 수의 경우 1개 분야가 333명으로 46.4%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개 분야 이상의 경우는 관측되지 않았다. 가구원의 수의 경우에는 2인 가구가 397명으로 55.4%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3인 가구가 159명으로 22.2%를 차지하여 소가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1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도출한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적 연결망 특성에 따른 기술 통계는 아래와 같다.

[표3] 제1차 KLoSA 분석 대상자의 기술통계

변수	구분	임금노동자 빈도	임금노동자 비율(%)	자영업자 빈도	자영업자 비율(%)
구간별 연령	55~59세	270	44.8	248	34.6
	60~64세	186	30.8	181	25.2
	65~69세	117	19.4	166	23.2
	70~75세	30	5.0	122	17.0
성별	여성	141	23.4	94	13.1
	남성	462	76.6	623	86.9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 이하	226	37.5	314	43.8
	중학교 졸업	143	23.7	138	19.2
	고등학교 졸업	171	28.4	197	27.5
	대학교 졸업 이상	63	10.4	68	9.5
종교 유무	종교 있음	336	55.7	324	45.2
	종교 없음	267	44.3	393	54.8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나쁨	12	2.0	16	2.2
	나쁜 편	84	13.9	126	17.6
	보통	198	32.8	247	34.4
	좋은 편	282	46.8	303	42.3
	매우 좋음	27	4.5	25	3.5
친한 사람들과 만나는 횟수	친하게 지내는 사람 없음	60	10.0	43	6.0
	일년에 거의 볼 수 없음	6	1.0	5	.7
	일년에 한두번 정도	20	3.3	11	1.5
	일년에 서너번 정도(3~4개월에 1번)	10	1.7	2	.3
	일년에 대여섯번 정도(2개월에 1번)	11	1.8	7	1.0
	한달에 한번 정도	40	6.6	25	3.5
	한달에 두번 정도(2주에 한번 정도)	106	17.6	103	14.4
	일주일에 한번 정도	85	14.1	108	15.1
	일주일에 두세번 정도	126	20.9	121	16.9
	거의 매일(일주일에 4회 이상)	139	23.1	292	40.7
참여하는 모임의 분야 수	0개 분야	145	24.0	149	20.8
	1개 분야	283	46.9	333	46.4
	2개 분야	132	21.9	172	24.0
	3개 분야	33	5.5	50	7.0
	4개 분야	10	1.7	13	1.8
	5개 분야	0	0	0	0
	6개 분야	0	0	0	0
	7개 분야	0	0	0	0
가구원의 수	1명	0	0	0	0
	2명	258	42.8	397	55.4
	3명	167	27.7	159	22.2
	4명	129	21.4	97	13.5
	5명	34	5.6	42	5.9
	6명	9	1.5	17	2.4
	7명	3	.5	4	.6
	8명	2	.3	1	.1
	9명	1	.2	0	0
합계	-	603	100	717	100

제 2 절 직업 특성과 직무 만족도의 회귀분석 결과

1. 제5차 KLoSA 임금노동자의 직업 특성과 직무 만족도 분석 결과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데이터를 대상으로 임금노동자의 직업 특성이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3단계로 이루어진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통제 변수로 투입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성별, 교육수준, 종교유무, 주관적 계층의식, 주관적 건강상태)만을 반영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2단계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와 함께 사회적 연결망 변수(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 참여하는 모임 분야 수, 가구원의 수)를 반영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통제 변수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적 연결망 변수와 더불어 설명 변수인 직업 특성 변수(노동형태, 월평균 임금, 주당 평균 근무시간, 신체적 직무요구, 내용적 직무요구)를 반영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회귀모형의 F 값은 1단계에서 6.745, 2단계에서 4.534, 3단계에서 6.995로 나타나 모두 $p<0.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에서 15.2%(R^2=.152), 2단계에서 15.5%(R^2=.155), 3단계에서 31.1%(R^2=.311)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에서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가 높으면 회귀계수의 분산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공선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분산팽창인수VIF 값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VIF 값은 1.056~2.664의 범위 내에서 도출되었으며, 이는 5보다 작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 1단계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중 주관적 계층의식($t=4.921$, $p<0.001$)만이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주관적 계층의식의 경우 표준화 회귀계수 β가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임금 노동자의 직무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사회적 연결망 변수를 반영한 2단계에서는 1단계와 마찬가지로 주관적 계층의식($t=4.896$, $p<0.001$)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도 주관적 계층 의식은 β값이 양(+)의 값을 가져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임금 노동자의 직무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통제 변수와 더불어 독립 변수인 직업 특성 변수를 반영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여전히 주관적 계층의식($t=3.602$, $p<0.001$)이 직무 만족도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계층의식이 직무 만족도와 갖는 양(+)의 상관관계는 자신이 스스로를 상위 계층이라고 인식할수록 직업 자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관적 계층의식이 중요하다는 점은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무관하지 않은 문제로 보인다. 다만 월평균 임금이 직무 만족도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직무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절대적 소득의 양극화를 넘어 직업에 따른 계층 소속 의식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사회적 인정을 받는 직업이 높은 소득 수준을 보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통적 의미의 경제적 계층의식도 중요할 것이다.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극화의 해소는 중·고령자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직업에 대한 인식 재고와 경제적 재분배에 대한 논의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단계에서는 독립 변수 중에서 노동형태 변수, 신체적 직무 요구, 그리고 내용적 직무 요구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형태 변수($t=3.169$, $p<0.01$)는 직무 만족도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형태 변수의 β값은 양(+)의 값을 갖는 것

으로 나타나 노동 형태 변수와 직무 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에서 예상한 바와 같이 노동형태, 즉 근무시간이 규칙적일 경우 직무 만족도가 높다는 점을 의미한다.[31] 이러한 분석 결과와 각주31에 따르면 정규직(상용직)이 비정규직(비상용직)에 비하여 직무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을 것이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현행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임금피크제와 연동된 정년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상정하고 있는데, 임금피크제에 수반될 가능성이 높은 근무 유연화 등을 임금노동자는 부정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제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에서는 이에 대한 정책적 안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월평균 임금이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에는 임금피크제가 단순히 유효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임금피크제가 근무 유연화나 직급의 하락을 의미한다면 정년연장이 목표하는 효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신체적 직무 요구 변수($t=-2.898$, $p<0.01$)는 직무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변수의 β 값은 음(−)의 값을 나타나 신체적 직무 요구와 직무 만족도는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에서 예상한 바와 같이 신체적 직무 요구가 높은 직무일수록 직무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이철선(2012)의 지적과 같이 중·고령자가 직면하고 있는 부정적인 근무 환경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근무 환경의 개선을 예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다. 따

31) 전술한 바와 같이 근무 시간의 규칙성으로 정의된 근무 형태가 상용직/비상용직(임시직과 일용직) 여부를 나타내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상의 변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상용직이 비상용직에 비하여 더 높은 직무 만족도를 갖는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실제로 노동형태 변수를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변수로 대체하고 나머지는 동일 변수를 투입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할 경우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변수($t=2.001$, $p<0.05$)의 경우 직무 만족도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결과가 도출된다.

라서 제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에서도 근무 환경의 개선과 관련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 및 시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내용적 직무 요구($t=4.732$, $p<0.001$) 또한 직무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β값은 양(+)으로 나타나 내용적 직무 요구와 직무 만족도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에서 예상한 것과 반대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내용적 직무 요구의 경우 가설에서 예상한 바와 반대의 결과가 도출된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직무 만족도에 대한 결정 요인에 대한 이론에서 Maslow(1943)의 논의를 상기하자면 인간은 단순한 임금 수준이나 근무 시간과 같이 생리적, 안전 요인이 충족될 경우 사회적 인정이나 자아실현을 희망하게 된다. 내용적 직무 요구 변수가 어려운 업무의 처리와 리더십의 요구 등을 내포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내용적 직무 요구가 사회적 인정과 자아실현과 관련된 변수라는 점이 이러한 양(+)의 상관관계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할 수 있다. 둘째, 임금 노동자가 일반적으로 회사 등의 조직에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신체적 직무 요구도와 달리 내용적 직무 요구도가 높다는 것은 조직 내에서의 지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지위의 상승이 직무 만족도의 상승으로 연계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할 수 있다. 가설의 예측과 상반되는 내용적 직무 요구에 대한 분석 결과는 중·고령자가 어려운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응전할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임금피크제가 만약 실질적 지위나 역할의 하락을 의미할 경우 정년 연장정책은 실질적으로 직무 만족도의 하락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무 만족도는 단순히 직무 자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넘어 현재 직업 종사 활동의 지속성을 좌우하는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년연장의 부가 요소인 임금피크제가 정년연장이라는 상위 목표를 잠식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단계 전체를 조망했을 때 β 크기의 절대 값은 내용적 직무 요구 변수의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나, 해당 변수의 영향력이 제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경제적 여건의 악화와 양극화에도 불구하고 임금노동자는 자영업자와 달리 공적인 직업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나타낸다.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한 표는 아래와 같다.

[표4] 제5차 KLoSA 임금노동자의 직무 만족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N=232)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변수(군)		B	β	t	B	β	t	B	β	t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령	−.014	−.029	−.426 (1.238)	−.014	−.028	−.382 (1.371)	.000	.001	.010 (1.717)
	성별	.013	.013	.195 (1.155)	.012	.012	.177 (1.183)	−.106	−.106	−1.476 (1.624)
	교육수준	.039	.078	1.093 (1.339)	.045	.089	1.212 (1.431)	−.069	−.139	−1.833 (1.805)
	종교유무	−.016	−.016	−.246 (1.134)	−.017	−.017	−.256 (1.180)	.022	.022	.344 (1.249)
	주관적 계층의식	.156	.339	4.921*** (1.258)	.156	.339	4.896*** (1.261)	.112	.243	3.602*** (1.437)
	주관적 건강상태	.019	.028	.416 (1.191)	.025	.036	.525 (1.268)	.002	.003	.044 (1.305)
사회적 연결망	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				.011	.044	.691 (1.056)	.016	.064	1.095 (1.079)
	참여하는 모임 분야 수				−.031	−.039	−.560 (1.271)	−.085	−.106	−1.622 (1.354)
	가구원의 수				.008	.018	.271 (1.148)	.003	.006	.099 (1.199)
직업 특성	노동형태							.205	.191	3.169** (1.140)
	월평균 임금							.077	.124	1.351 (2.664)
	주당 평균 근무시간							.001	.029	.453 (1.329)
	신체적 직무요구							−.126	−.185	−2.898** (1.281)
	내용적 직무요구							.295	.327	4.732*** (1.505)
F		6.745***			4.534***			6.995***		
R^2		.152			.155			.311		
R^2 수정		.130			.121			.266		

*p<0.05, **p<0.01, ***p<0.001, 괄호 안의 수치는 VIF 값.

2. 제5차 KLoSA 자영업자의 직업 특성과 직무 만족도 분석 결과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데이터를 대상으로 자영업자의 직업 특성이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3단계로 이루어진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통제 변수로 투입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성별, 교육수준, 종교유무, 주관적 계층의식, 주관적 건강상태)만을 반영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2단계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와 함께 사회적 연결망 변수(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 참여하는 모임 분야 수, 가구원의 수)를 반영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통제 변수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적 연결망 변수와 더불어 설명 변수인 직업 특성 변수(노동형태, 월평균 임금, 주당 평균 근무시간, 신체적 직무요구, 내용적 직무요구)를 반영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회귀모형의 F 값은 1단계에서 9.008, 2단계에서 7.647, 3단계에서 5.164로 나타나 모두 $p<0.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에서 14.0%(R^2=.140), 2단계에서 17.3%(R^2=.173), 3단계에서 18.3%(R^2=.183)으로 나타났다. 분산팽창인수 VIF 값은 1.075~1.541의 범위 내에서 도출되었으며, 이는 5보다 작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변수만을 포함시킨 1단계에서는 주관적 계층의식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계층의식($t=5.467$, $p<0.001$)은 직무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건강상태(2.243, $p<0.05$) 또한 직무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사회적 연결망 변수를 모두 반영한 2단계에서는 사회적 연결망 변수 중 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와 참여하는 모임 분야 수 변수가 추가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

회학적 변수 중 주관적 계층의식(t=5.467, p<0.001)과 주관적 건강상태(t=2.243, p<0.05)는 1단계와 마찬가지로 직무 만족도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연결망 변수 중 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t=−2.388, p<0.05)의 경우 직무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자면 친한 사람과 만나는 빈도가 낮을수록 직무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참여하는 모임의 분야 수(t=2.487, p<0.005) 변수의 경우 직무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적 연결망 변수 중에서는 주관적 계층의식, 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 가구원의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관적 건강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자면 종속 변수에 대하여 주관적 계층의식(t=5.053, p<0.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t=−2.441, p<0.05)는 음(−)의 상관관계, 참여하는 모임의 분야 수(t=2.287, p<0.05)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자영업자의 경우 주관적 계층의식은 임금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직무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 사회에서 중·고령자가 직면하고 있는 높은 양극화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임금노동자가 조직 내부의 직급의 상승을 통하여 실질적 사회적 계층의 상승을 도모할 수 있다면 자영업자는 그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임금 수준의 경우에는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자영업자의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업의 영세성에 기인한 것이 아닐까라는 추정을 할 수 있다.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회적 연결망 변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5차 데이터에서 임금노동자의 경우

직무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연결망 변수가 없는 반면에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와 참여하는 모임의 분야 수가 직무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의 방향은 두 변수의 경우에 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노동자와 달리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유효한 영향이 관측되었다는 사실은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연결망이 비공식적(사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직무 만족도에 대하여 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가 부정적, 참여하는 모임의 분야 수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상반되는 결과는 사회적 연결망의 기능적 차원에서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Granovetter(1973)의 논의를 상기했을 때, 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는 강한 연결이며 참여하는 모임의 분야 수는 약한 연결로서 양자는 자영업자의 직무에 대한 영향에서 상반된 기능을 수행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강한 연결로서 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는 주관적 계층의식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와 직무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약한 연결로서 참여하는 모임의 분야 수는 사업이 필요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직무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만약 자영업자에게 사적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흐름이 중요하다면 제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에서는 공식적인 교육보다는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을 부가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협동조합을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해당 정책은 자영업의 영세성과 인적 네트워크의 확대 차원에서 효과적인 정책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제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에서는 해당 정책의 승계 및 확대가 바람직할 것으로 추정된다. 3단계에서 독립 변수로 투입된 직업 특성 변수 5가지의 경우에는 직무 만족도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에서 예상한 바와 어긋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영업자의 경

우에는 직업 자체의 특성보다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직무 만족도가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영업자의 직무 만족도에 직업 관련 변인들이 왜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를 명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결과는 자영업자의 경우 직업을 단순 소득 획득 수단으로 인식하기에 직업의 특성에 큰 비중을 두지 않기 때문이거나 영세성 때문에 직업 특성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등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는 제3차와 제1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 대한 분석을 통한 시계열적인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명확한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단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변수의 β 크기를 비교하자면 임금노동자와 달리 주관적 계층의식이 가장 높게 나타나 해당 변수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한 표는 아래와 같다.

[표5] 제5차 KLoSA 자영업자의 직무 만족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N=338)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변수(군)		B	β	t	B	β	t	B	β	t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령	.006	.016	.276 (1.305)	−.008	−.021	−.339 (1.450)	−.005	−.014	−.216 (1.541)
	성별	−.034	−.034	−.618 (1.184)	−.044	−.045	−.812 (1.218)	−.028	−.029	−.505 (1.291)
	교육수준	.008	.018	.316 (1.288)	−.005	−.011	−.192 (1.341)	−.017	−.040	−.656 (1.465)
	종교유무	−.024	−.027	−.506 (1.097)	−.027	−.030	−.565 (1.158)	−.023	−.026	−.473 (1.202)
	주관적 계층의식	.131	.306	5.467*** (1.206)	.130	.302	5.467*** (1.211)	.124	.289	5.053*** (1.289)
	주관적 건강상태	.080	.135	2.452* (1.167)	.073	.123	2.243* (1.190)	.064	.108	1.942 (1.225)
사회적 연결망	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				−.026	−.124	−2.388* (1.075)	−.027	−.130	−2.441* (1.122)
	참여하는 모임 분야 수				.088	.137	2.487* (1.196)	.082	.128	2.287* (1.232)
	가구원의 수				−.038	−.099	−1.823 (1.167)	−.038	−.099	−1.797 (1.192)
직업 특성	노동형태							.002	.002	.039 (1.193)
	월평균 소득							.007	.020	.362 (1.218)
	주당 평균 근무시간							.002	.062	1.097 (1.246)
	신체적 직무요구							−.050	−.080	−1.409 (1.270)
	내용적 직무요구							.035	.038	.694 (1.196)
F		9.008***			7.647***			5.164***		
R^2		.140			.173			.183		
R^2 수정		.125			.151			.147		

*p<0.05, **p<0.01, ***p<0.001, 괄호 안의 수치는 VIF 값.

3. 제3차 KLoSA 임금노동자의 직업 특성과 직무 만족도 분석 결과

제3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데이터를 대상으로 임금노동자의 직업 특성이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3단계로 이루어진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통제 변수로 투입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성별, 교육수준, 종교유무, 주관적 계층의식, 주관적 건강상태)만을 반영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2단계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와 함께 사회적 연결망 변수(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 참여하는 모임 분야 수, 가구원의 수)를 반영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통제 변수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적 연결망 변수와 더불어 설명 변수인 직업 특성 변수(노동형태, 월평균 임금, 주당 평균 근무시간, 신체적 직무요구, 내용적 직무요구)를 반영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회귀모형의 F 값은 1단계에서 17.707, 2단계에서 12.911, 3단계에서 16.928로 나타나 모두 $p<0.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에서 18.8%(R^2=.188), 2단계에서 20.3%(R^2=.203), 3단계에서 34.5%(R^2=.345)으로 나타났다. 분산팽창인수 VIF 값은 1.048~2.510의 범위 내에서 도출되었으며, 이는 5보다 작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임금 노동자의 경우 1단계에서는 교육수준, 주관적 계층의식, 그리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직무 만족도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수준($t=1.995$, $p<0.05$)의 경우에는 직무 만족도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을 나타났으며, 주관적 계층 의식($t=6.825$, $p<0.001$)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관적 건강상태($t=3.424$, $p<0.01$)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주관

적 계층의식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교육수준은 더 이상 유의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주관적 계층의식(t=6.272, p<0.001)은 직무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건강상태(t=3.531, p<0.001) 또한 직무 만족도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연결망 변수 중에서는 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와 가구원의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t=2.027, p<0.05)는 직무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의 수(t=−2.027, p<0.05)의 경우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가구원이 많을수록 직무 만족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3단계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적 연결망 변수 중에서는 주관적 계층의식, 주관적 건강상태, 그리고 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만족도에 대하여 주관적 계층의식(t=4.528, p<0.001)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와 유사한 결과로서 2010년에도 중·고령자의 직무 만족도에 있어 계층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나아가 당시에도 중·고령자가 인식하는 양극화 문제가 존재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주관적 건강상태(t=2.672, p<0.01)는 직무 만족도에 대하여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이는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와 달리 2010년에는 건강 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2014년보다 더욱 중요하게 나타났다는 점을 보여준다. 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t=2.560, p<0.05)는 직무 만족도에 대하여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와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는 공식적 사회적 연결망이 아닌 사적인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나 밀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

3차에서 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면에 제5차에서는 유의하지 않다고 나타났다는 점은 임금노동자의 경우 사적인 사회적 연결망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에서는 사회적 연결망의 확충에 대한 정책적 안배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3단계에서 독립 변수 중에서는 노동형태, 월평균 임금, 그리고 신체적 직무 요구가 직무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형태($t=5.199$, $p<0.001$)의 경우에는 직무 만족도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근무 시간이 일정한 경우에 직무 만족도가 더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가설에서 예측한 바에 부합한다. 임금노동자의 노동형태 변수의 경우에는 제3차와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 분석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직업에 대한 가치 정향이 직업이나 직무의 안정성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일관성이 유지되어 왔음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월평균 임금($t=3.019$, $p<0.01$)의 경우에도 직무 만족도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임금과 직무 만족도를 정비례한다는 가설의 예측과 부합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경우 임금 수준이 직무 만족도에 유의하지 않았다는 결과와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원인으로는 두 가지 예측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2014년에 55세로 진입한 비교적 젊은 중·고령자의 경우에는 직업 활동에 과거보다 비경제적 가치를 투영하기에 해당 결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둘째, 2010년보다 2014년에는 중·고령자의 취업 여건이 과거보다 어려워져서 절대적 임금수준보다 현재의 소득 획득 방안을 유지하려하기에 해당 변수의 영향력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만약 후자와 같은 비관적 예측이 정확하다면 정년연장을 통한 고용안정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정년연장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과연

봉제와 같은 여러 정책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신체적 직무 요구(t=−6.134, p<0.001)의 경우 가설의 예상과 마찬가지로 직무 만족도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제5차와 동일한 신체적 직무 요구에 대한 분석 결과는 임금노동자의 고유한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임금노동자의 직급이 상승할수록 신체적 요구도가 높은 일에서 상대적으로 멀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를 당연하게 기대하는 보수적 문화가 지배적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고령 임금노동자의 직무 만족도에 대하여 신체적 직무 요구의 부정적인 영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5차의 임금노동자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어느 정도 이철선(2012)의 지적과 같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기인한 점에 주목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만약 신체적 직무 요구에 대한 가치가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것이라면 노동 환경의 개선을 넘어 조직 내부의 신체적 업무 종사를 기피하는 문화의 변화를 유도하거나 고령자 친화 작업 환경의 조성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5차에서는 내용적 직무 요구가 직무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낸 반면에 제3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이소정(2011)의 지적과 같이 중·고령자의 직업에 대한 가치 정향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임금노동자의 경우에는 3단계 전체를 보았을 때 신체적 직무 요구의 β값이 가장 크게 나타나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데이터와 차이를 나타냈다.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한 표는 아래와 같다.

[표6] 제3차 KLoSA 임금노동자의 직무 만족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N=465)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변수(군)		B	β	t	B	β	t	B	β	t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령	.011	.020	.442 (1.151)	−.003	−.005	−.103 (1.237)	.017	.031	.662 (1.542)
	성별	−.053	−.047	−1.007 (1.210)	−.035	−.031	−.673 (1.233)	−.104	−.092	−1.951 (1.517)
	교육수준	.051	.096	1.995* (1.314)	.045	.086	1.779 (1.337)	−.042	−.080	−1.644 (1.625)
	종교유무	.042	.039	.915 (1.048)	.049	.045	1.041 (1.082)	.064	.059	1.484 (1.098)
	주관적 계층의식	.154	.322	6.825*** (1.254)	.145	.301	6.272*** (1.320)	.101	.211	4.528*** (1.491)
	주관적 건강상태	.107	.156	3.424** (1.167)	.110	.160	3.531*** (1.170)	.078	.113	2.672** (1.221)
사회적 연결망	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				.022	.090	2.027* (1.126)	.026	.105	2.560* (1.147)
	참여하는 모임 분야 수				−7.792E−5	.000	−.002 (1.224)	−.005	−.006	−.146 (1.241)
	가구원의 수				−.040	−.089	−2.027* (1.093)	−.033	−.072	−1.779 (1.118)
직업 특성	노동형태							.237	.206	5.199*** (1.084)
	월평균 임금							.138	.182	3.019** (2.510)
	주당 평균 근무시간							.000	.013	.294 (1.249)
	신체적 직무요구							−.174	−.264	−6.134*** (1.273)
	내용적 직무요구							.094	.087	1.936 (1.372)
F		17.707***			12.911***			16.928***		
R^2		.188			.203			.345		
R^2 수정		.178			.188			.325		

*p<0.05, **p<0.01, ***p<0.001, 괄호 안의 수치는 VIF 값.

4. 제3차 KLoSA 자영업자의 직업 특성과 직무 만족도 분석 결과

제3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데이터를 대상으로 자영업자의 직업 특성이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3단계로 이루어진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통제 변수로 투입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성별, 교육수준, 종교유무, 주관적 계층의식, 주관적 건강상태)만을 반영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2단계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와 함께 사회적 연결망 변수(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 참여하는 모임 분야 수, 가구원의 수)를 반영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통제 변수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적 연결망 변수와 더불어 설명 변수인 직업 특성 변수(노동형태, 월평균 임금, 주당 평균 근무시간, 신체적 직무요구, 내용적 직무요구)를 반영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회귀모형의 F 값은 1단계에서 13.197, 2단계에서 9.117, 3단계에서 8.710로 나타나 모두 $p<0.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에서 12.9%(R^2=.129), 2단계에서 13.4%(R^2=.134), 3단계에서 18.8%(R^2=.188)으로 나타났다. 분산팽창인수 VIF 값은 1.072~1.572의 범위 내에서 도출되었으며, 이는 5보다 작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의 경우 1단계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 교육수준, 종교 유무, 그리고 주관적 계층의식이 직무 만족도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결과가 도출되었다. 직무 만족도에 대한 이들의 영향을 살펴보자면 교육수준($t= 2.980$, $p<0.01$)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 유무($t=2.124$, $p<0.05$)의 경우에도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주관적 계층의식의 경우에도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교육수준과 주관적 계층의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유무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t=2.978, p<0.01)은 직무 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주관적 계층의식(t=5.985, p<0.001)은 직무 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반영된 사회적 연결망 변수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가 없었다.

3단계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수의 경우 종교유무와 주관적 계층의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연결망 변수의 경우 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각 변수의 직무 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자면 종교유무(t=2.129, p<0.05)의 경우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유무의 중요성은 자영업자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임금노동자가 공식적 조직 내의 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것과 달리 자영업자는 단순한 사적 교류 관계를 넘어 직업과 관련해서도 비공식적(사적) 연결망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종교에의 교류는 비공식적 사회적 연결망의 주요 허브로 기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초역 인근 사랑의 교회가 들어선 이후에 인접 상권이 발전하고 식당 등지에서 교회 식권 등을 결제수단으로 도입하는 등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종교와의 관계는 자영업자의 사업 성패에 상당한 중요성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차에서는 종교유무가 직무 만족도에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정리하자면 종교 유무는 자영업자의 직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나 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주관적 계층의식(t=5.546, p<0.001)의 경우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금노동자와 동일한 결과로서 자영업자는 임금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양극화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2010년도가 2014년도와 동일한 양상을 나타낸다는 점은 양극화가 현재의 현상이자 과거로부터 이어진 문제로 상당한 지속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계열적인 지속성은 양극화 문제에 대한 접근에 있어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시각이 요구

될 것임을 시사한다. 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t=2.115, p<0.05)의 경우에도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는 제5차에서의 분석 결과와 상반되는 것이다. 자영업자의 제5차 패널에 대한 분석 결과는 Granovetter(1973)의 이론을 통하여 설명하였으나 제3차에서는 해당 이론으로 설명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이는 약한 연결로 볼 수 있는 참여하고 있는 모임의 분야 수의 경우에는 제3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는 직무 만족도에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어느 정도 문화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단계에서 반영된 독립변수인 직업 특성 변수 중에서는 노동형태, 월평균 소득, 그리고 내용적 직무요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노동형태(t=2.056, p<0.05)의 경우에는 직무 만족도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에서 예측한 바가 검증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제5차와 제3차 모두에서 노동형태가 유의하다고 나타난 임금노동자와 달리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제5차에서는 노동형태가 직무 만족도에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은 특기할만하다. 이러한 차이점은 자영업자의 월평균 소득에 대한 정향의 차이와 함께 보았을 때 보다 이해하기 용이하다. 월평균 소득의 경우(t=3.836, p<0.001)에도 직무 만족도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가설의 예측과 부합한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임금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제5차에서는 소득 수준(임금노동자의 경우에는 임금 수준)이 직무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노동형태 변수와 소득 수준 변수를 종합하였을 때, 자영업자의 이러한 변화는 경기 악화로 인하여 노동형태나 임금수준의 크기를 고려할 여유가 없고 현재 소득이라도 유지하려 한다는 비관적인 예측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5차 고령화연구

패널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영업의 경우에는 영세성과 불안정성을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내용적 직무요구($t=2.098$, $p<0.05$)의 경우에는 직무 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이는 가설의 예측과 반대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이것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내용적 직무 요구와 직무 만족도의 양의 상관관계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 자영업자의 경우에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원인을 추정하자면 자영업이 포괄하고 있는 업종의 다양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영업 중에서 사무직이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32]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내용적 직무 요구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 높은 내용적 직무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정 등으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직무 만족도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양(+)의 상관관계가 관측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업종에 따라 정책을 다변화해야 하며 일률적인 창업지원이나 교육 정책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 3단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드러난 변수 중에서 β값은 주관적 계층의식의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과 동일한 결과이다. 이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임금노동자와 달리 직업 자체보다는 사회적 조건이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점을 보여주며, 양극화의 해소를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와 달리 제3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자영업자는 직업 특성이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는 차이를 갖는다. 이러한 차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적 침체가 고착화되는 2011년 이후에 제5

32) 대표적으로 개인이 개업한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와 같이 자영업의 범주에 들어가나 동시에 사무직·전문직의 범주에도 들어가는 경우를 고려할 수 있다.

차가 조사된 반면에 2010년에 조사된 제3차는 경제적 침체의 영향을 아진 완전하게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한 표는 아래와 같다.

[표7] 제3차 KLoSA 자영업자의 직무 만족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N=540)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변수(군)		B	β	t	B	β	t	B	β	t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령	−.016	−.038	−.831 (1.297)	−.012	−.028	−.593 (1.378)	.013	.031	.641 (1.486)
	성별	.023	.020	.463 (1.165)	.013	.011	.256 (1.205)	.027	.023	.530 (1.250)
	교육수준	.061	.139	2.980** (1.330)	.062	.140	2.978** (1.363)	.030	.069	1.406 (1.572)
	종교유무	.081	.088	2.124* (1.044)	.075	.081	1.945 (1.072)	.080	.087	2.129* (1.088)
	주관적 계층의식	.118	.272	6.346*** (1.124)	.114	.263	5.985*** (1.186)	.104	.241	5.546*** (1.223)
	주관적 건강상태	−.021	−.037	−.850 (1.169)	−.021	−.037	−.846 (1.175)	−.029	−.051	−1.202 (1.182)
사회적 연결망	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				.014	.059	1.410 (1.076)	.020	.087	2.115* (1.098)
	참여하는 모임 분야 수				.007	.012	.276 (1.248)	−.005	−.009	−.205 (1.289)
	가구원의 수				.013	.032	.748 (1.089)	.010	.024	.575 (1.099)
직업 특성	노동형태							.087	.090	2.056* (1.226)
	월평균 소득							.057	.165	3.836*** (1.194)
	주당 평균 근무시간							.001	.023	.545 (1.149)
	신체적 직무요구							−.030	−.051	−1.164 (1.247)
	내용적 직무요구							.084	.095	2.098* (1.314)
F		13.197***			9.117***			8.710***		
R^2		.129			.134			.188		
R^2 수정		.120			.119			.167		

*p<0.05, **p<0.01, ***p<0.001, 괄호 안의 수치는 VIF 값.

5. 제1차 KLoSA 임금노동자의 직업 특성과 직무 만족도 분석 결과

제1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데이터를 대상으로 임금 노동자의 직업 특성이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3단계로 이루어진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통제 변수로 투입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성별, 교육수준, 종교유무, 주관적 건강상태)만을 반영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2단계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와 함께 사회적 연결망 변수(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 참여하는 모임 분야 수, 가구원의 수)를 반영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통제 변수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적 연결망 변수와 더불어 설명 변수인 직업 특성 변수(월평균 임금, 주당 평균 근무시간, 신체적 직무요구, 내용적 직무요구)를 반영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1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경우 제3차와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와 달리 주관적 계층의식과 노동형태(근로 시간의 규칙성 여부)에 대한 항목이 없으므로 이번 분석에서는 부득이하게 제외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회귀모형의 F 값은 1단계에서 22.343, 2단계에서 16.562, 3단계에서 27.117로 나타나 모두 $p<0.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에서 15.8%(R^2=.158), 2단계에서 18.2%(R^2=.182), 3단계에서 35.5%(R^2=.355)로 나타났다. 분산팽창인수 VIF 값은 1.017~2.249의 범위 내에서 도출되었으며, 이는 5보다 작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임금 노동자의 경우 제1단계에서는 교육 수준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직무 만족도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교육 수준($t=8.304$, $p<0.001$)은 직무 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건강상태($t=3.677$, $p<0.001$)도 직무 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 교육수준과 주관적 건강상태, 그리고 사회적 연결망 변수 중에서는 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와 참여하는 모임의 분야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 변수의 직무 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자면 교육수준(t=7.333, p<0.001)은 양(+)의 상관관계, 주관적 건강상태(t=3.751, p<0.001)는 양(+)의 상관관계, 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t=2.438, p<0.05)는 양(+)의 상관관계, 그리고 참여하는 모임 분야 수(t=2.387, p<0.05)도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통제 변수인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사회적 연결망 변수의 경우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그리고 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 변수가 직무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t=−4.273, p<0.001)의 경우 직무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 직무 만족도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제5차와 제3차에서는 성별이 직무 만족도에 주는 영향이 관측되지 않았다. 주관적 건강상태(t=2.258, p<0.05)의 경우 직무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에는 후술할 바와 같이 생활만족도에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무 만족도에 대해서는 제3차와 제5차의 분석 결과에 있어서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t=2.542, p<0.05)의 경우에도 직무 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는 제3차에서도 직무 만족도에 대하여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제5차에서는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점은 앞서 임금노동자의 제3차 자료에 대한 직무만족도의 회귀분석 결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보다 과거의 임금노동자가 사회적 연결망의 범위가 더 컸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연결망의 확대를 위한 정책적 고려가 향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단계에서 투입된 독립변수인 직무 특성 변수 중에서는 월평균 임금과 신체적 직무 요구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임금($t=7.914$, $p<0.001$)은 직무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임금이 높을수록 직무 만족도가 높다는 점을 의미하는데, 이는 가설에서의 예상에 부합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월평균 임금의 경우에는 제3차에서도 직무 만족도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5차에는 그러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제1차, 제3차, 제5차의 변화 과정을 종합하자면 전술한 바와 같이 두 가지 개연성 있는 설명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경제적 여건의 악화로 인하여 임금노동자의 경우 소득의 절대적 수준에 대하여 고려를 할 여유가 없다는 비관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둘째, 대안적으로는 이소정(2011)의 지적과 같이 과거와 달리 경제적 여건직업보다 관련 가치 정향을 나타내는 문화적인 변화가 이러한 시계열적인 차이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단순한 취업 알선 정책보다도 정년 연장 및 보장을 통한 안정성을 높이거나 직업의 질에 대한 고려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직업의 질의 경우에는 신체적 직무 요구에 대한 분석 결과와도 관련되어 있다. 신체적 직무 요구($t=-7.733$, $p<0.001$)는 직무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자면 신체적 직무 요구가 낮을수록 직무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으로, 이는 가설에서의 예측과 부합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임금노동자의 경우에는 신체적 직무 요구가 전 기간에 걸쳐 일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철선(2012)이 지적한 바와 같이 중·고령자의 직업 조건이 신체적 차원에서 과거에도 미비했다는 점을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임금 노동자의 경우에는 자영업자와 달리 직급의 상승에 따른 신체적 요구도가 높은 직위로부

터의 이탈을 희망한다는 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고령자에 대해서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안배한 바와 같이 고령친화적 작업 환경의 조성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해당 기본계획에서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중·고령자 스스로의 신체적 직업 종사에 대한 의식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령 중·고령자에 진입할 경우 단순히 육체노동 분야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 품질 검사 단계 등을 마련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힘을 들여야 하나 높은 경험과 숙련도가 높은 보직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평가된다. β의 크기의 절대값을 비교하자면 월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변수가 직무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β의 크기는 과거에는 경제적 소득에 대한 가치 정향이 현재보다 높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한 표는 아래와 같다.

[표8] 제1차 KLoSA 임금 노동자의 직무 만족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N=603)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변수(군)		B	β	t	B	β	t	B	β	t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령	−.026	−.040	−1.032 (1.051)	−.013	−.020	−.530 (1.083)	.046	.072	1.883 (1.320)
	성별	−.050	−.036	−.874 (1.194)	−.054	−.039	−.961 (1.209)	−.231	−.167	−4.273*** (1.394)
	교육수준	.194	.340	8.304*** (1.191)	.175	.308	7.333*** (1.279)	.029	.051	1.182 (1.677)
	종교유무	.014	.012	.324 (1.017)	−.019	−.016	−.426 (1.061)	.003	.003	.079 (1.070)
	주관적 건강상태	.099	.144	3.677*** (1.091)	.100	.145	3.751*** (1.093)	.054	.079	2.258* (1.120)
사회적 연결망	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				.021	.098	2.438* (1.172)	.019	.091	2.542* (1.177)
	참여하는 모임 분야 수				.066	.102	2.387* (1.327)	.014	.022	.560 (1.374)
	가구원의 수				−.003	−.006	−.163 (1.043)	−.013	−.025	−.739 (1.048)
직업 특성	월평균 임금							.330	.392	7.914*** (2.249)
	주당 평균 근무시간							−.001	−.040	−1.167 (1.052)
	신체적 직무요구							−.201	−.292	−7.733*** (1.308)
	내용적 직무요구							.072	.068	1.670 (1.523)
F		22.343***			16.562***			27.117***		
R^2		.158			.182			.355		
R^2 수정		.151			.171			.342		

*p<0.05, **p<0.01, ***p<0.001, 괄호 안의 수치는 VIF 값.

6. 제1차 KLoSA 자영업자의 직업 특성과 직무 만족도 분석 결과

제1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데이터를 대상으로 자영업자의 직업 특성이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3단계로 이루어진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통제 변수로 투입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성별, 교육수준, 종교유무, 주관적 건강상태)만을 반영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2단계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와 함께 사회적 연결망 변수(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 참여하는 모임 분야 수, 가구원의 수)를 반영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통제 변수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적 연결망 변수와 더불어 설명 변수인 직업 특성 변수(월평균 임금, 주당 평균 근무시간, 신체적 직무요구, 내용적 직무요구)를 반영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1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경우 제3차와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와 달리 주관적 계층의식과 노동형태(근로 시간의 규칙성 여부)에 대한 항목이 없으므로 이번 분석에서는 부득이하게 제외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회귀모형의 F 값은 1단계에서 12.893, 2단계에서 11.805, 3단계에서 13.731로 나타나 모두 $p<0.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에서 8.3%(R^2=.083), 2단계에서 11.8%(R^2=.118), 3단계에서 19.0%(R^2=.190)로 나타났다. 분산팽창인수 VIF 값은 1.024~1.316의 범위 내에서 도출되었으며, 이는 5보다 작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는 1단계에서 교육수준, 종교유무, 그리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직무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t=4.834$, $p<0.001$)은 직무 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유무($t=-2.239$, $p<0.05$)의 경우에는 직무 만족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주관적 건강상태($t=4.482$, $p<0.001$)은 직무 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

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에서는 교육수준, 종교유무, 주관적 건강상태가 직무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t=4.528, p<0.001)은 직무 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유무(t=−2.610, p<0.01)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주관적 건강상태(t=4.368, p<0.001)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연결망 변수 중에서는 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와 참여하는 모임 분야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t=2.493, p<0.05)는 직무 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참여하는 모임 분야 수(t=3.269, p<0.01)는 직무 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3단계에서 통제변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 종교유무, 주관적 건강상태가, 그리고 사회적 연결망 변수 중 참여하는 모임 분야 수가 직무 만족도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유무(t=−2.267, p<0.05)는 직무 만족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차에서 자영업자에게 종교유무 변수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종교라는 사회적 연결망의 허브가 반드시 직무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주관적 건강상태(t=4.411, p<0.001)는 직무 만족도에 대하여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서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임금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주관적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참여하는 모임 분야 수(t=2.634, p<0.01)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하고 있는 모임의 분야 수가 직무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제5차의 분석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영업자에게는 약한 연결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가족의 날, 교통지도 등의 사회적 연결망의 확대를 안배하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경우 직무 만족도와 관련해서도 사회적 연결망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나타났기 때

문에 단순히 기존 정책과 마찬가지로 직무와 무관한 방향으로만 사회적 연결망과 참여를 촉진하는 것은 여러모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3단계에서 투입된 독립 변수 4가지 중 전부에 해당하는 월평균 수입, 주당 평균 근무시간, 신체적 직무요구, 내용적 직무요구가 직무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수입($t=4.336$, $p<0.001$)은 직무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에서의 예측에 부합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제3차에서 자영업자의 직무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와 유사하며, 제5차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와는 뚜렷한 차이를 나타낸다.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의 변화는 제3차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적 여건의 악화에 따라 절대적인 소득의 양에 집중할 만한 여유가 없다는 비관적인 예측이 보다 설명력이 높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주당 평균 근무시간($t=-2.665$, $p<0.01$)는 직무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가설에서의 예상에 부합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근무시간의 경우에도 제1차, 즉 2006년에서만 직무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상기한 비관적인 예측에 힘을 실어준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신체적 직무 요구에 대한 분석 결과 또한 이러한 예측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신체적 직무 요구($t=-3.263$, $p<0.01$)의 경우에도 직무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가설에서의 예측과 부합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임금 수준, 근무 시간, 그리고 신체적 직무 요구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종합했을 때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임금노동자보다 영세성과 불안정성이 더 높으며, 상황이 악화되어가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자영업자는 임금노동자와 다르게 다양한 사회보장 정책에서 제외되어 있는 경향이 높으며, 사업에 따른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다. 다만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급부 정책의 당위성을 주장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한 정책적 향방에 대해서는 제5절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내용적 직무 요구($t=3.671$, $p<0.001$)의 경우에는 직무 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내용적 직무 요구의 경우에는 가설에서의 예측과 다른데, 이러한 차이는 앞서 제3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에 대하여 언급한 바와 같이 자영업자의 업종의 다양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자영업자 중에서도 변호사 등과 같이 고급 직종의 경우 내용적 직무 요구가 높지만 직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서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자영업의 종류에 따라 정책이 다각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β크기를 보았을 때 자영업자의 주관적 직무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관적 건강상태로 볼 수 있다.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한 표는 아래와 같다.

[표9] 제1차 KLoSA 자영업자의 직무 만족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N=717)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변수(군)		B	β	t	B	β	t	B	β	t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령	.012	.025	.628 (1.207)	.012	.025	.626 (1.275)	.032	.066	1.687 (1.313)
	성별	−.075	−.047	−1.244 (1.107)	−.108	−.068	−1.802 (1.135)	−.112	−.071	−1.932 (1.160)
	교육수준	.098	.192	4.834*** (1.219)	.094	.183	4.528*** (1.316)	.038	.074	1.760 (1.547)
	종교유무	−.088	−.081	−2.239* (1.024)	−.101	−.094	−2.610** (1.041)	−.085	−.079	−2.267* (1.051)
	주관적 건강상태	.108	.174	4.482*** (1.173)	.103	.167	4.368*** (1.178)	.100	.163	4.411*** (1.180)
사회적 연결망	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				.021	.094	2.493* (1.140)	.016	.070	1.914 (1.154)
	참여하는 모임 분야 수				.076	.130	3.269** (1.268)	.059	.101	2.634** (1.282)
	가구원의 수				−.029	−.060	−1.633 (1.081)	−.027	−.056	−1.588 (1.092)
직업 특성	월평균 수입							.057	.158	4.336*** (1.157)
	주당 평균 근무시간							−.002	−.092	−2.665** (1.034)
	신체적 직무요구							−.083	−.125	−3.263** (1.270)
	내용적 직무요구							.146	.131	3.671*** (1.114)
F		12.893***			11.805***			13.731***		
R^2		.083			.118			.190		
R^2 수정		.077			.108			.176		

*p<0.05, **p<0.01, ***p<0.001, 괄호 안의 수치는 VIF 값.

제 3 절 직업 특성과 생활 만족도의 회귀분석 결과

1. 제5차 KLoSA 임금노동자의 직업 특성과 생활 만족도 분석 결과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데이터를 대상으로 임금 노동자의 직업 특성이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3단계로 이루어진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통제 변수로 투입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성별, 교육수준, 종교유무, 주관적 계층의식, 주관적 건강상태)만을 반영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2단계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와 함께 사회적 연결망 변수(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 참여하는 모임 분야 수, 가구원의 수)를 반영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통제 변수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적 연결망 변수와 더불어 설명 변수인 직업 특성 변수(노동형태, 월평균 임금, 주당 평균 근무시간, 신체적 직무요구, 내용적 직무요구)를 반영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회귀모형의 F 값은 1단계에서 20.877, 2단계에서 14.813, 3단계에서 10.235로 나타나 모두 $p<0.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에서 35.8%(R^2=.358), 2단계에서 37.5%(R^2=.375), 3단계에서 39.8%(R^2=.398)으로 나타났다. 분산팽창인수 VIF 값은 1.056~2.664의 범위 내에서 도출되었으며, 이는 5보다 작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임금노동자는 1단계에서 주관적 계층의식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생활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주관적 계층의식($t=8.017$, $p<0.001$)은 생활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주관적 건강상태($t=3.072$, $p<0.01$)는 생활 만족도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에서 주관적 계층의식과 주관적 건강상태, 사회적 연결망 변수 중에서는 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가 생활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계층의식($t=8.135$, $p<0.001$)은 생활 만족도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주관적 건강상태($t=3.005$, $p<0.01$)는 생활 만족도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그리고 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t=2.196$, $p<0.05$) 또한 생활 만족도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독립 변수까지 반영한 3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에서는 주관적 계층의식($t=7.205$, $p<0.001$)과 주관적 건강상태($t=2.537$, $p<0.05$)가 모두 생활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와 같이 주관적 계층의식은 임금노동자에 대하여 직무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생활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양극화나 계층 간 소외의식이 임금노동자가 종사하는 직무에 대한 만족도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의 감소를 가져왔다는 뜻으로, 직업에 따른 사회적 위계가 청장년층뿐만 아니라 노년층에도 강한 영향을 가져온다는 점을 보여준다. 양극화의 해결은 단순히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포괄적인 재분배 정책 내지는 인식의 전환으로 접근해야 한다. 임금노동자의 생활 만족도의 경우에는 직무 만족도와 달리 주관적 건강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원인으로는 우선 일정 이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금 노동, 즉 피고용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임금 노동자는 일정 수준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므로 직무 만족도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생활 만족도의 경우에는 직무 종사에 요구되는 정도 이상으로

건강한 상태가 삶의 질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강상태가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시도하려면 우선적으로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의미를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자신이 건강한지 여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자 판단의 문제이다. 따라서 개인의 주관적 인식의 문제이기도 하나 판단 기준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측면이 강한다. 예를 들어 업무의 종사할 때 고령친화적 작업 환경이 마련되었을 경우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이 건강하다고 인식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령 친화적인 기반 시설과 같은 객관적 조건의 충족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구성된 건강에 대한 기준의 점진적 변화 또한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연결망 변수 중에서는 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t=2.105$, $p<0.05$)가 생활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만족도에 대한 분석 결과와 비교하자면 임금 노동자의 경우에는 자영업자와 달리 공식적/비공식적 사회적 연결망이 상대적으로 분리되어 있거나 양자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구분되어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자영업자는 이에 반하여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후술할 바와 같이 그러한 차이는 사회적 연결망의 분리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단계에서는 독립 변수를 투입하였으나, 독립 변수인 직업 특성 변수 5가지는 모두 생활 만족도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에서의 예측과 달리 직업 특성은 생활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직업 특성이 생활 만족도와 무관하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선행연구에서는 직업 특성이 직무 만족도를 매개변수로 생활 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김미혜 외, 2013). 또한 이소정(2011)의 지적과 같이 베이비붐 세대가 과거와 달리 직업을 소득 획득 수단을 넘어 직업 자체에 높

은 가치를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임금 노동자의 생활 만족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은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의 상승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β의 절대값 크기를 비교한 결과 임금노동자의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관적 계층의식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한 표는 아래와 같다.

[표10] 제5차 KLoSA 임금 노동자의 생활 만족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N=232)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변수(군)		B	β	t	B	β	t	B	β	t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령	−.173	−.014	−.239 (1.238)	.083	.007	.110 (1.371)	.236	.019	.280 (1.717)
	성별	1.868	.075	1.309 (1.155)	1.587	.064	1.107 (1.183)	.349	.014	.209 (1.624)
	교육수준	.393	.032	.514 (1.339)	.550	.044	.700 (1.431)	−.265	−.021	−.303 (1.805)
	종교유무	.314	.012	.219 (1.134)	−.056	−.002	−.039 (1.180)	.542	.022	.366 (1.249)
	주관적 계층의식	5.468	.480	8.017*** (1.258)	5.514	.485	8.135*** (1.261)	5.178	.455	7.205*** (1.437)
	주관적 건강상태	3.068	.179	3.072** (1.191)	3.074	.180	3.005** (1.268)	2.615	.153	2.537* (1.305)
사회적 연결망	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				.742	.120	2.196* (1.056)	.714	.115	2.105* (1.079)
	참여하는 모임 분야 수				−.323	−.016	−.272 (1.271)	−.274	−.014	−.225 (1.354)
	가구원의 수				.839	.080	1.406 (1.148)	.644	.061	1.063 (1.199)
직업 특성	노동형태							2.775	.104	1.857 (1.140)
	월평균 임금							1.932	.126	1.460 (2.664)
	주당 평균 근무시간							−.017	−.021	−.344 (1.329)
	신체적 직무요구							−1.396	−.083	−1.383 (1.281)
	내용적 직무요구							−.445	−.020	−.309 (1.505)
F		20.877***			14.813***			10.235***		
R^2		.358			.375			.398		
R^2 수정		.340			.350			.359		

*p<0.05, **p<0.01, ***p<0.001, 괄호 안의 수치는 VIF 값.

2. 제5차 KLoSA 자영업자의 직업 특성과 생활 만족도 분석 결과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데이터를 대상으로 자영업자의 직업 특성이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3단계로 이루어진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통제 변수로 투입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성별, 교육수준, 종교유무, 주관적 계층의식, 주관적 건강상태)만을 반영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2단계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와 함께 사회적 연결망 변수(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 참여하는 모임 분야 수, 가구원의 수)를 반영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통제 변수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적 연결망 변수와 더불어 설명 변수인 직업 특성 변수(노동형태, 월평균 임금, 주당 평균 근무시간, 신체적 직무요구, 내용적 직무요구)를 반영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회귀모형의 F 값은 1단계에서 20.365, 2단계에서 14.005, 3단계에서 9.555로 나타나 모두 $p<0.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에서 27.0%(R^2=.270), 2단계에서 27.8%(R^2=.278), 3단계에서 29.3%(R^2=.293)으로 나타났다. 분산팽창인수 VIF 값은 1.075~1.541의 범위 내에서 도출되었으며, 이는 5보다 작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는 1단계에서 교육수준, 주관적 계층의식, 그리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생활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t=2.612$, $p<0.01$)은 생활 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관적 계층의식($t=6.380$)도 생활 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찬가지로 주관적 건강상태 또한 생활 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에서는 1단계와 마찬가지로 교육수준, 주관적 계층 의식, 그리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생활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t=2.419, p<0.05), 주관적 계층의식(t=6.256, p<0.001), 그리고 주관적 건강상태(t=3.640, p<0.001) 모두 생활 만족도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사회적 연결망 변수는 생활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 변수인 직업 특성을 반영한 3단계에서도 인구사회학적 변수만이 생활 만족도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도 1단계와 2단계와 마찬가지로 교육수준, 주관적 계층의식, 그리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생활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교육 수준이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임금 노동자와 차이를 나타낸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원인은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사회적 지위가 과거의 교육 수준에서 고착되는 반면에 임금 노동자는 공식적 조직 내부의 직위를 통하여 사회적 지위가 유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자영업 집단 내부에서도 전문성이 높은 직종의 경우에는 높은 교육 수준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관측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교육 수준을 의도적으로 높이는 정책은 취하기 어렵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노인 대상으로 노인대학,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예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추가적인 교육은 학위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사회적 지위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교육 수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국에서 출신 대학이 갖는 위계적인 낙인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교육 내용과 별개로 이러한 단순한 교육 정책이 교육 수준에 따른 생활 만족도 차이를 극복하게 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한국이 지속적인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가치관 변화를 경험하면서 이러한 교육 수준의 영향력은 장기적으로는 낮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관적 계층의식은 자영업자의 경우 임금 노동자와 마찬가지

로 생활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금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자영업자도 상대적 박탈감이나 양극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나타낸다. 전술한 바와 같이 양극화와 상대적 박탈감의 문제는 중·고령자만의 문제로서 해당 집단만을 대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사회 전반적인 재분배와 더불어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할 수 있는 문화적인 변화가 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진행되어야 중·고령자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는 단기적, 미시적 정책보다는 장기적, 거시적인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 주관적 건강상태 변수는 임금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자영업자의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또한 임금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자영업자의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노동자의 경우에 언급한 바와 같이 주관적 건강상태는 주관적 인식과 판단의 문제라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다만 임금 노동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피고용자가 아니므로 주관적 차원보다는 스스로 고령 친화적 사업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인 관련 산업 등이 육성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연결망 변수 세 가지의 경우에는 임금 노동자와 달리 자영업자의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자영업자가 임금 노동자보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연결망이 위축되어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영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참여의 기회를 보다 다변화할 필요가 존재한다.

독립 변수로 투입한 직업 특성의 경우 생활 만족도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임금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직업 특성이 직무 만족도를 매개변수 삼아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다만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자영업자의 경우 직무 만족도에 대해서도 직업 특성이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결과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업 특성이 자영업자의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 악화에 따라 자영업자가 노동 조건을 고려할 여유가 없다는 비관적 예측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생활 만족도의 경우에도 객관적인 직업 내부의 조건보다도 한국의 생계형 자영업자가 갖는 영세성, 불안정성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β의 절대값 크기를 비교했을 때 주관적 계층의식이 생활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한 표는 아래와 같다.

[표11] 제5차 KLoSA 자영업자의 생활 만족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N=338)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변수(군)		B	β	t	B	β	t	B	β	t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령	−.327	−.031	−.586 (1.305)	−.360	−.035	−.613 (1.450)	−.292	−.028	−.484 (1.541)
	성별	1.505	.057	1.108 (1.184)	1.169	.044	.849 (1.218)	.623	.023	.441 (1.291)
	교육수준	1.588	.139	2.612** (1.288)	1.499	.131	2.419* (1.341)	1.798	.158	2.783* (1.465)
	종교유무	1.597	.068	1.376 (1.097)	1.124	.048	.944 (1.158)	1.170	.050	.968 (1.202)
	주관적 계층의식	3.802	.329	6.380*** (1.206)	3.731	.323	6.256*** (1.211)	3.789	.328	6.174*** (1.289)
	주관적 건강상태	3.184	.199	3.919*** (1.167)	2.984	.186	3.640*** (1.190)	3.194	.199	3.853*** (1.225)
사회적 연결망	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				.281	.051	1.040 (1.075)	.170	.031	.618 (1.122)
	참여하는 모임 분야 수				1.187	.068	1.333 (1.196)	1.261	.073	1.401 (1.232)
	가구원의 수				.074	.007	.140 (1.167)	−.069	−.007	−.131 (1.192)
직업 특성	노동형태							−1.941	−.079	−1.548 (1.193)
	월평균 소득							.563	.065	1.252 (1.218)
	주당 평균 근무시간							.014	.021	.410 (1.246)
	신체적 직무요구							.691	.041	.778 (1.270)
	내용적 직무요구							−1.275	−.052	−1.015 (1.196)
F		20.365***			14.005***			9.555***		
R^2		.270			.278			.293		
R^2 수정		.256			.258			.262		

*p<0.05, **p<0.01, ***p<0.001, 괄호 안의 수치는 VIF 값.

3. 제3차 KLoSA 임금노동자의 직업 특성과 생활 만족도 분석 결과

제3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데이터를 대상으로 임금 노동자의 직업 특성이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3단계로 이루어진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통제 변수로 투입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성별, 교육수준, 종교유무, 주관적 계층의식, 주관적 건강상태)만을 반영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2단계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와 함께 사회적 연결망 변수(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 참여하는 모임 분야 수, 가구원의 수)를 반영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통제 변수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적 연결망 변수와 더불어 설명 변수인 직업 특성 변수(노동형태, 월평균 임금, 주당 평균 근무시간, 신체적 직무요구, 내용적 직무요구)를 반영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회귀모형의 F 값은 1단계에서 40.180, 2단계에서 27.213, 3단계에서 18.482로 나타나 모두 $p<0.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에서 34.5%(R^2=.345), 2단계에서 35.0%(R^2=.350), 3단계에서 36.5%(R^2=.365)으로 나타났다. 분산팽창인수 VIF 값은 1.048~2.510의 범위 내에서 도출되었으며, 이는 5보다 작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임금노동자는 1단계에서 종교유무, 주관적 계층의식, 그리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생활 만족도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 만족도에 대하여 종교유무($t=2.613$, $p<0.01$)는 양(+)의 상관관계, 주관적 계층의식($t=10.199$, $p<0.001$)도 양(+)의 상관관계, 마찬가지로 주관적 건강상태($t=5.236$, $p<0.001$) 또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에서는 종교유무($t=2.522$, $p<0.05$), 주관적 계층의식($t=9.575$, $p<0.001$), 그리고 주관적 건

강상태(t=5.254, p<0.001)이 생활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추가적으로 반영된 사회적 연결망 변수의 경우에는 생활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나타나지 않았다.

독립변수인 직업 특성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3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종교유무(t=2.450, p<0.05), 주관적 계층의식(t=8.577, p<0.001), 그리고 주관적 건강상태(t=4.921, p<0.001) 변수가 생활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 만족도에 대해서는 임금 노동자의 경우 종교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특기할 수 있다. 종교 유무가 직무 만족도와 무관하고 생활 만족도와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결과는 임금노동자가 자영업자와 달리 종교로부터 사적 영역에서 만족감을 얻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와 달리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종교가 사적 영역에 만족감을 줄 수 있으나, 직업의 실제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적 연결망 변수 중에서는 생활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변수가 발견되지 않았다. 임금노동자의 경우에는 직업과 관련한 공적인 사회적 연결망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차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독립 변수인 직업 특성 변수는 제5차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결과는 직업 특성이 생활 만족도와 무관하기 때문에 나타났기 보다는 직업 특성이 직무 만족도를 주요 매개 수단으로 생활 만족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과적으로 생활 만족도의 향상을 위해서는 직무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제3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는 제5차에서의 분석 결과와 달리 내용적 직무 요구 변수가 생활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적 직무 요구(t=−2.120, p<0.05)는 생활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변수간의 반비례 관계는 가설에서의 예측에 부합한다. 그러나 이러한 음(−)의 상관관계는 단순히 내용적 직무 요구도(리더십, 컴퓨터 활용 능력, 집중력과 주의, 어려운 일 수행)가 증가한다는 것은 업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생활 전반의 만족도가 떨어진 결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선행 연구에서 생활 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알려진 직무 만족도의 경우에는 내용적 직무 요구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진 경우도 있었다(제5차 KLoSA의 임금노동자의 직무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참조). 오히려 이러한 음(−)의 상관관계는 생활 만족도의 결정 요인에 대한 분석 중에서 분리 이론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술하자면 분리 이론은 고령자는 점진적으로 사회적 역할로부터 후퇴를 희망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관점에서는 내용적 직무 요구와 생활 만족도의 반비례 관계가 높은 내용적 직무 요구가 사회적 역할로부터의 후퇴에 장애가 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분리 이론을 직접적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직무 만족도와 관련하여 노동형태 변수와 직무 만족도의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어렵다. 양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대안적인 결론이 이어질 수 있다. 중·고령자의 경우에는 높은 직무 몰입이 요구되는 어려운 일의 종사나 높은 신체적 요구가 필요한 직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나, 직업의 안정성은 직업에 대한 만족도에 매우 중요한 평가 요인으로 고려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고령자를 대상으로는 경력이나 경험을 살릴 수 있으면서도 높은 신체적, 정신적 부하가 요구되지 않는 직업을 안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분석 결과가 제3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현재 정책 방향을 이에 맞추는 것은 상대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 β의 절대값 크기를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변수 중

생활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관적 계층의식이다. 이는 임금노동자의 경우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자신의 계층적 지위가 직업에 대한 자기평가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대한 자기 평가를 크게 좌우한다는 점을 나타낸다. 이러한 점에서 양극화의 해소를 위한 수요가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꾸준히 존재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한 표는 아래와 같다.

[표12] 제3차 KLoSA 임금노동자의 생활 만족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N=465)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변수(군)		B	β	t	B	β	t	B	β	t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령	.169	.012	.290 (1.151)	.045	.003	.074 (1.237)	.139	.010	.207 (1.542)
	성별	.609	.020	.477 (1.210)	.798	.026	.620 (1.233)	.125	.004	.088 (1.517)
	교육수준	1.097	.077	1.769 (1.314)	.974	.068	1.557 (1.337)	.915	.064	1.336 (1.625)
	종교유무	2.947	.101	2.613** (1.048)	2.889	.099	2.522* (1.082)	2.808	.096	2.450* (1.098)
	주관적 계층의식	5.626	.432	10.199*** (1.254)	5.415	.416	9.575*** (1.320)	5.124	.393	8.577*** (1.491)
	주관적 건강상태	3.999	.214	5.236*** (1.167)	4.016	.215	5.254*** (1.170)	3.819	.204	4.921*** (1.221)
사회적 연결망	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				.330	.049	1.221 (1.126)	.319	.047	1.176 (1.147)
	참여하는 모임 분야 수				.581	.029	.691 (1.224)	.599	.030	.712 (1.241)
	가구원의 수				−.474	−.039	−.975 (1.093)	−.319	−.026	−.652 (1.118)
직업 특성	노동형태							−.1812	−.058	−1.485 (1.084)
	월평균 임금							1.964	.095	1.602 (2.510)
	주당 평균 근무시간							−.033	−.038	−.912 (1.249)
	신체적 직무요구							−1.249	−.070	−1.650 (1.273)
	내용적 직무요구							−2.743	−.093	−2.120* (1.372)
F		40.180***			27.213***			18.482***		
R^2		.345			.350			.365		
R^2 수정		.336			.337			.345		

*p<0.05, **p<0.01, ***p<0.001, 괄호 안의 수치는 VIF 값.

4. 제3차 KLoSA 자영업자의 직업 특성과 생활 만족도 분석 결과

제3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데이터를 대상으로 자영업자의 직업 특성이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3단계로 이루어진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통제 변수로 투입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성별, 교육수준, 종교유무, 주관적 계층의식, 주관적 건강상태)만을 반영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2단계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와 함께 사회적 연결망 변수(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 참여하는 모임 분야 수, 가구원의 수)를 반영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통제 변수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적 연결망 변수와 더불어 설명 변수인 직업 특성 변수(노동형태, 월평균 임금, 주당 평균 근무시간, 신체적 직무요구, 내용적 직무요구)를 반영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회귀모형의 F 값은 1단계에서 35.465, 2단계에서 27.585, 3단계에서 17.838로 나타나 모두 $p<0.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에서 28.5%(R^2=.285), 2단계에서 31.9%(R^2=.319), 3단계에서 32.2%(R^2=.322)으로 나타났다. 분산팽창인수 VIF 값은 1.072~1.572의 범위 내에서 도출되었으며, 이는 5보다 작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영업자는 1단계에서 교육수준, 종교유무, 주관적 계층의식, 그리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생활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t=3.761$, $p<0.001$)은 생활 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유무($t=2.997$, $p<0.01$)은 생활 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계층의식($t=10.657$, $p<0.001$)은 생활 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마찬가지로 주관적 건강상태($t=2.011$, $p<0.05$) 또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에서는 교육수준, 종교유무,

주관적 계층의식, 그리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1단계와 마찬가지로 생활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자면 교육수준(t=3.564, p<0.001), 종교유무(t=2.255, p<0.05), 주관적 계층의식(t=9.660, p<0.001), 그리고 주관적 건강상태(t=2.120, p<0.01) 모두 생활 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연결망 변수 중에서는 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t=3.087, p<0.01)와 참여하는 모임 분야 수(t=3.249, p<0.01)가 모두 생활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 변수를 반영한 3단계의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교육수준(t=3.348, p<0.01), 종교유무(t=2.117, p<0.05), 주관적 계층의식(t=9.555, p<0.001), 그리고 주관적 건강상태(t=2.216, p<0.05) 모두 생활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교육수준은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자영업자의 경우 임금노동자와 달리 조직 내 직급 상승을 통한 사회적 지위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고, 기존의 교육 수준이 사회적 지위를 고착시키는 경향에 따라 이러한 차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수준은 사회적 직위를 규정하고, 사회적 지위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수준과 생활 만족도가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언급했으나 이러한 교육 수준의 문제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노인대학 설립이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극복하기 어렵다. 한국에서 사회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수준의 척도는 학부인 경우가 많으며, 현재 각지의 경영대학원이나 행정대학원에서 주재하는 각종 프로그램은 교육 목적보다는 사교활동의 장으로서의 기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교육 수준에 따른 격차의 해소에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교육 수준의 문제는 장기적으로 저출산에 따른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사회 문화가 변화하면서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제3차 고령화연구패널에서

종교유무 변수는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모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나, 양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종교는 임금노동자의 경우에는 공적 조직과 분리되어 사적인 사회적 연결망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자영업자에게는 사적인 사회적 연결망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종교가 주변의 상권, 나아가서는 자영업의 성패 자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한 있기 때문이다. 주관적 계층의식에 대해서는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의 경우에도 사회적 양극화문제가 상존했음을 나타낸다.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주관적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건강에 대한 판단 기준의 전환과 더불어 이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의 재정비가 장기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연결망 변수 중 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t=3.215$, $p<0.01$)과 참여하는 모임 분야 수($t=3.070$, $p<0.01$)가 생활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자영업자의 직무 만족도의 경우에는 양 변수가 상반된 결과를 가져온 것과 달리 제3차의 생활만족도의 경우에는 상기한 바와 같이 유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은 특기할만하다. 여기서 사회적 연결망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만 사회적 연결망이 직무 만족도의 경우에는 정보의 교류나 상호 비교를 통하여 상반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본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생활 만족도의 경우에는 선행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로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직무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직업 활동과 괴리된 사회 참여에만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고 지적한 바 있으나, 생활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사회적 참여 정책을 제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에서는 승계 및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의 경우에는 직업을 주된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해

당 계획을 필수적으로 승계할 필요는 없으나, 중·고령자의 지속적 사회 참여의 촉진 차원에서 도입하는 것 또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된다.

독립 변수인 직업 특성의 경우에는 생활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변수가 없었다. 정리하자면 자영업자의 경우 생활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직업 특성 변수는 없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직업 특성이 생활 만족도와 완전히 무관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직업 특성이 직무 만족도를 매개 변수로 하여 생활 만족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자영업자의 경우 제3차와 비교했을 때 앞서 언급한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직무 만족도의 결정 요인의 분석 결과 과거와 달리 직업 특성이 크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러한 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영업자의 영세성과 불안정성이라는 요인에 의한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자영업자의 영세성과 불안정성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의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β의 절대값 크기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주관적 계층의식이 생활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한 표는 아래와 같다.

[표13] 제3차 KLoSA 자영업자의 생활 만족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N=540)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변수(군)		B	β	t	B	β	t	B	β	t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령	.080	.007	.160 (1.297)	.268	.022	.530 (1.378)	.250	.021	.474 (1.486)
	성별	1.686	.050	1.266 (1.165)	.501	.015	.378 (1.205)	.691	.021	.511 (1.250)
	교육수준	2.030	.159	3.761*** (1.330)	1.906	.149	3.564*** (1.363)	1.928	.151	3.348** (1.572)
	종교유무	3.006	.112	2.997** (1.044)	2.245	.084	2.255* (1.072)	2.127	.079	2.117* (1.088)
	주관적 계층의식	5.231	.414	10.657*** (1.124)	4.768	.377	9.660*** (1.186)	4.800	.380	9.555*** (1.223)
	주관적 건강상태	1.326	.080	2.011* (1.169)	1.371	.082	2.120* (1.175)	1.383	.083	2.216* (1.182)
사회적 연결망	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				.779	.115	3.087** (1.076)	.821	.121	3.215** (1.098)
	참여하는 모임 분야 수				2.218	.130	3.249** (1.248)	2.134	.125	3.070** (1.289)
	가구원의 수				.145	.012	.324 (1.089)	.166	.014	.370 (1.099)
직업 특성	노동형태							1.780	.063	1.577 (1.226)
	월평균 소득							−.141	−.014	−.354 (1.194)
	주당 평균 근무시간							−.011	−.015	−.397 (1.149)
	신체적 직무요구							.290	.017	.418 (1.247)
	내용적 직무요구							−.107	−.004	−.101 (1.314)
F		35.465***			27.585***			17.838***		
R^2		.285			.319			.322		
R^2 수정		.277			.307			.304		

*p<0.05, **p<0.01, ***p<0.001, 괄호 안의 수치는 VIF 값.

5. 제1차 KLoSA 임금노동자의 직업 특성과 생활 만족도 분석 결과

제1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데이터를 대상으로 임금노동자의 직업 특성이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3단계로 이루어진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통제 변수로 투입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성별, 교육수준, 종교유무, 주관적 건강상태)만을 반영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2단계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와 함께 사회적 연결망 변수(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 참여하는 모임 분야 수, 가구원의 수)를 반영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통제 변수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적 연결망 변수와 더불어 설명 변수인 직업 특성 변수(월평균 임금, 주당 평균 근무시간, 신체적 직무요구, 내용적 직무요구)를 반영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1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는 후속 패널 조사와 달리 주관적 계층의식과 노동형태(근무 시간의 규칙성 여부)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를 제외한 모형을 사용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회귀모형의 F 값은 1단계에서 23.047, 2단계에서 16.827, 3단계에서 15.425로 나타나 모두 $p<0.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에서 16.2%(R^2=.162), 2단계에서 18.5%(R^2=.185), 3단계에서 23.9%(R^2=.239)으로 나타났다. 분산팽창인수 VIF 값은 1.017~2.249의 범위 내에서 도출되었으며, 이는 5보다 작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임금노동자는 1단계에서 연령, 교육수준, 종교유무, 주관적 건강상태가 생활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t=-1.975$, $p<0.05$)는 생활 만족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와 달리 교육수준($t=5.760$, $p<0.001$), 종교유무($t=2.307$, $p<0.05$), 그리고 주관적 건강상태($t=5.517$,

p<0.001)는 생활 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2단계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 교육수준(t=4.795, p<0.001)과 건강상태(t=5.661, p<0.001)가 생활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연결망 변수 중에서는 참여하는 모임 분야 수 변수만이 생활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하는 모임 분야 수(t=2.929, p<0.01)는 생활 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독립 변수를 반영한 3단계 회귀모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에서는 종교유무와 주관적 건강상태가 생활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유무(t=2.101, p<0.05)와 주관적 건강상태(t=4.835, p<0.001) 모두 생활 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종교에 대해서는 제3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와 마찬가지로 임금노동자는 종교가 사적인 영역에서 만족감을 높인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에는 본 연구의 범위인 제5차, 제3차, 그리고 제1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전부에서 임금노동자의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강에 대한 사회적으로 구성된 판단 기준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서는 판단 기준의 변화의 결과이자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적 기반 시설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적 연결망 변수 중에서는 생활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없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제3차에서의 분석 결과와 동일하나 제5차에서 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 변수가 생활 만족도와 유의한 수준의 상관관계를 가졌다는 점과 차이를 나타냈다. 독립 변수인 직업 특성 변수 중에서는 월평균 임금만이 생활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임금(t=4.853, p<0.001)은 생활 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는 가설에서 예측한 결과와 부합한다. 이러한 차이는 과거에는 현재보다 절대적 소득의 크기의 중요성이 단순히 현재 직업 활동을 유지하는 것보다 중요했다는 사실을 나타냈다. 제1차 고령화 연구패널조사가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조사되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변화는 경기의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β의 절대값 크기를 비교했을 때 생활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서는 월평균 임금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바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과거에는 현재 직업의 유지보다 절대적 소득의 크기를 매우 중시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게끔 한다.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한 표는 아래와 같다.

[표14] 제1차 KLoSA 임금 노동자의 생활 만족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N=603)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변수(군)		B	β	t	B	β	t	B	β	t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령	−1.301	−.076	−1.975* (1.051)	−1.074	−.063	−1.625 (1.083)	.339	.020	.479 (1.320)
	성별	2.126	.058	1.418 (1.194)	2.108	.058	1.413 (1.209)	−.730	−.020	−.470 (1.394)
	교육수준	3.543	.236	5.760*** (1.191)	3.022	.201	4.795*** (1.279)	1.083	.072	1.548 (1.677)
	종교유무	2.720	.087	2.307* (1.017)	1.922	.062	1.614 (1.061)	2.436	.078	2.101* (1.070)
	주관적 건강상태	3.937	.216	5.517*** (1.091)	3.998	.219	5.661*** (1.093)	3.352	.184	4.835*** (1.120)
사회적 연결망	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				.280	.050	1.241 (1.172)	.283	.050	1.293 (1.177)
	참여하는 모임 분야 수				2.154	.125	2.929** (1.327)	1.325	.077	1.825 (1.374)
	가구원의 수				−.765	−.055	−1.443 (1.043)	−.952	−.068	−1.847 (1.048)
직업 특성	월평균 임금							5.816	.261	4.853*** (2.249)
	주당 평균 근무시간							−.034	−.040	−1.081 (1.052)
	신체적 직무요구							−1.299	−.071	−1.736 (1.308)
	내용적 직무요구							1.774	.063	1.431 (1.523)
F		23.047***			16.827***			15.425***		
R^2		.162			.185			.239		
R^2 수정		.155			.174			.223		

*p<0.05, **p<0.01, ***p<0.001, 괄호 안의 수치는 VIF 값.

6. 제1차 KLoSA 자영업자의 직업 특성과 생활 만족도 분석 결과

제1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데이터를 대상으로 자영업자의 직업 특성이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3단계로 이루어진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통제 변수로 투입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성별, 교육수준, 종교유무, 주관적 건강상태)만을 반영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2단계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와 함께 사회적 연결망 변수(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 참여하는 모임 분야 수, 가구원의 수)를 반영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통제 변수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적 연결망 변수와 더불어 설명 변수인 직업 특성 변수(월평균 임금, 주당 평균 근무시간, 신체적 직무요구, 내용적 직무요구)를 반영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1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는 후속 패널 조사와 달리 주관적 계층의식과 노동형태(근무 시간의 규칙성 여부)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를 제외한 모형을 사용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회귀모형의 F 값은 1단계에서 28.722, 2단계에서 23.000, 3단계에서 15.349로 나타나 모두 $p<0.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에서 16.8%(R^2=.168), 2단계에서 20.6%(R^2=.206), 3단계에서 20.7%(R^2=.207)으로 나타났다. 분산팽창인수 VIF 값은 1.024~1.316의 범위 내에서 도출되었으며, 이는 5보다 작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영업자의 경우 1단계에서 생활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성별, 교육수준, 그리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있다. 성별($t=2.051$, $p<0.05$), 교육수준($t=3.179$, $p<0.01$), 그리고 주관적 건강상태($t=8.764$, $p<0.001$) 모두 생활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 교육수준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생활 만

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상술하자면 교육수준(t=2.515, p<0.05)과 주관적 건강상태(t=8.704, p<0.001) 모두 생활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연결망 변수 중에서는 참여하는 모임 분야 수(t=4.552, p<0.001) 변수가 생활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 변수를 반영한 3단계 모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에서는 교육수준과 주관적 건강상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t=2.071, p<0.05)과 주관적 건강상태(t=8.638, p<0.001)는 생활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전 기간에 걸쳐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자영업자는 과거의 교육수준에 의하여 사회적 지위가 고착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에는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중요했으며, 주관적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의 개선과 더불어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판단 기준의 변화가 요구될 것이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사회적 연결망 변수 중에서는 2단계와 마찬가지로 참여하는 모임 분야 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하는 모임 분야 수(t=4.453, p<0.001)는 생활 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열결망 중에서 약한 연결이 과거에도 직무 만족도뿐만 아니라 생활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 차후에도 사회적 연결망을 확대시키기 위한 중·고령자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독립 변수인 직업 특성 변수 중에서는 생활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없었다. 변수들의 β의 절대값을 비교했을 때 주관적 건강상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5] 제1차 KLoSA 자영업자의 생활 만족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N=717)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변수(군)		B	β	t	B	β	t	B	β	t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령	−.298	−.024	−.629 (1.207)	−.135	−.011	−.283 (1.275)	−.126	−.010	−.261 (1.313)
	성별	3.033	.074	2.051* (1.107)	1.898	.046	1.295 (1.135)	1.937	.047	−1.304 (1.160)
	교육수준	1.594	.120	3.179** (1.219)	1.283	.097	2.515* (1.316)	1.148	.086	2.071* (1.547)
	종교유무	1.422	.051	1.474 (1.024)	.896	.032	.941 (1.041)	.898	.032	.937 (1.051)
	주관적 건강상태	5.189	.325	8.764*** (1.173)	5.055	.316	8.704*** (1.178)	5.033	.315	8.638*** (1.180)
사회적 연결망	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				.390	.067	1.886 (1.140)	.380	.066	1.821 (1.154)
	참여하는 모임 분야 수				2.599	.172	4.552*** (1.268)	2.562	.169	4.453*** (1.282)
	가구원의 수				−.282	−.022	−.644 (1.081)	−.274	−.022	−.623 (1.092)
직업 특성	월평균 수입							.121	.013	.360 (1.157)
	주당 평균 근무시간							−.014	−.020	−.593 (1.034)
	신체적 직무요구							−.372	−.022	−.572 (1.270)
	내용적 직무요구							−.226	−.008	−.222 (1.114)
F		28.772***			23.000***			15.349***		
R^2		.168			.206			.207		
R^2 수정		.162			.197			.194		

*p<0.05, **p<0.01, ***p<0.001, 괄호 안의 수치는 VIF 값.

제 4 절 분석 결과의 정리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수, 사회적 연결망 변수를 통제 변수로 투입하고, 직업 특성 변수를 독립 변수로 투입하여 종속 변수인 직무 만족도와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종속 변수에 대한 영향 요인에 대한 분석은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2014년, 2010년, 그리고 2006년에 각각 수집된 제5차, 제3차, 제1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데이터를 대상으로 반복 시행되었다. 그 결과 제5차, 제3차, 그리고 제1차 자료에서 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간에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구성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했다. 나아가 제5차, 제3차, 그리고 제1차에 걸쳐 임금 노동자 집단과 자영업자 집단 내에서도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구성에 있어 변화가 관측되었다. 거시적으로는 제1차와 제3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차이보다 제3차와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 침체가 2011년도 전후로 고착화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앞서 직무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라는 두 집단을 분리하여 분석 결과를 정리하였으나 여기서는 직무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변수 중심으로 시계열적인 변화를 포함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인구사회학적 변수가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연령 변수와 교육수준 변수는 전체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에 걸쳐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라는 두 집단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직무 만족도가 연령에 영향을 받는다는 Kalleberg 외(1977)의 분석 결과와 다른 것이다. 성별 변수의 경우에는 제1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만 임금

노동자의 직무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자면 여성이 남성보다 직무 만족도가 높은 경향이 관측되었다. 종교 유무 변수의 경우에는 제1차와 제3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자영업자에 국한하여 직무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할 점은 제1차의 경우에는 종교가 있다는 것이 자영업자의 직무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과 달리 제3차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경우에는 종교유무가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모두에 대하여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나타났다.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변수는 주관적 계층의식 변수이다[33]. 주관적 계층의식 변수는 제5차와 제3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 모두에 대하여 직무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β 계수의 크기를 통하여 보았을 때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제5차와 제3차 모두에서 주관적 계층의식이 종속 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계층의식 내지는 계급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임금 노동자의 경우에는 주관적 계층의식이 종속 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직무 만족도에 대해서는 직업 특성 변수 중 신체적 직무요구(제3차), 내용적 직무요구(제5차)가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34]

직무 만족도에 사회적 연결망 변수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 변수의 경우 제1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임금 노동자의 직무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변수는 제3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는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모두에 대

33) 전술한 바와 같이 제1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는 해당 항목이 설문 조사에 포함되지 않아 분석에서도 누락되었다.

34)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노동자의 경우에도 주관적 계층의식의 β값의 크기는 제5차와 제3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모형에서 모두 2위를 차지하였다.

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연결망 이론이 주장하는 사회적 연결망의 긍정적 효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 변수는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는 특기할만한 변화를 나타냈다. 제5차에서는 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 변수가 임금 노동자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고,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미쳤으나 이러한 영향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자면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가 증가할수록 직무 만족도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참여하는 모임의 분야 수 변수의 경우에는 제1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만 직무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제5차에서도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3차에서는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자영업자에 대하여 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참여하는 모임의 분야의 수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반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강한 연결의 강화를 의미하는데, 이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반대로 상대적 박탈감 등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적 연결망의 강화가 단순히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은 선행 연구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이민아, 2013). 이와 달리 참여하는 모임의 분야 수는 사회적 연결망의 양적 측면이자 약한 연결의 척도로 볼 수 있다. 이때 Granovetter(1973)의 이론을 적용하자면 약한 연결의 증가는 자영업에 필수적인 정보나 자원의 확보에 이득이 될 수 있다. 가구원의 수 변수의 경우에는 전체 자료에서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모두에 대하여 직무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특성이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동형태[35]의 경우 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 모두에 있어

직무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나타났다. 다만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자영업자는 노동 형태가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임금(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순수입)의 경우에는 제1차와 제3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데이터에서는 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5차에서는 두 집단 모두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임금(수입)에서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원인으로는 이소정(2011)이 지적한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가치관의 변화를 지목할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에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소득 확보라는 경제적 이유로 지속적인 직업 활동을 희망하나, 이와 동시에 자아실현이나 학습이라는 부가적인 요인을 이유로 직업 활동에 종사하기 때문에 임금의 절대 크기가 과거와 달리 핵심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를 이해할 수 있다. 아니면 이와 반대로 최소한의 소득 획득을 희망하기 때문에 소득의 절대 크기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다는 비관적 예측도 가능하다. 근무 시간의 경우에는 제1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경우에서는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직무 요구의 경우에는 임금 노동자에 있어 제5차, 제3차, 그리고 제1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는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모두의 경우 직무 만족도에 대하여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일관적인 결과가 관측되었다. 그러나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제1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난 것 외에는 제3차와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임금노동자의 경우에는 직업 조건이 여전히 중요한 반면에 자영업자의 경

35) 전술한 바와 같이 제1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경우 노동형태(근무 시간의 규칙성 여부)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의 제1차 KLoSA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이를 제외하였다.

우에는 객관적 직업 조건보다도 다른 조건(소득 확보 등)이 더 중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월평균 임금(순소득)에 대한 분석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내용적 직무 요구의 경우에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제3차와 제1차 자료에서는 직무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5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노동자의 경우에는 제5차에서만 내용적 직무 요구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β의 크기 또한 제5차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최근(제5차)에서는 신체적 직무 요구와 마찬가지로 노동 조건 자체가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나타낸다. 이와 달리 임금 노동자의 경우 직업과 직위를 통한 자아실현이라는 베이비붐 세대의 가치관의 변화가 이러한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직무 만족도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자면 자영업자의 경우 제1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사회적 연결망 변수, 그리고 직업 특성 변수가 골고루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장 최근에 수집된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는 인구 사회학적 변수 중 주관적 계층의식과 사회적 연결망 변수가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주며, 직업 특성 변수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임금 노동자의 경우 제1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는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세 범주의 변수 모두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는 상이한 양상을 나타낸다. 임금 노동자의 경우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주관적 계층의식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는 자영업자와 유사하나, 자영업자와 달리 직업 특성 변수가 여전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생활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라는 두 집단을 분리하여 분석 결과를 정리하였으나 여기서는 생

활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변수 중심으로 시계열적인 변화를 포함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인구사회학적 변수가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연령과 성별은 전체 자료에서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라는 두 집단에 대하여 생활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교육수준은 제1차, 제3차, 그리고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임금노동자의 경우에는 전체 자료에서 교육 수준이 생활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원인은 임금노동자가 직장 내에서의 승진으로 사회적 지위의 상승을 누릴 수 있는 것과 달리, 승진을 기대할 수 없는 자영업자는 과거의 교육수준이 현재의 사회적 지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생활 만족도의 경우에는 직무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 주관적 계층의식 변수가 가장 두드러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6] 주관적 계층의식은 제3차와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생활만족도에 대하여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β의 절대값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서 주관적 계층의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주관적 계층의식에 대한 분석 결과는 직무 만족도에 대한 두 집단의 분석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주관적 계층의식이 직무 만족도와 생활 만족도 양자에 대하여 갖는 영향력은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대적 박탈감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모든 기간에 걸쳐 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 모두에 대하여 생활 만족도에 유의한

36) 전술한 바와 같이 제1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는 해당 항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제1차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를 제외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생활 만족도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건강만이 아닌 건강 상태에 대한 주관적 자가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연결망 변수는 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라는 두 집단 모두에서 뚜렷한 경향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의 경우에는 제3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자영업자의 생활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임금노동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해당 변수는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임금노동자의 생활 만족도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영업자에게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제3차와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원인으로는 직무 만족도와 달리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사회적 연결망의 부정적 영향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직무 만족도와 달리 부정적 영향이 관측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변화는 자영업자의 사회적 연결망으로부터 상대적 단절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참여하는 모임의 분야 수 변수의 경우에는 제1차와 제3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생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는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모두에 대하여 생활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하는 모임의 분야 수 변수의 이러한 변화는 특히 자영업자의 사회적 연결망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구원의 수 변수의 경우에는 직무 만족도에 대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생활 만족도에 대해서도 모든 경우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특성 변수가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노동형태 변수, 근무 시간 변수, 그리고 신체적 직무 요구 변수는 전체 자료의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두 집단의 생활 만족도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임금의 경우에는 제1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임금노동자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직무 만족도와 달리 베이비붐 세대의 진입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없다. 이는 과도기로 볼 수 있는 제3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도 제5차와 동일한 변화가 관측되었고,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제1차에서도 월평균 수입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오히려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모두가 소득의 절대적 상승을 기대하기 보다는 최소한의 소득이라도 확보하려하기 때문이라는 비관적 예측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내용적 직무 요구에 대해서는 제3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임금노동자의 생활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전술한 바와 같이 생활 만족도의 결정 요인에 대한 분석 중에서 분리 이론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생활 만족도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자면 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 모두에 있어 인구사회학적 변수가 중요한 요인임이 드러났다. 특히 주관적 계층의식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 집단 모두에 대하여 생활 만족도에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나타났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교육수준은 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변수이다. 이러한 차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직장 내에서의 지위로 어느 정도 사회적 인정을 확보할 수 있는 임금 노동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사회적 지위에 있어 과거의 교육수준이 지속적인 낙인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독립 변수인 직업 특성의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생활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직업 특성이 생활 만족도와 무관하다고 추단하는 것은 성급한 결론일 수 있다. 김미혜 외(2013)는 제2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분석한 결과 직업 특성이 직무 만족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나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내놓았다. 그러나 김미혜 외(2013)는 경로 분석을 추가적으로 진행한 결과 직업 특성이 직무 만족도를 매개로하여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혀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도 직업 특성이 생활 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만을 갖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박현숙 외(2013)가 제시한 직무 만족도가 생활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점은 더욱 명백하다고 볼 수 있다.

제 5 절 정책적 함의

1. 직무 만족도 관련 정책적 함의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자의 직무 만족도의 분석결과로부터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직무 만족도의 경우에는 직업 변수의 영향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기에 직업 특성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우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신체적, 내용적 직무 요구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신체적 직무 요구가 임금 노동자의 경우에 일관적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이철선(2012)의 지적과 같이 중·고령자가 종사하고 있는 직업 활동은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등 객관적 조건 측면에서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신체적 직무 요구와 관련해서는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서도 고령근로자 친화형 작업환경 개선 지원 정책을 명시하여 장기적으로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내용적 직무 요구의 경우에는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임금 노동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술한

바와 같이 내용적 직무 요구는 단순한 근무 조건을 넘어 사회적 지위 상승과 사회적 인정을 통한 자아실현 등과 연계되어 있는 문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내용적 직무 요구의 직무 만족도에 대한 영향과 관련해서는 노동형태(본 연구에서는 '근무 시간의 규칙성 여부'를 활용)의 분석 결과로부터 중요한 정책적 쟁점을 이끌어낼 수 있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경우에는 임금 피크제와 근로 시간 단축 활성화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임금피크제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역할 및 지위의 감소와 근무 시간의 불규칙성[37]은 직무 만족도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신체적·내용적 직무 요구의 통계 분석 결과를 종합하자면 중·고령자가 건강 등의 문제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육체적 힘이 드는 업무를 기피하면서도 사회적 인정과 리더십 발휘 등과 관련된 내용적 차원의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응전할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이철선(2012)의 주장과 같이 중·고령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 단축보다는 중·고령자가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고 리더십을 발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 재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월평균 임금(수입)의 경우에는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모두에 대하여 과거(제1차, 제3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와 달리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는 직무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는 이소정(2011)의 지적과 같이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의 진입에 따른 가치관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소득의 증가보다는 현재 있는 소득이라도 유지하려는

37)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는 단순히 근무 시간의 규칙성 뿐만 아니라 상용직/비상용직 여부 또한 임금 노동자의 직무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각주-31 참조)을 나타낸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상용직의 감축은 직무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향에 따른 결과로 보는 비관적인 해석 또한 가능하다. 특히 이러한 변화를 노인의 소득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여전히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일자리 정책을 임금피크제와 연계된 정년 연장이라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한계가 있다. 물론 정부가 일자리의 임금 수준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일본 정부가 임금피크제 등 제약 조건을 부가하지 않은 정년 연장을 통하여 중·고령자의 성공적인 일자리 종사를 이끌어냈고, 정부 또한 고령화에 따른 숙련 인력의 은퇴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감소할 것을 예측하고 있다는 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6)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조건부 정년 연장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직업 특성이 직무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는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한국의 자영업자 중에서 타국보다 생계형 창업 비중이 높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38] 생계형 창업의 경우에는 현재 소득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기에 다른 노동의 부가조건을 고려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창업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악화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시니어창업스쿨, 협동조합 활성화, 사회적 기업 지원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창업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의 자영업자들이 현재 사업의 영세성을 통하여 낮은 안정성에 직면해있고, 생계형 창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활용할 수 있는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한 점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중·고령자의 낮은 시민사회 발달 정도나 사회적 자본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협동조합이 정부 주도로 활

38)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국의 생계형 창업 비중은 36.5%로 타국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6).

성화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노인 취업 지원 차원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의 공동 출자를 통한 시민사회와 협동조합이 중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남경희 외(2013)의 지적과 같이 정부의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고령 공동체의 활성화를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차이는 사회적 연결망 차원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임금노동자의 직무 만족도에 사회적 연결망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 반면에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강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다만 특기할만한 점은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자영업자의 경우 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는 직무 만족도에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반면에 참여하는 모임의 분야 수가 증가할수록 직무 만족도가 증가한다는 점이다. 우선 자영업자의 경우에만 사회적 연결망[39]이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임금노동자의 경우 조직 내의 공식적 연결망에 의존도가 높은 반면에 자영업자는 사적 네트워크에 의존도가 높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40] 다음으로 사회적 연결망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은 주관적 계층의식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사회적 연결망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는 공존한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중·고령자의 사회적 관계망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사회적 연결망의 확충 방안으로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경우에는 교통 지

39) 본 연구에서 정의한 사회적 연결망은 사적 네트워크의 구조적 측면에 한정되어 있다.

40) 전술한 바와 같이 자영업자의 경우 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는 강한 연결의 증가를 의미한다. 강한 연결의 증가는 이민아(2013)의 지적과 같이 상호 비교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증가 등 사회적 연결망의 부정적인 영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와 달리 참여하는 모임의 분야 수는 약한 연결의 증가를 의미하며, 필요한 자원이나 정보의 유통을 가져와 직무 만족도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서초3동의 사랑의교회의 건립 이후 인접 상권의 교회 식권 유통을 고려했을 때, (종교)모임의 참여는 자영업자의 사업 성공 여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도 등이 안배되어 있으나 이는 사적 네트워크에 집중하여 직무와 관련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사회적 연결망이 여전히 매우 중요하게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상기한 협동조합이나 시민사회의 발전을 통하여 사업 관련 사회적 관계망을 집중적으로 확충하거나 인적 네트워크 전반을 재고하는 방향으로 제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이 치중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중·고령자의 직무 만족도에 일관적(제3차와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난 변수는 주관적 계층의식 변수이다. 해당 변수는 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라는 두 집단 모두에게서 직무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β 기준으로 가장 큰 영향을 갖는 변수로 볼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주변 사람들과의 접촉과정에서 일어나는 상호간의 비교는 사회적 연결망이 자신의 직무에 대한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 주관적 계층의식의 중요성은 한국 사회의 양극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된 경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41] 저축, 자산 및 연금 소득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 중·고령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양극화가 완전히 고착된 상황에 머무르게 되고, 정부도 공적 연금만으로는 빈곤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6). 나아가 단순한 기초연금의 확대는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복지 지출의 증가에 따른 재정 악화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주관적 계층의식의 문제는 중·고령자만의 문제보다는 사회 전체에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로 보인다.

41) 실제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도 연금제도 미성숙으로 인하여 노인의 빈곤률이 4.96%로 OECD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6, p. 16).

2. 생활 만족도 관련 정책적 함의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자의 생활 만족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중·고령자의 생활 만족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독립 변수인 직업 관련 변인의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임금노동자의 경우 제1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월평균 임금이, 제3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내용적 직무 요구가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직업 특성이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김미혜 외(2013)의 직업 특성이 생활 만족도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와 부합하는 것이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직무 만족도가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제외한 바 있으나, 선행 연구에서 직무 만족도가 생활 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점(김미혜 외, 2013; 박현숙 외, 2013)을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생활 만족도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직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요구된다. 직무 만족도와 직업 특성과의 관계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전술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사업의 영세성 및 생계형 창업 경향과 더불어 전반적인 노인 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자면 직업 특성이 생활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순히 치부하기에는 부족한 점도 있다. 대안적인 설명으로는 고용의 불안정성과 노인의 빈곤 심화에 따라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모두 직업 특성에 대한 고려를 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직업 특성이 생활 만족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다시 말하자면 현재의 소득 확보 수단의 유지에 치중한 나머지 객관적·주관적 직업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불가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비관적인 해석의 경우에도 정책 방향은 직무 만족도의 전반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사회적 연결망 관련 변수 중 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는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임금노동자 집단에 있어서는 생활 만족도에 유의한 수준의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연결망 변수는 없었다.[42] 다시 말하자면 자영업자의 경우 사회적 연결망이 직업과 관련해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생활 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나타낸다.[43] 이러한 점은 제3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사회적 연결망이 자영업자의 생활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는 것과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연결망이 정신적 건강 등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와 상반되는 것이다(김동철 외, 2016; 장수지, 2010). 과거 데이터와 선행 연구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현상은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적 연결망이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사회적 연결망으로부터의 단절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중·고령자의 사회적 연결망을 확대시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사회적 단절에 대하여 컨텐츠 개발, 문화 지원 확대, 자원봉사지원체계 확대, 평생 교육 등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 또한 정부는 세대 간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가족의 날, 교통지도, 이야기 할머니 사업, 학생-독거노인 결연, 밥상머리 교육 활성화 등의 정책을 안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정부 중심의 지원 정책이라는 점 및 전통적 가치의 부활을 내걸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연결망의 실질적인 생활 만족도에 대한 기여를 위해서는 단순한 정부의

42) 직무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자영업자의 경우 사회적 연결망이 유의한 영향을 가지며, 반대로 임금 노동자의 경우 유의한 영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전술한 바와 같이 자영업자의 사업에는 사적 네트워크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각주-40 참조), 이것이 반드시 만족도와 연계된다는 보장이 없다. 직무 만족도가 생활 만족도에 미칠 영향과 특히 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가 직무 만족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회적 연결망이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복합적임을 유추할 수 있다.

급부 형식의 정책이나 전통적 가치로의 회귀가 아닌 시민 사회의 발전이 필요하다. 특히 일본과 같이 노인 중심의 시민 사회의 발전은 사회적 연결망의 확충을 통한 정신건강 및 생활 만족도의 개선과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일본과 같이 시민 사회 중심의 노인 취업 지원 등을 유도하는 선순환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생활 만족도의 경우에도 직무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모두에 대하여 주관적 건강상태와 주관적 계층의식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주관적 계층의식의 경우에는 직무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중·고령자만의 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측정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건강 상태에 대한 기준에 대하여 중·고령자가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인식한 건강의 정도를 의미한다.[44] 주관적 건강상태의 개선을 위해서는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보건 시스템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구성된 건강 상태에 대한 기준의 점진적 변화 또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작업 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중·고령자가 이전 세대 못지않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중·고령자의 역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고령친화 작업장 개선 정책과 '고령' 기준 재정립을 위한 사회적 합의방안 마련을 추진할 것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다만 고령친화 작업장 개선 정책은 우수 기업에 대한 포상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구속력이 부족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정책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내부 논의로 주도되어 이러한 정부 주도의 노력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장기적으로는 보건 정책과 중·고령자의 사회적 참여를 위한 인프라의 확충 및 관련 제도의 구속력 강화, 그리고 정부 중심이 아닌 보다 광의의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

44) 건강상태에 대한 사회적 기준은 주관적 차원의 문제도 있을 수 있으나 객관적 조건 자체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로 보인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임금노동자와 달리 제5차, 제3차, 그리고 제1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전부에서 교육수준이 생활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금노동자가 직장 내의 승진을 통하여 사회적 지위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에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과거의 교육 수준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고착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노인 대상 교육 정책으로 대표적으로 노인 대학이나 평생 교육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정책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인다는 차원에서는 중요하나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지위의 이동이라는 현재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가치관 변화에 따라 현재 한국에 존재하는 출신 대학에 따른 엄격한 위계질서가 약화될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장기적인 변화에 대해서만 의존하기 보다는 중·고령자의 재취업 및 생활 만족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하여 정책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 5 장 결론

한국은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면서 앞서 고령사회로 진입한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 경험하고 있는 고령화의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다. 고령화의 부작용으로는 대표적으로 복지 부담의 증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그리고 자본 유출 등의 문제가 알려져 있으며, 이에 대한 복합적인 대책으로서 일자리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올해인 2016년에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행되었고, 2017년에는 보다 고령자의 일자리 정책에 치중한 제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이 수립 및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직업 특성이 직무 만족도와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제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과 관련한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중·고령자의 직무 만족도는 다양한 직업 특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라는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직업 관련 변인 외에도 사회적 연결망이나 주관적 계층의식 등이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직무 만족도에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혀냈다. 생활 만족도의 경우에는 직업 특성보다는 사회경제적 조건에 의하여 결정되는 부분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직무 만족도가 매개변수로 작용하여 직업 특성이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 연구를 감안해야 한다(김미혜 외, 2013). 특히 생활 만족도에는 주관적 계층의식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시계열적으로는 자영업자의 경우 과거(2006년)에는 직업 특성이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했다면 보다 최근(2014년)에는 사회경제적 조건과 사회적 연결망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영업자의 경우 사회적 연

결망 또한 과거(2006년, 2010년)와 달리 현재에 사회적 연결망이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점이 드러나 자영업자가 임금 노동자보다 더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고령 친화적 사업장, 세대 간 이해 증진, 정년 확대 등의 유의미한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제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까지 이어진 정부 중심의 양적 정책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고령자의 역할 제고, 고령 시민 사회의 활성화, 사회적 연결망의 확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고령화에 대한 대응은 중·고령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양극화의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투입 변수의 확대, 시계열적 분석, 그리고 사회적 연결망 변수의 도입 등을 시도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했다. 그러나 본 연구가 많은 한계가 갖는 것도 사실이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제1차 조사의 인원을 대상으로 반복 설문 조사를 시행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데이터가 높은 원표본 유지율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노환이나 질병으로 인한 죽음으로 인하여 이탈하는 인원과 더불어 대상 집단 내부에서도 이직, 퇴직, 창업을 시도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제1차, 제3차,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데이터에 대한 분석에서 동일한 인원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활용한 연구 방법만으로는 단순 비교 외에 통계적인 시계열 분석은 어렵다고 본다. 나아가 고령화연구패널조사가 현재(2016년) 기준으로 제5차 조사 결과만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데이터가 누적되었을 때 비로소 단순 비교가 아닌 통계적 차원의 시계열 분석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 중 하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임금노동자와 동일한 항목을 최대한 포함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통계 분석 결과 척도의 신뢰도 검정이나 모형 자체의 설명력이 임금노동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개발한 분석 척도가 자영업자에게 적용할 때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나아가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경우에 기존에 포함되었던 설문 항목이 제외되거나 기존에 없던 항목이 추가되는 등 기초가 되는 설문지가 변화하기 때문에 완전한 비교에는 어려움이 있다. 중·고령자는 평생직장에서 은퇴한 이후 취업과 창업을 결정해야 하는 기로에 놓이기 때문에 자영업자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연결망 변수를 도입하였으나 사적, 구조적 차원에 치중되었다는 문제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관계망을 구조적 차원으로 설정한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마찬가지로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분석 대상으로 한 이보람 외(2016)는 모임 참여 여부를 더미 변수로 정의하여 사회적 연결망 변수로 투입하였다. 사회적 연결망이 구조적 차원과 더불어 기능적 차원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45], 사회적 연결망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능적 차원에 대한 연구는 질적 분석을 필요로 하므로 고령화연구패널조사라는 패널 데이터보다는 보다 질적 데이터의 수집을 통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자의 만족도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특정 연령대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반복적으로 지적하였다. 특히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고려했을 때 중·고령자를 넘어 세대 별로 유사한 분석을 반복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빠른 세대교체 및 가치관 변화

45) 특히 기능적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구원의 경우, 본 연구에서 활용한 가구원의 수 자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능적 차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를 고려했을 때 베이비 붐 세대를 넘어 이후 세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나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어 제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이 단순히 과거의 정책의 답습이 아닌 보다 포괄적인 정책이 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강소랑, 문상호. (2010). 중·고령자의 경제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391-415.

강정한, 양유민. (2013). 사회적 연결망의 동원이 장애인의 취업과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 장애와 고용, 23(2), 29-51.

강종수, 김옥희. (2010). 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노인복지연구, 48, 279-298.

강현옥, 황혜원. (2009). 직업활동 참여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44, 98-110.

고용노동부 외. (2012).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발간등록번호 11-1490100-000057-14.

김동배, 채수진, 김성웅, 김세진. (2009). 고령근로자의 직무만족도 영향 요인에 대 한 탐색적 연구: 만성질환 고령근로자와 건강한 고령근로자의 비교. 노인복지연구, 45, 261-291.

김동철, 고혁근, 김대건. (2016). 활동적 고령화가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55(1), 123-153.

김미혜, 권용희. (2013). 일자리 특성이 고령근로자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직무만족 매개효과와 성별 간 다집단분석.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3(1), 67-84.

김용탁. (2011). 장애인 취업자의 취업경로 분석. 장애와 고용, 21(3), 5-26.

김우영, 김응규. (2001). 자영업주와 임금근로자의 직업만족도 비교분석. 중소기업 연구, 23(3), 29-54.

김응규, 박치관. (2001).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보다 직업만족도가 높은가?. 한밭대학교 논문집, 18, 439-454.

김정우. (2016). 노인의 근로참여 및 직업특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빈곤노인과 비빈곤노인 비교.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서울.

김정훈. (2014년 11월 24일).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 줄어... 한국 ‘인구 오 너스(onus · 부담)時代’로 전략”. 조선비즈.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1/24/2014112400231.html에서 검색.

남경희, 장유미. (2013). 한, 일 양국의 고령자일자리정책 비교연구. 일본근대학연구, 39, 259-281.

박미현. (2013). 중고령 자영업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글로벌사회복지연구, 3(2), 47-64.

박부연, 박형수. (2013a). 노인의 직업유무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전자통 신학회 학술대회지, 7(1), 302-306.

박부연, 고대식, 박형수. (2013b). 노인의 직업특성과 삶의 질과의 관련성. 한국전 자통신학회 논문지, 8(6), 941-947.

박순미. (2011). 노인의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참여와 경제 활동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3, 305-332.

박지혜. (2003). 고령화 사회와 재취업. 월간 복지동향, 60, 22-26.

박현숙, 박용순. (2013). 고령자의 직무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3, 305-332.

방하남, 김상욱. (2009).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도의 결정요인과 구조분석. 한국사회학, 43(1), 56-88.

방하남, 신인철. (2011). 강요된 선택: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과 재취업의 동학분석. 한국사회학, 45(1), 73-108.

배규식. (2015). 은퇴없는 사회를 위한 고용시스템 개선 방향. 고령사회대책토론회 세미나 · 토론회 발표자료.

백옥미. (2014). 노년기 노동시장 참여변화 궤적과 삶의 만족도. 보건사회연구, 34(4), 241-263.

서경조, 조성숙. (2013). 직업활동 참여노인의 개인-환경 적합성과 업무 스트레스 및 만족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7), 248-264.

신경립. (2016년 9월 28일). "亞~고령화의 그늘...자본유출 · 복지부담 이중고". 서울경제. http://www.sedaily.com/NewsView/1L1LDREB51/GF02에서 검색.

양희택, 서대석. (2011). 임금근로 장애노인의 고용의 질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세미나 · 토론회 발표자료, 247-277.

오유진. (2009). 만족도를 이용한 자영업에 관한 연구. 응용통계연구, 22(2), 281-296.

윤지은, 전혜정. (2009). 중고령자의 경제활동상태와 정신건강: 소득수준과 가족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9(2), 743-759.

이갑용, 송원호, 강장석, 이재희, 조용근. (2010). 고령화시대 노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연구. 경영컨설팅리뷰, 1(1), 147-162.

이미진. (2011). 노인의 경제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월간 복지동향, 158, 15-23.

이민아. (2013).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와 우울. 한국사회학, 47(4), 171-200.

이보람, 이정규. (2016). 노인의 생활만족에 대한 사회적 참여와 경제적 참여의 효 과 비교. 노인복지연구, 71(2), 351-377.

이소정. (2011). 베이비 붐 세대의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1 -18.

이철선. (2012). 고령자 고용 실태와 정책적 보완과제. 보건복지포럼, 32-44.

이현미. (2007). 노인의 직업활동 참여와 생활만족도 관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서울.
장수지. (2010). 노년기 사회적 관계망의 구조적, 기능적 측면과 주관적 삶의 질의 관계. 사회과학연구, 26(1), 75-10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새로마지 플랜 2015.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0082-0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5).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전사회적 노력 본격화: '제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브릿지 플랜 2020 수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2015.12.9.).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브릿지 플랜 2020.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1539-13.
전병주, 최은영. (2014). 노인의 사회적 배제 특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 관계망의 완충효과. GRI 연구논총, 16(3), 237-274.
정세희, 문영규. (2014).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연구, 14(4), 59-79.
정순희. (2015). 예비노인 자영업자의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8(1), 31-52.
정윤경. (2013). 고령근로자의 직무만족도에 직무특성이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4(1), 119-132.
조성원. (2014). 서울시 노인들의 복지관 이용이 건강 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관계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 학과, 서울.
조은현, 이동형. (2016). 노인들의 직업 유무에 따른 스트레스 및 대처방식 연구. 대한산업공학회춘계공동학술대회 논문집, 6133-6138.

주현. (2014). 자영업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전국경제인연합회 발간자료, 7-18.

최성수, 이가람, 이성민. (2008). 사회적 연결망과 은퇴경험이 한국 중고령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8(2), 291-307.

최이락. (2016년 9월 28일). “‘고령화’ 日 국민의료비 8년연속 증가…2014년 445조원대”.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28/0200000000AKR20160928174900073.HTML에서 검색.

통계청. (2013).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본 자영업자 가구의 현황 및 특징. 통계청 보도자료(2013.06.21.).

통계청. (2015). 2015 고령자 통계. 통계청 보도자료(2015.09.24.).

한종국. (2016). 직무특성이 중고령자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고령친화적 인적자원관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인적자원관리연구, 23(1), 19-45.

허성호, 김동대. (2011). 2006년 고령화 패널조사에 나타난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다차원적 영향 분석.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1(2), 407-418.

홍두승, 전광희. (1995). 일본의 고령자 사회정책: 과제와 전망. 지역연구, 4(2) 여름호, 1-22.

황남희. (2016). 노인의 빈곤,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2016(1), 113-130.

Brayfield, A. H., Rothe, H. F. (1951). An index of job satisfac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35(5), 307-311.

Diener, E. D., Emmons, R. A., Larsen, R. J.,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Granovetter, M. S.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360-1380.

Hooyman, N. R., Kiyak, H. A. (2008). *Social gerontology: A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 Person Education.

House, R. J., Wigdor, L. A. (1967). Herzberg' s dual-factor theory of job satisfaction and motivation: A review of the evidence and a criticism. *Personnel psychology*, 20(4), 369-390.

Kalleberg, A. L. (1977). Work values and job rewards: A theory of job satisfac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24-143.

Lemon, B. W., Bengtson, V. L., Peterson, J. A. (1972). An exploration of the activity theory of aging: Activity type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in-movers to a retirement community. *Journal of gerontology,* 27(4), 511-523.

Locke, E. A. (1969). What is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4(4), 309-336

Maslow, A. H. (1943).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 50(4), 370-396.

Neugarten, B. L., Havighurst, R. J., Tobin, S. S. (1961).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134-143.

Rowe, J. W., Kahn, R. L. (1997).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st,* 37 (4), 433-440.

Van Eerde, W., Thierry, H. (1996). Vroom' s expectancy models and work related criteria: A meta-analysi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1(5), 575-586.

Abstract

The effect of mid-old aged worker's labor characteristics on job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with a focus on 5th KLoSA data-

Cho, Hyunsuk
Department of Public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is experiencing side effects of population ageing, already experienced by other nations with ageing population. Problems that arise from population ageing are diverse, typical ones being the increase of welfare expenditure, capital outflow, decrease of potential growth rate, and decrease of labor productivity. With accelerating rate of population ageing, the increase of welfare demand of mid-elderly is aggravating the government's welfare expenditure. The response to the intertwined problem of increase of welfare demand and expenditure cannot be confined to either with the increase or decrease of welfare

expenditure alone. Japan, which has also experienced similar policy dilemma, confronted the problem with extensive job policy regarding the mid-elderly. Job policy not only provides income for mid-old aged workers, alleviating government' s welfare expenditure, but also provides better health status through active social engagement of mid-old aged workers. The job policy thus acts as a comprehensive solution towards population ageing.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effect of socioeconomic status, social network, and job characteristic on the both job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both of which can be considered as the final objectives of job policy. The analysis focused on the 5th Korea Longitudinal Study of Ageing(KLoSA) data. The object of study was classified into self-employed and paid-employed in order to analyze the difference in composition of the variables effecting the job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in each group. The variables effecting the job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was thus specified, providing foundations for future policy implication. In addition, same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1st and 3rd Korea Longitudinal Study of Ageing(KLoSA) data in order to confirm whether there has been any longitudinal changes in the past 8 years.

The analysis on the 5th KLoSA confirmed that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self-employed and paid-employed group in the composition of variables that effect the job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As for the paid-employed, employment type(regular/non-regular), substantive job requirement, and subjective class self-awareness had

positive effect on job satisfaction, while physical job requirement had negative effect on job satisfaction. As for life satisfaction, subjective class self-awareness,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frequency of meeting with close acquaintances had positive effect. Analysis on self-employed group revealed that job satisfaction was affected by frequency of meeting with close acquaintances, number of social gathering, subjective class self-awareness. The life satisfaction of self-empolyed group was affected by education level, subjective class self-awareness,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Further analysis on 1st and 3rd KLoSA data displayed changes in the factors that affect life satisfaction and job satisfaction of the two groups, self-employed and paid-employed. This study, based on the aforesaid result, came up with several policy implications. In order for the job policy to function as a comprehensive solution toward population ageing, job policy must be applied alongside with policies aiming to foster civil society and social network among mid-old aged. Above all, discussions concerning inequality of wealth among mid-old workers should not be confined to mid-old aged people only.

Keywords : population ageing,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Social Network, self-employed, job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

Student Number : 2014-23562